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공통국어1

강호영 외

1 소통으로 커지는 세상

01 방문객

스스로 계획하기

008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009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011쪽

1 ② 2 ⑤ 3 바람 4 ③

1 이 시는 타인과의 만남의 의미를 물리적이거나 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며, 상처받기 쉬운, 상처받았을 마음이 오는 것이라고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람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라는 만남의 의미, 상처를 섬세하게 더듬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만남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상처받은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으나 이는 만남의 괴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③ 만남의 의미를 '어마어마한 일로 보며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나, 만남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④ 만남 그 자체보다는 만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⑤ '방문객'이라는 제목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지만 새로운 방문객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2 ⑤는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로서의 '바람'에 대해 표현한 것으로 만남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시구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만남의 중요성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환기하고 있다.

② 만남의 의미를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③ '일생'이라는 표현을 통해 만남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④ 사람과의 만남을 마음이 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이 시에서 '바람'은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를 비유한 표현이다. 섬세하게 부는 바람을 의인화하여 만남의 자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이 시에서 '바람'은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존재이다. 그리고 '환대'는 그런 바람을 흉내 내면서 노력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환대'는 타인과의 만남을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대한다는 뜻이며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환대'이므로 내면적인 진심으로 볼 수 있다.

④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위로하는 존재인 '바람'을 흉내 내는 일이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⑤ '바람'을 흉내 내며 노력하는 자세이지 타인의 선의에 대한 물질적 보답이 아니다.

어휘력 UP

019쪽

1 (1) ㉠ (2) ㉡ (3) ㉢

2 (1) ㉡ (2) ㉢ (3) ㉠ (4) ㉣

3 ①

1 (1) '일상적'은 '날마다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2) '능동적'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이다.
(3) '주체적'은 '어떤 일을 실천하는 데 자유롭고 자주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2 (1)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라는 뜻의 '맥락'이 적절하다.
(2) 환경 보호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이라는 뜻의 '인식'이 적절하다.
(3)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아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의 '소통'이 적절하다.
(4) 독자가 소설에 몰입하려면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는 뜻의 '공감'이 적절하다.

3 <보기>의 상황은 가짜 눈을 치우면 또 가짜 눈이 내리는 상황이 계속되어 불행한 상황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적절하다. ①에는 <보기>의 상황과 같은 의미의 한자 성어가 쓰였다.

오답 풀이 ②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어울린다.

③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어울린다.

④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만고불변(萬古不變)'이 어울린다.

⑤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오매불망(寤寐不忘)'이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020~021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⑤ 05 ④ 06 ④ 07 ⑤

01 이 시는 타인과의 만남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한 사람의 일생과 만나는 어마어마한 일이며, 상처받았을 수도 있는 어린 마음을 만나는 중요한 일로 새롭게 인식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오답 풀이** ① 이상 세계에 대한 염원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화자는 누군가와 만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과거의 만남에 대하여 회상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화자는 만남을 한 사람의 일생과의 만남으로 인식하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대의 변화 자체에 주목하지는 않는다.
 ⑤ 화자는 만남의 태도는 '바람을 흉내 내는 것'처럼 섬세하고 부드럽게 위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람에게 만남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의탁하지는 않는다.

02 '~하자'와 같은 청유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평서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때문이다', '부서지기' 등의 시어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이다'라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④ '바람'을 의인화하여, 환대의 자세에는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위로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⑤ 9~13행에 행간 걸침으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며 '마음'을 행 앞에 배치하여 강조하고 있다.

03 이 시는 만남을 타인의 일생과 만나는 사건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만남' 자체의 영원함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타인과의 만남이 일생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며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② '마음'의 속성이 부서지기 쉽다고 표현한 것과 그 바람을 흉내 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④ 이 시에서 '환대'는 타인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를 읽고 환대의 의미와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다는 태도는 적절하다.
 ⑤ '바람을 흉내 낸다면'에서 흉내를 낸다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언급한 감상은 적절하다.

04 작품을 비평하는 활동을 통해서 문학 소통에 참여하는 내용의 활동으로, 작품의 비평에는 반드시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다. ㉔은 사회·문화적 가치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비평한 내용이지만 ㉕와 같이 표현적 요소를 비평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 풍토나 배경을 시의 주제와 연결하는 내용의 근거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㉔의 비평은 내용 요소에 대한 것으로, 타인을 대할 때 '바람'을 흉내 낸다면 '환대'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② ㉔의 비평은 내용 요소에 대한 것으로, '만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근거를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③ ㉕의 비평은 내용 요소에 대한 것으로, 만나는 상대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부분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④ ㉔은 표현 요소에 대한 것으로 시어의 반복이 운율을 만들어 내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05 이 문항은 작가의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하는 '작가 맥락'의 문학 비평과 관련한 문항이다. <보기>는 정현중 작가의 다른 시, 「섬」과 이 작품에 대한 해석, 정현중의 시 세계에 대한 평가가 있는 짧은 비평이다. ④「섬」에 나타난 작가의 감정이 자연스럽고 담백하다는 설명은 맞지만 이 시에 다양한 감정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이 시 역시 담담하고 담백하게, 만남의 중요성과 환대의 방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섬」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이 시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② 이 시와 「섬」은 모두 타인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그리고 있다.
 ③ 시의 비평에는 시의 내적 요소인 시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담길 수 있다.
 ⑤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의 이러한 인식과 연결하여 해석해 볼 때 타당한 내용이다.

참고 자료

맥락을 고려한 문학 작품의 감상

문학 작품에 담긴 의미는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독자 맥락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감상해야 한다.

06 ㉔ '마음'의 속성은 '상처받기 쉬우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더듬어 볼 수 있는 ㉕ '바람'의 속성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환대'는 그런 '마음'을 흉내 낼 때 가능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㉔의 속성은 상처받기 쉽다는 것이지만 ㉕의 속성은 섬세하게 타인의 상처를 살피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㉔의 상처받기 쉬운 속성 때문에 ㉕의 상처를 이해하는 속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㉔은 대상의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㉕은 대상의 정서로 볼 수 없으며 화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파악해야 한다.
 ⑤ ㉔은 대상의 상황이며, ㉕은 화자의 삶의 자세와 관련된 시어이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보기>에서는 가짜 폭설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외롭고 답답함을 참지 못하기도 하고 재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눈을 끝없이 치우며 재난을 극복하려는 사람과 치우기를 포기하고 현 상황에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허황된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가짜 폭설이 내리는 미래의 기후 재난 상황을 상상이며 그려 낸 작품이다.
 ② 극복하기 힘든 재난에 처한 사람들의 현실과 이에 복구 작업을 하며 나름의 대처를 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소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기상 이변 등의 유사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④ 가짜 폭설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실종되는 등 도시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 나타나 있다.

02 함께 읽고 매체로 소통하기

소스로 계획하기

022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023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031쪽

1 ② 2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 있게 여기는 것 3 ②

1 이 글에서는 자신의 방향을 찾는 단계를 네 단계로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확신'의 단계는 모든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꿈에 대해 확신이 생기는 단계이지만 이 단계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침반 바늘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도 이런저런 경험을 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다.

③ 나침반 바늘이 멈추기 직전에 파르르 떨리는 것은 '나에게 정말 재능이 있을까?'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와 같다고 하였다.

④ 필자는 '만약 내가 방향하지 않는다면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이 글에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기까지 방황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을 '창조적 방황'이라고 하였다.

2 필자는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세 가지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지 있게 여기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3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를 탐구할 때에는 서점이나 도서관의 책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전문 서적 등은 체계적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신뢰감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자료는 자료를 찾기가 쉽고 빠르며 다양할 수 있지만 출처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찾은 정보는 유의미한 정보를 선별하여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공유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③ 모든 자료를 읽기 어렵기 때문에 읽기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성격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글이나 자료를 읽는다.

④ 비슷한 목적의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면 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

확인 문제

038쪽

1 ③ 2 ⑤ 3 ② 4 ⑤ 5 ⑤

1 제작 목적과 수용자 분석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작하는 내용이 학급 내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 제품 소비 현황'은 쓰레기 분리배출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작 목적과 수용자 분석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제작 목적이 학급의 쓰레기 분리배출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직접 출연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의 장점을 소개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다.

② 수용자 분석에서 학급 구성원들이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므로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급의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작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⑤ 학급 내 모둠의 쓰레기 분리배출 현황을 시각화하여 게시판에 게시하면 쓰레기 분리배출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 <보기>에서 글과 사진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글과 사진을 활용하여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좋은 매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블로거이다.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진이나 글을 활용하여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과 사진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두 학생이 선정할 매체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글과 사진을 활용하기 어렵고, 인터뷰 자료 등은 소개하려는 대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③ 지역 신문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글과 사진을 활용하였고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나, 집에서 촬영하는 것과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 등은 우리 동네의 떡볶이 맛집을 소개하려는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3 매체를 제작할 때에는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과 내용, 수용자의 특성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우고 이에 적절한 매체의 유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매체 제작 계획과 매체 유형을 고려하여 어떻게 매체를 제작할지를 기획한 후 실제 매체를 제작한다. 제작한 매체 자료는 게시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

4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매체 자료는 시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의성은 '그 당시의 사정이나 사회적 요구에 들어맞는 성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의성을 중시한다고 해서 매체 자료에서 의제를 다루는 관점이 청중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모둠에서 제작한 매체 자료를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매체 자료의 주제와 목적, 특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둠에서 제작한 매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시해야 한다.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필요한 작업 도구를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는 있지만, 매체 자료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과 는 상관이 없다.

1 (1) ㉠ (2) ㉡ (3) ㉢

2 (1) 확산 (2) 개발 (3) 반증 (4) 체계적

3 (1) ㉠ (2) ㉡ (3) ㉢ (4) ㉣

4 ㉡

5 걸음마를 떼다

6 ㉢

- 1 (1) '재구성되다'는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이 다시 새롭게 구성되다.'라는 의미이다.
 (2) '선정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하다.'라는 의미이다.
 (3) '미세하다'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다.'라는 의미이다.
- 2 (1) '확신'은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신용'은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이다.
 (2) '개발'은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는 뜻이다.
 (3) '반증'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켜 봄.'이라는 뜻이다.
 (4) '체계적'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추상적'은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다.
- 3 (1) '조직'은 '짜서 이루거나 엮어서 만듦.'을 의미한다.
 (2) '수준'은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의미한다.
 (3) '분야'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범위나 부분.'을 의미한다.
 (4) '배제'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의미한다.
- 4 ㉡에는 '뿔뿔이 떨어져 나뉜다.'라는 의미를 지닌 '분배되다'가 적절하다.
- 5 '걸음마를 떼다'는 '어떤 일이나 사업을 처음 시작함을 이르는 말.'의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고삐를 조이다'는 '사태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긴장되게 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구미가 당기다'는 '욕심이나 관심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 6 '암중모색(暗中摸索)'은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개과전선(改過遷善)'이 어울린다.
 ② '오 리나 되는 길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오리무중(五里霧中)'이 어울린다.
 ④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명약관화(明若觀火)'가 어울린다.
 ⑤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한자 성어인 '군계일학(群鷄一鶴)'이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042~043쪽

01 ㉠ 02 ㉢ 03 ㉡ 04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05 ㉠ 06 학생들이 제작할 매체 자료는 사회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제작 목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07 ㉡ 08 ㉠

- 01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멈추기 직전에 파르르 떨리는 상황에 비유하였다.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② 두 번째 단계인 바늘이 도는 것은 이런저런 경험을 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라고 보았다.
 ③ 네 번째 단계인 '확신'의 단계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자신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창조적 방향'은 진로를 찾아가는 사람이 방향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으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02 ㉠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이것을 알아야 ㉡ '자신의 방향(진로)'을 찾을 수 있다. 경영이나 정치, 외교 관련 진로는 친취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끄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 오답 풀이 ① 인간관계가 좋고 이웃을 돕는 일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을 상담하거나 지원해 주는 복지나 상담, 심리 관련 진로가 적절하다.
 ② 체계적이며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므로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회계나 금융, 경제 관련 진로가 적절하다.
 ④ 감수성이 풍부하며 창조적인 일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므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 관련 진로가 적절하다.
 ⑤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므로 한 분야를 깊이 탐구하는 과학 분야 등의 연구 관련 진로가 적절하다.

- 03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찾을 때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확인하며 그중 중요한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글과 자료를 빠짐없이 읽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4 진로나 관심 분야와 관련한 글이나 자료를 읽은 후에 독서 활동 결과물, 독서 토론, 발표 등으로 독서 활동 결과를 공유하면,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한다는 내용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 05 [A]에서는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시민 기자들이 전쟁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영상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A]에 해당하는 매체 자료로 적절하다.

- 06 '예나'의 말을 보면 학생들이 제작할 매체 자료는 사회나 문화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고, 제작 목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매체 자료의 내용을 [B]에서 찾아 썼다.	☐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을 [B]에서 찾아 썼다.	☐

- 07 '학생 1'은 화면, 소리, 자막을 활용해서 정보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보여 주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배경음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자료의 편집이 가능한 영상이 적절하다. '학생 2'는 많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사진이나 짧은 글을 활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이미지를 활용하여 핵심만 전달하는 카드 뉴스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화면, 소리, 자막을 활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책은 적절하지 않다. '학생 2'는 많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글과 사진이 많은 블로그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 적절하지 않다.

- ③ '학생 1'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학생 2'는 사진이나 짧은 글을 활용하여 환경 문제의 실상을 간략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학생 1'은 화면, 소리, 자막을 활용해서 내용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은 적절하지 않다. '학생 2'의 경우 압축적으로 사진과 글을 정리하고, 상영 길이로 짧게 한다면 영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 ⑤ '학생 1'은 음향이나 편집 화면을 활용하려고 하므로, 카드 뉴스는 적절하지 않다. '학생 2'는 간략하면서 인상 깊게 사진이나 글을 활용하려 하므로 다큐멘터리는 적절하지 않다.

- 08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이들에게 양치질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보다는 쉽고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와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단원 평가 ①

046~049쪽

- 01 ③ 02 ② 03 <보기>는 사람들 사이에 깊은 이해와 공감의 부족해지고, 정신적 고립이 늘어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시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환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04 ⑤ 05 ① 06 ④ 07 ② 08 ② 09 모든 창조적인 인물들이 '창조적 방향'을 거쳤고, 방향을 한다는 것은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 ③ 11 ④ 12 ⑤

- 01 이 시는 '오기 때문이다', '했을/있을' 등의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는 만남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대자연인 '바람'은 화자가 아니라 타인의 '상처받기 쉬운, 상처받았을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존재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④ 이 시는 '~이다'와 같은 평서형 종결 어미로 화자의 정서를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이 시의 화자는 만남의 의미와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자세를 인식하고 있다. 화자와 방문객의 모습을 대조하는 내용은 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다.

- 02 이 시는 누군가의 마음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만남으로 인해 상처받기 쉬운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담은 것은 아니다. 만남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는 바람을 주제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바람을 흉내 낸다면'에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바람처럼 타인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③ '방문객'은 자신을 찾아오는 손님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시가 타인과의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목이다.

- ④ 화자는 형용사인 '어머어마한'이라는 시어를 통해 만남의 중요성을 '어머어마한일'로 환기하고 있다.

- ⑤ 이 시에서는 만남이란 사람이 오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이라는 시어를 나열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03 <보기>는 이해와 공감이 부족해지고 표면적 소통이 중요시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외로움이나 정신적 고립을 느끼는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 시는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환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현대 사회의 문제를 <보기>에 나타난 '깊은 이해와 공감의 부족', '정신적 고립' 등으로 요약하였다.	☐
이 시의 의미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환대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04 이 작품은 만남의 중요성과 진정한 환대를 주제로 한 시이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인터뷰 영상 끝에, 사람을 환대하는 모습과 함께 이 시를 소개하는 것은 시의 주제와 매체가 잘 연결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 '미래'는 발달된 도시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와도 만나는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시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이 시의 '어마어마한'은 객관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관광객의 수와 이 시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 ③ '자연의 신비'를 보여 주는 다큐멘터리는 이 시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 ④ 이 시는 누군가를 만나는 만남의 자세를 다루고 있다. 이를 주위의 특정한 사람들과의 추억으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05 이 소설은 '가짜 폭설'이 내린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이 소설은 1인칭 '나'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작품 안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두 시각이 대비되지 않고, 1인칭 시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 ④ 미래의 기후 재난 상황으로 가짜 폭설이 내리는 공간적 배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시간적 배경은 상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재난 상황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그리고 있으나, 인물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양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06 <보기>는 『스노볼 드라이브』를 쓴 작가의 말로, 작가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 폭우나 폭설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을 늦출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시인이 부패하지 않은 깨끗한 모습인 것은 기상 이변도 우리의 삶을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징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작가의 말에 의하면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가 생긴 풍경은 '정체불명의 하얀 결정체'로 볼 수 있다.
- ② 가짜 눈으로 생긴 증상과 질병은 삶에 대한 위협으로, 예기치 못한 이상 기후로 생긴 것이다.
- ③ 소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짜 눈을 치우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후 위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 ⑤ 가짜 눈이 쉽게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것처럼 이상 기후도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참고 자료

문학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에 반영된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배경, 문화적 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소설은 현실에서 소재를 가져오지만, 이는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 새롭게 꾸며 낸 허구의 이야기이다. 소설 『스노볼 드라이브』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인 기후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보며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문학과 삶을 연결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07 이 글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특정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이 글은 수필로, 주장의 이유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글과는 거리가 멀다. 이 글에서는 삶의 방향을 찾는 과정을 나침반에 비유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인물의 심리 중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건의 정황과는 관계가 없다.
- ⑤ 이 글에는 통계나 객관적인 수치가 사용되지 않았다.

08 이 글은 진로를 탐색하는 10대 독자를 대상으로 한 수필이다. 이 글에서는 10대는 '시추가 시작된 시기'로, '시추의 시기'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 우물을 파겠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는 방향을 찾는 네 단계가 끝나도 흔들린다고 하였으므로, 방향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 ③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 아는지를 알아야 삶의 '방향'을 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다.
- ④ 방향을 찾는 네 번째 단계에서 바늘이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래도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⑤ 삶의 방향성을 찾는 네 번째 단계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다.

09 <조건>에 맞추어 '모든 창조적 인물들이 '창조적 방향'을 거쳤고, 방향을 한다는 것은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모든 창조적 인물이 창조적 방향의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방향은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때문이다.'로 문장을 끝맺음하였다.	☐

10 '해양 생태계를 알아보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 등의 정보를 정리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제시해 보자.'에 이 글의 목적이 드러난다.

- 오답 풀이** ① 해양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도 있으면 찾아서 소개해 주자고 하였으나 해양 생태계의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해양 생태계의 교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해양 생물을 소개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해양 생태계 파괴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예시이지 이 자체가 제작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⑤ 표나 그래프,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매체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매체 자료를 제작하려는 목적과 관련 없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11 이 대화의 (가)의 ㉠~㉣ 중 <보기>의 장면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이다. 이 매체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인터뷰를 자료에 넣으면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장면 내용> 2에 해양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고 파괴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제시된다.
 ② <장면 내용> 4에 보호 대상 생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③ <장면 내용> 5에 사진 자료나 표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시선을 끌고 정보를 압축하였다.
 ⑤ <장면 내용> 6에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부분이 제시된다.

12 매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가져온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자료에 보안 관련 내용이나 개인 정보 등이 포함된 민감한 자료를 다룰 때에는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보 보호에도 유의한다. 자료를 수집할 때 오래된 정보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의 생산 시기를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자료가 특정 시각에 치우쳐 있지 않은지를 검토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대단원 평가 ②

050~053쪽

- 01 ⑤ 02 ④ 03 ⑤ 04 <보기>는 독자 맥락에서 작품을 소통한 것이다. 이 외에도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맥락에는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있다. 05 ③ 06 ③ 07 ④ 08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방향'이다. 이 글에서는 방향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을 '창조적 방향'이라고 부르며, 방향을 진로 탐색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을 확장하였다. 09 ⑤ 10 ④ 11 사람을 환대하는 기업

01 이 시의 화자는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바람'처럼 섬세하고 부드럽게 위로하고 싶어 한다. 이는 '바람'의 태도를 의인화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반어는 어떤 말을 본래의 뜻과는 반대의 뜻으로 써서 숨은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 시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경어체는 존댓말로, 이 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자연과 함께 머무는 삶보다는 타자를 환대하며 위로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다.
 ④ 이 시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시상 전개

시상 전개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관념을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	'과거-현재-미래', '봄-여름-가을-겨울'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공간의 이동	'먼 곳 → 가까운 곳', '위 → 아래' 등 장소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는 방식
기승전결	기(시상의 제기) → 승(시상의 심화) → 전(시상의 전환) → 결(시상의 집약)로 이루어진 방식. 한시(漢詩)의 전통적인 시상 전개 방식임.

02 이 시에서는 공간의 차이가 강조되지 않으며, 화자의 심리 변화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 '더듬어 볼 수 있을 / 마음' 부분은 행을 분리하여 표현하여 시에 변화를 주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한 사람과의 만남을 '과거-현재-미래-일생'이라고 점층적으로 표현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오기 때문이다', '했을-있을' 등 유사한 시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평서형 종결 어미 '~이다'의 반복으로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나타내고 있다.

03 시의 주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항이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는 데에는 상대방의 마음, 내면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사는 이 시의 주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시를 인용하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만남'에 대한 시로, 마음을 치유하는 '휴양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 인간의 내면을 묘사하는 영화 기법의 다양성을 다룬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시의 주제와 연결되기 어렵다.
 ③ 이 시는 한 사람과의 만남의 중요성과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강조하는 내용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④ 스마트폰의 최신 기술의 발전은 시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04 <보기>는 시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감상한 내용을 쓴 글이다. 수용자 중심의 감상은 '독자 맥락'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보기>를 독자 맥락의 소통으로 썼다.	☐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등 다른 맥락을 한 가지 이상 더 썼다.	☐
<조건>에 제시된 형식의 문장으로 썼다.	☐

05 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치우는 것을 도와 피해가 복구되었으나 그 사이 피해가 매우 컸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복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을 '정체불명'으로 표현하였다.
 ②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은 괴물질이 평범한 눈이 아님을 나타낸다.
 ④ 각기 이상 현상에 다른 반응을 보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절망적이다.
 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진짜 눈과 진짜 눈의 경계가 흐려진 것'이라고 표현했다.

06 서평에서 다루는 작품 요약만으로는 작품에 대해 알기 어렵다. 따라서 작품을 읽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작가는 전작 『뉴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 『카테일, 러브, 좀비』 그리고 『스노볼 드라이브』까지 '일상에 침투한 작은 종말의 조짐'을 그리는 작가임을 알 수 있다.
 ② 작가의 전작과는 달리 『스노볼 드라이브』는 무대를 전 세계로 확장하였으며, 삶의 아이러니를 좀 더 치열하게 보여 준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재앙 앞에서 더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는 모습을 '삶의 아이러니'로 표현하여 이상 기후가 나타난 이후의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전 인류적 재앙이 낫설지 않은 지금'이라는 표현을 통해 현실 세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현실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다.

07 이 글에서는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나침반의 움직임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어 사람들이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② 이 글에서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시기를 시추의 시기라 말하며 10대를 시추의 시기라고 하였다.
 ③ '퐁테뉴'의 말을 인용하여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신뢰도를 높였다.
 ⑤ 이 글은 나침반이 떨어지는 시기를 넘으면 '확신'의 시기에 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신의 방향을 찾는 네 단계

방향	나침반을 바닥에 놓으면, 바늘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모색	나침반 바늘이 꺾이고 흔들리며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려움	한 방향을 향해 멈추기 직전, 나침반 바늘이 파르르 떨린다.
확신	나침반 바늘이 멈추어 한곳을 가리키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는다.

08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방향'으로 보통 방향은 잡지를 못 잡는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방향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을 '창조적 방향'이라고 부르며, 방향을 진로 탐색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는 '방향'을 긍정적인 개념을 지닌 것으로 생각을 확장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방향'이라는 단어를 이 글에서 찾아 썼다.	☐
이 글에서는 '방향'의 일반적 의미에서 벗어나 생각을 확장하였다는 의미의 내용이 포함됐다.	☐
'<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으로 시작하였다.	☐

09 진로 계획서는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의 사무 기본 역량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디서든 필요한 직무 역량보다는 '사회적 기업'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구체화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희망하는 직무에 관한 인턴을 하면 단기적으로 현장 경험을 쌓기 좋을 것이다.
 ② '사회적 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및 기획' 업무가 진로의 목표였으므로, 사회적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을 진행하는 업무는 중기 계획으로 적절하다.
 ③ 장기적으로는 임원으로 성장하여,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적절하다.
 ④ 봉사 활동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경험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나)의 시는 타인과의 만남이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와 타인을 환대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 다루고 있는 시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주제를 기억하면 진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 반응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② 시를 낭송하는 능력과 사회적 기업의 직무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③ 사람과의 만남과 환대하는 자세를 다루고 있으므로 일생과 관련된 프로젝트 관리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⑤ 이 시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11 (나)는 타인과의 만남이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와 타인을 환대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 다룬 시이다. 이와 같은 시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타인을 환대하는 마음과 관련한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제를 드러내는 시어인 '환대하는'을 넣어서 작성하였다.	☐
'~기업'의 형식으로 문장을 썼다.	☐

01 수라

스스로 계획하기

058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059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061쪽

1 ① 2 (1) 의인화 (2) 가족 3 ② 4 차디찬 밤

1 이 시는 화자가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행동이 반복되며 시상이 전개된다.

오답 풀이 ② 화자가 '거미'를 대상으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거미의 처지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지는 않는다.

③ '방'과 '문밖'이라는 공간만 제시되어 있을 뿐 공간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는 '거미'를 보며 연민과 슬픔을 느끼고 있을 뿐이지, 갈등하지는 않는다.

⑤ '거미 가족'을 순차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대상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제의 범위가 거미에서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지도 않는다.

2 (1) 이 시는 거미를 의인화하여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2)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흠어진 거미 가족의 상태와 일제 강점기에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태를 의미한다.

3 이 시의 화자는 처음에 '거미 새끼'를 발견하고는 무심하게 문밖으로 쫓아 버린다. 그러나 잠시 후 '큰 거미'를 발견하고는 이를 새끼 거미의 어미로 여기고, 연민을 느끼며 서러워한다. 그리고 '무척적'은 새끼 거미'를 발견하고는 문밖에서 가족들을 만나기를 바라며 슬퍼한다.

4 '차디찬 밤'은 거미 가족이 처한 혹독한 현실과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휘력 UP

068~069쪽

1 (1) ㉠ (2) ㉡ (3) ㉢

2 (1) 아물거렸다 (2) 공동체 (3) 개성 (4) 구체화 (5) 화자

3 (1) ㉡ (2) ㉠ (3) ㉢

4 ㉡

5 가슴이 미어지다

6 ㉢

1 (1) '어니젠가'는 '언젠가'의 의미를 지닌 평안도 방언이다.

(2) '썩다'는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다.'는 의미이다.

(3) '가제'는 '갓', '방금'의 의미를 지닌 평안도 방언이다.

2 (1) 이 문장은 먼 항구의 불빛이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작거나 희미한 것이 보일 듯 말 듯 하게 조금씩 자꾸 움직인다.'라는 뜻의 '아물거린다'가 어울린다. '홍청거렸다'는 '홍에 겨워서 마음껏 거드러거리다.'라는 의미이다.

(2) 이 문장은 인간이 타인과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집단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뜻의 '공동체'가 어울린다. '복합체'는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모여서 된 물체.'라는 의미이다.

(3) 이 문장은 정해진 관습이나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생각을 드러내야 지닐 수 있는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의 '개성'이 어울린다. '속성'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이라는 의미이다.

(4) 이 문장은 소설이 임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이라는 뜻의 '구체화'가 어울린다. '일체화'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몸이나 한 덩어리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들.'이라는 의미이다.

(5) 이 문장은 시인이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에서 내세우는 사람이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화자'가 어울린다. '독자'는 '책, 신문, 잡지 따위의 글을 읽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3 (1) '유기적'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 낼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2) '주관적'은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3) '감각적'은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4 ⑤는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상황이므로, 문맥상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라는 의미의 '어렵다'가 어울린다.

5 '가슴이 미어지다'는 '마음이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 견디기 힘들게 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가슴을 펴다'는 '급할 것 없이 당당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가슴이 서늘하다'는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찬 바람이 이는 것같이 선득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친구의 마음을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이해한다는 의미이므로 ③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적절하다.

②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노심초사(勞心焦思)'가 적절하다.

④ '서로 굳게 결합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일심동체(一心同體)'가 적절하다.

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적절하다.

01 ① 02 ② 03 ⑤ 04 일제 강점기라는 우리 민족의 차갑고 혹독한 현실을 의미한다. (차갑고 혹독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05 ⑤ 06 ⑤ 07 ② 08 ⑤

01 이 시는 화자의 정서가 '무심함 → 연민, 서러움 → 슬픔'으로 점층적으로 심화되면서 시상이 전개된다.

- 오답 풀이** ② 시선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으며, '방'과 '문밖'이라는 공간만 제시되어 있을 뿐 공간의 특징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시에는 두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방'과 '문밖'이라는 공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를 묘사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1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행동이 드러날 뿐, 대상의 변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02 이 시의 화자는 방에 들어온 거미들을 문밖으로 쓸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뽀뽀이 흩어진 거미 가족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있다.

03 이 시에는 반영적 표현과 대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는 단지 거미 가족을 보며 연민, 서러움, 슬픔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연물인 거미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② '차디찬 밤'을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③ '차디찬 밤', '찬 밖', '보드러운 종이'와 같은 시어에서 촉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④ '-다'와 같은 종결 표현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04 '차디찬 밤'은 혹독하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의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짓는다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차갑고 혹독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이 시에서는 화자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엄마와 누나나 형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할 뿐,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보기>를 통해 시인이 이 시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를 통해 우리 민족 역시 일제 강점기의 고난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를 뜻하는 '수라'의 의미를 잘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③ 갑작스럽게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된 상황은 거미 가족에게 '아수라도'와 같은 혼란과 불행이었을 것이다. 화자는 거미들을 문밖으로 쓸어버리며, 거미 가족이 만나 '수라'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④ 이 시의 제목은 흩어져 서로를 찾고 있는 거미 가족의 상태와 일제 강점기에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06 '수라'에 쓰인 시어 '어니젠가', '가제'는 평안도 방언이다. 이러한 방언을 사용한 이유는 토속적인 삶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언어 공동체인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수라'에는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를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통합과 합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이를 다른 지역에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지역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이 왜 필요한지는 알 수 없다.
 ④ 방언을 사용하면 공동체의 삶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 언어 공동체 고유의 문화와 정취를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경계를 허물거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7 이 시는 대상인 '거미'를 의인화하여 표현하였으나 <보기>에는 의인화한 자연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시와 <보기>는 모두 대상에 대한 감정 이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화자가 거미들을 문밖으로 쓸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거미 가족이 흩어지게 된다. <보기>의 '나' 역시 '아내도 없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라는 내용을 통해 가족들과 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시는 '차가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감각적 심상을 통해 혹독하고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 역시 '날도 저물 어서'라는 시간적 배경과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와 같은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이 시는 흩어진 거미 가족을 보며 연민과 슬픔을 느끼지만, <보기>의 화자는 고향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져 유랑하는 삶을 살면서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⑤ 이 시는 화자가 헤어진 거미 가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보기>는 고향을 잃고 객지를 떠도는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백석, 「남산의주 유동 박시봉방」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토속적, 고백적, 반성적, 의지적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적 태도
특징	향토적인 시어와 방언을 사용하며, 편지의 형식을 빌린 산문적인 서술로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자아 성찰을 드러냄.

08 '문밖'은 화자가 있는 방안과 대조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거미 가족이 시련에서 벗어나 맞이할 새로운 안식처는 아니다. '문밖'은 좁고 위험하지만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버리는 것으로 보아 '새끼 거미'를 특별한 감정 없이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1연에서 무심한 태도를 보이던 화자는 '큰 거미'를 보고 아까 쓸려 나간 '새끼 거미'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연민과 서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또한 '큰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며 '새끼 거미'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는 동일한 행동이지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 ③ '새끼 거미'나 '큰 거미'와 달리 '무척 적은 새끼 거미'는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과 같이 수식어를 나열하여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미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 ④ 화자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무서워하지 않게 하려고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문밖으로 버린다. '보드러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대하는 화자의 조심스러운 태도와 배려를 표현한 것이다.

02 엿박자 D

스스로 계획하기

072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073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075쪽

1 ③ 2 (1) 활동 (2) 음악 선생 3 무관심

- 1 마지막에 합창단을 선택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엿박자 D'는 첫 모임에서 합창단 단장에 지원할 정도로 합창단 활동에 열성적이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 2 (1) '나'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특별 활동을 하고 싶었고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합창단을 특별 활동으로 선택한다. 즉, 합창단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 (2) '음악 선생'은 합창단 첫 모임에서부터 합창 연습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음악 선생'이 합창단 활동에 열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가)를 보면 합창단은 학교 축제 외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무관심이야 말로 합창단의 모토라 할 만했다.'는 내용에서 합창단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무관심'임을 알 수 있다.

확인 문제 +

077쪽

1 ② 2 ③

- 1 (다)에서 합창단은 첫 모임부터 연습이 아닌 자습을 하였으며, 연습을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 후인 축제 한 달 전이었다. 또한 연습을 시작할 때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 안에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했다고 하였다.
- 2 '엿박자 D'의 노래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 줄 수가 없어 '음악 선생'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즉, '음악 선생'은 '엿박자 D'가 합창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선하지도 못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음악 선생'은 합창단의 노래가 맘에 들지 않자 반주를 멈추고 화를 내고 있다.
- ② '음악 선생'은 '엿박자 D'에게 립싱크를 강요하며 모두가 똑같이 노래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 ④ '음악 선생'은 '엿박자 D'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해도 자진 사퇴를 권하거나 립싱크를 종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 ⑤ '음악 선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합창을 위해 '엿박자 D'에게 립싱크를 강요한다. 즉, 합창이라는 전체를 위해 '엿박자 D' 개인의 고유한 특성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확인 문제 +

079쪽

1 ⑤ 2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격이다. 3 ②

- 1 '엿박자 D'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했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면, '나'에게 자기 대신 그 친구들에게 연락해 줄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있다. '엿박자 D'의 말을 통해 '나'는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친구들이 '엿박자 D'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와 '엿박자 D'가 기획한 공연의 주제는 '더블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다.
- ② '엿박자 D'는 '나'에게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라고 말하며 '나'의 공을 인정해 주고 있다.
- ③ '나'는 '엿박자 D'가 만든 공연의 줄거리에서 '더블더빙'의 노래에 무성 영화의 여러 장면을 덧붙이거나 디제이가 무성 영화의 배경 음악을 리믹스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들어 낸 점, 연주자들이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 음악에 맞춰 무대 위를 돌아다니는 점, 짧은 무성 영화를 틀어 놓고 더블더빙이 영상에 맞는 새로운 음악 등의 아이디어가 담긴 점을 보면서 새로움을 느끼고 있다.
- ④ '엿박자 D'가 무성 영화와 '더블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엿박자 D'는 주도적으로 공연을 기획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보다는 함께 공연을 준비한 '나'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엿박자 D'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3 '엇박자 D'가 합창단을 했던 친구들을 자신이 기획한 공연에 초대하려는 이유는 공연을 보여 줌으로써 지난날의 아픔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 문제 +

081쪽

- 1 ① 2 ① 3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

- 1 '나'가 공연 전날까지 시스템을 꼼꼼하게 확인한 것은 성공적인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이지 이해타산적인 면모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 2 '엇박자 D'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 때문에 합창을 망쳐 축제가 엉망이 되고 '음악 선생'에게 상처를 받게 된다. 그 사건을 '나'는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합창단 친구들과 '엇박자 D' 사이에 즐거운 기억이 많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나'는 친구들의 근황을 이번에 연락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노래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각자 공부만 했기 때문에 무관심과 소극적인 합창단 활동으로 인해 서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 ④ 모든 표가 공연 3일 전에 팔렸고, 이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방송국에서 취재를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가 공연이 끝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공연을 통한 유명세를 기대하고 있다.

- 3 '나'는 공연 전날까지 사운드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는 표현은 공연에 대한 '나'의 기대감과 긴장감이 반영된 것이다.

확인 문제 +

083쪽

- 1 ④ 2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 1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블더빙은 능수능란하게 공연을 진행했다. 엇박자 D의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에서 '더블더빙'이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과 '엇박자 D'의 스토리보드가 꼼꼼하여 '더블더빙'이 공연을 능숙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는 부분에서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보러 왔음을 알 수 있다.

- ② 무성 영화 속에서 기차가 남자와 충돌 직전, '더블더빙'의 기타 소리가 터지며 '더블더빙'이 나타났다는 것에서 무성 영화 영상과 음악 연주가 연결되어 공연이 구성됐음을 알 수 있다.

- ③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해일이 일어났다.'는 부분에서 관객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더블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 음반으로 들던 것보다, 리허설 때 들었던 것보다 10배 정도는 강력한 음악이었다.'는 부분에서 '나'가 공연을 보고 음반으로 들었던 것보다 큰 감흥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2 '더블더빙'의 연주는 무성 영화의 장면과 묘하게 리듬이 맞지 않는 엇박자였는데, 그런 엇박자를 관객들은 더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점에서 '더블더빙'의 엇박자 연주는 '나'에게 고등학교 시절 '엇박자 D'의 엇박자 합창 역시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하여 '나'는 '더블더빙'의 음악을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확인 문제 +

085쪽

- 1 ③ 2 음치들의 노래(합창/합창곡) 3 ①

- 1 '엇박자 D'가 믹싱한 노래는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으며,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22명의 음치들의 목소리를 믹싱한 노래로,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엇박자 D'가 공연에 초대된 친구들의 노래를 하나씩 녹음해서 모아 두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2 '엇박자 D'는 음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음치들의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친구들에게 음치들이 부르는 노래를 선물로 들려주었다.

- 3 ㉠은 양코르 곡을 앞두고 어둠과 고요에 잠긴 무대의 모습을 시각화해서 묘사한 것이다.

확인 문제 +

087쪽

- 1 ③ 2 개개인 저마다의 박자와 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화음같이 들리며 합창을 완성하는 요소 3 ④

- 1 음치들의 노래는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엇박자 D'가 이를 절묘하게 배치하여 목소리가 겹치면서도 서로의 소리를 해치거나 망치지 않게 리믹스하였다. 이 때문에 음치들의 노래는 절묘하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었고, '나'와 관객들 모두 그 노래를 아름답게 느끼는 것이다.

- 2 현재의 공연에서 음치들의 합창은 '엇박자 D'의 리믹스 덕분에 오히려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답게 들린다. 이를 통해 현재에서 '엇박자'는 개개인 저마다의 박자와 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화음같이 들리며 합창을 완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3 '나'와 친구들이 립싱크를 하는 것은 음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극복한 '엇박자 D'의 모습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와 친구들은 립싱크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엇박자 D'의 모습에 예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1 (1) ㉠ (2) ㉡ (3) ㉢

2 (1) 전파력 (2) 영상됐다 (3) 혼재되어 (4) 열추

3 (1) ㉠ (2) ㉡ (3) ㉢ (4) ㉣

4 ㉤

5 손이 맞다

6 ㉥

1 (1) '신장하다'는 '세력이나 권리 따위가 늘어나다. 또는 늘어나게 하다.'를 뜻한다.

(2) '규정하다'는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다.'를 뜻한다.

(3) '배어나다'는 '느낌, 생각 따위가 슬며시 나타나다.'를 뜻한다.

2 (1) 이 문장은 한류 열풍을 통해 대중문화가 미치는 힘을 실감하는 내용이므로 '전하여 널리 퍼지는 힘.'이라는 뜻의 '전파력'이 어울린다. '전염력'은 '병원체가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2) 이 문장은 편집한 필름이 스크린에 비치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영화 따위의 필름에 있는 상이 영상막에 비추어 나타난다.'라는 뜻의 '영사됐다'가 어울린다. '방송되다'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따위를 통하여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음성이나 영상이 전파로 내보내지다.'라는 의미이다.

(3) 이 문장은 각 국가의 수많은 욕망과 갈등이 얹혀 큰 전쟁이 벌어진 내용이므로 '뒤섞여 있다.'라는 뜻의 '혼재되다'가 어울린다. '혼용되다'는 '한데 섞여 쓰이거나 어우러져 쓰이다.'라는 의미이다.

(4) 이 문장은 관객 수를 대충 헤아려 보는 내용이므로 '어지간한 정도로 대충.'이라는 뜻의 '열추'가 어울린다. '설파'는 '잠깐 나타나거나 떠오르는 모양.'이라는 의미이다.

3 (1) '생색'은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거나 자랑할 수 있는 체면.'이라는 뜻이다.

(2) '명색'은 '어떤 부류에 붙여져 부르는 이름.'이라는 뜻이다.

(3) '진면목'은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는 뜻이다.

(4) '파격'은 '일정한 격식을 깨뜨림. 또는 그 격식.'이라는 뜻이다.

4 ㉤에서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을 말하고 있으므로,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손이 맞다'는 '함께 일할 때 생각, 방법 따위가 서로 잘 어울리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금이 가다'는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지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꼴이 깊어지다'는 '관계가 악화되거나 멀어지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상황이므로, ㉤에는 '이구동성(異口同聲)'이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죽마고우(竹馬故友)'가 적절하다.

②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권선징악(勸善懲惡)'이 적절하다.

③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오매불망(寤寐不忘)'이 적절하다.

④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098~101쪽

01 ㉡ 02 ㉤ 03 ㉢ 04 ㉤ 05 그의 목소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였다. 06 ㉡ 07 ㉡ 08 ㉢ 09 다름(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필요성 10 ㉤ 11 ㉠

01 이 글은 소설로 서사 갈래에 속한다. 서사 갈래는 작가가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며,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서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다. 또한 작가가 서술자를 설정하여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오답 풀이 ①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갈래는 서정 갈래이다.

③, ④ 작가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표현하고, 작가의 경험과 정서를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갈래는 교술 갈래이다.

⑤ 서사 갈래와 달리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과 갈등이 일어나는 갈래는 극 갈래이다.

02 (라)를 보면, '엇박자 D'가 혼자 부르는 노래는 부드러운 느낌도 잘 살아 있었고 박자도 이상하지 않아 들어 줄 만하다고 하였다.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음악 선생'은 '엇박자 D'의 노래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엇박자 D'는 '음악 선생'에게 축제 때 부를 노래는 무엇인지, 오늘은 어떤 곡을 연습하는지, 개인 노래 연습을 하는 건지 등을 적극적으로 묻고 있다.

② <나>를 보면 '엇박자 D'를 제외한 아이들과 '나'는 합창단에 들어가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 활동 시간마다 각자 공부를 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보충했다.

③ <다>를 보면 합창을 위한 첫 연습을 하던 날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와 목소리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드러난다.

④ <라>에서 '음악 선생'은 아이들의 노래가 엉망진창이 되자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며 반주를 멈추고 화를 낸다.

03 <나>를 보면, '나'는 실망한 '엇박자 D'가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엇박자 D'가 혼자 노래 연습을 했는지도 모를뿐더러 '엇박자 D'를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와 (나)를 보면 '음악 선생'이 합창 활동 시간에 계속 자습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악 선생'이 합창 연습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다)에서 '옛박자 D'가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옛박자 D'가 합창을 할 때 음과 박자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음악 선생'은 '옛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지만 '옛박자 D'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04 <보기>의 작가는 한 가지 꽃만 피는 획일에서 벗어나 여러 꽃이 함께하는 조화를 이루어야만 꽃밭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꽃밭의 아름다움보다 꽃 한 가지의 색상이 중요하다는 반응은 <보기>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합창 역시 모두가 똑같은 음을 내는 획일화된 합창보다는 개인의 특색이 조화를 이루는 합창이 더 아름답다는 반응이 <보기>의 내용과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작가는 제비꽃이 나팔꽃이나 목련처럼 피어난다면 그것은 비극이므로,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의 특성을 잃지 말고 발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도 합창에서 자기의 모습과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보기>의 작가는 한 가지 꽃만 피어 있는 꽃밭은 아름답지 않으며, 다양한 꽃이 있어야 획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음악 선생'은 '옛박자 D'에게 합창 공연에서 립싱크를 하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개인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획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③ <보기>의 작가는 한 가지 꽃만 피어 있는 꽃밭은 아름답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악 선생'이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똑같은 박자와 음을 맞추는 합창 역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④ <보기>의 작가는 제비꽃은 개나리와 민들레와 산수유와 함께 피어나 꽃밭이 아름다워진다고 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개별적 존재들이 모여 어우러져야 아름답다는 생각으로, 합창 역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답다고 생각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호승,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	교훈적, 성찰적
주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특징	꽃밭을 인간 사회에 비유하여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음.

05 '옛박자 D'의 목소리가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라는 말은 '옛박자 D'의 목소리가 바이러스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져 다들 '옛박자 D'처럼 박자와 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을 이른다.

평가 기준	확인 ☒
(마)에서 내용을 찾아 썼다.	☐

06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사건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인 '옛박자 D'가 고등학교 시절 상처를 받았던 모습과 현재 공연 기획을 통해 그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옛박자 D'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의 교체 없이 서술자 '나'가 모든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사건 내부의 서술자 '나' 자신의 이야기기 아니라 주인공 '옛박자 D'의 모습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다.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사건 내부의 서술자가 주인공 '옛박자 D'의 모습과 그와 관련된 사건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은 사건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도 덧붙이고 있다.

07 관객들과 친구들 모두 음치들의 합창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 관객 몇몇은 후렴을 따라 부르기도 했고, 박수를 치거나 휘파람을 불고 브라보를 외치는 등 음치들의 합창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친구들 또한 어떤 것을 추억하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벌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른다. 이는 모두 음치들의 노래에 감동하여 공연에 호응하는 모습이므로, 관객들과 친구들의 반응이 대비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를 보면 '나'는 반주도 없이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그 노래가 20년 전 축제 때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임을 깨닫는다. 현재의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에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에 대한 기억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③ 공연에 초대된 친구들과 '나'는 '옛박자 D'가 준비한 음치들의 합창을 들으며 감동을 받는다. 더불어 '옛박자 D'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 립싱크를 하고 있다. 친구들과 '나'가 공연을 보며 받은 감동을 '립싱크'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④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등과 같이 공연장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가)에서 「재채기」라는 무성 영화의 장면에 '더블더빙'의 연주가 더해진 공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관객들이 재밌어하는 것 같았다는 느낌과 '더블더빙'의 연주가 '옛박자 D'에게 바치는 노래 같았다는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08 '더블더빙'의 연주의 옛박자가 오히려 관객들에게 더 큰 재미를 선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고등학교 시절 '옛박자 D'의 옛박자 합창 역시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블더빙'의 연주가 '옛박자 D'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⑤ '나'는 관객들이 '더블더빙'의 옛박자 연주를 더 재미있어하는 것을 보고, '더블더빙'의 연주가 고등학교 시절 '옛박자 D'의 옛박자 합창 역시 그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그 연주가 '옛박자 D'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고 생각했다.

- ② '더블더빙'의 연주는 무성 영화의 장면과 묘하게 리듬이 맞지 않는 엇박자였는데, '엇박자 D' 또한 박치이자 음치였기 때문에 '엇박자 D'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더블더빙'의 연주와 '엇박자 D'가 어긋나게 오는 박자를 뚫는 특성을 연결 지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더블더빙'이 '엇박자 D'를 위해 엇박자인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엇박자 D'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이라고 떠올리게 된다.

09 '엇박자 D'는 서로의 음이 맞지 않는 음치들의 노래를 믹싱하여 들려줌으로써 각자가 자신만의 박자와 음을 내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편견이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해'와 '존중'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주제를 썼다.	☐

10 '엇박자 D'와 '나', 그리고 함께 합창단을 했던 친구들 모두 과거와 현재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엇박자 D'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거의 상처를 극복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작가는 주인공인 '엇박자 D', '엇박자 D'를 관찰하는 서술자인 '나' 그리고 인물 사이에 벌어지는 중심 사건의 소재인 합창과 립싱크의 의미,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보여 주는 구성 방식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 사이에 배치하여 보여 줌으로써 합창의 의미에 대한 '음악 선생'과 '엇박자 D'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 준다.
- ④ '현재-과거-현재'의 순으로 구성하여 '엇박자 D'의 삶에서 과거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11 무성 영화의 장면과 '더블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지 않는데, 관객들은 이를 더 재미있어하는 것같이 보인다. 이는 엇박자가 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엇박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바꾸려는 '엇박자 D'의 공연 기획 의도를 엿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음치들의 합창곡은 '엇박자 D'가 '나'도 모르게 혼자 준비한 것이다.
- ③ 이는 '엇박자 D'가 의도하여 기획한 것으로, '나'의 실수로 발생한 공연 중의 사고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관객들은 '엇박자 D'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웃지 않았다.'라는 말은 관객들이 '엇박자 D'의 상처에 공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⑤ '나와 친구들이 음치들의 합창을 립싱크한 것은 음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 관념을 극복한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03 파수꾼

소스로 계획하기

102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103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105쪽

1 ③ 2 ④ 3 흰 구름

1 이 글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으로 극 갈래에 속한다. 극 갈래는 관객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2 파수꾼 '다'는 모두 잠든 새벽에 '이리 떼'의 습격이 두려워서 망루 위에 올라간다. 파수꾼 '나'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망루에 올라간 것이 아니다.

3 파수꾼 '다'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망루에 올라가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흰 구름'은 거짓에 은폐되어 있는 진실과 평화를 의미한다.

확인 문제 +

107쪽

1 닷 2 ④ 3 ①

1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고 그 실체는 '구름'이기 때문에 '이리 떼'를 잡기 위해 설치한 '닷'은 쓸모가 없다. '닷'은 권력 유지를 위해 설치된 도구를 상징하므로, 이런 도구가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평생 한 번도 의심 없이 북을 두드리며 살아온 파수꾼 '나'에게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을 느끼고 있다.

3 파수꾼 '나'는 '이리 떼'가 존재한다고 믿고 평생 망루를 지키며 살아온 인물이다. 따라서 '이리 떼'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말은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수꾼 '다'의 말에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다.

확인 문제 +

109쪽

1 ③ 2 ④ 3 편지 4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1 '춘장'이 어린 시절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파수꾼 '나'에게 자신이 망루에 찾아온 이유를 둘러대기 위해 말한 것뿐이다.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이를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이라며 '촌장'의 외양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촌장'의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위한 설정이다.
- ② '촌장'은 어떤 사람이 도끼까지 들고 망루로 오고 있다며 위협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촌장'은 사람들이 망루로 오는 것에 대해 파수꾼 '다'에게 '네 탓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파수꾼 '다'의 탓인 것처럼 유도하는 말이다.
- ⑤ '촌장'은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고 말하며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함으로써 연극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을 강조하여, 관객이 거리감을 가지고 극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 3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촌장'에게 알리기 위해 편지를 보낸다. '촌장'은 편지의 내용을 '추억을 상기시키는 편지'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말하는데 이를 통해 촌장의 교활함이 드러난다.
- 4 '촌장'의 대사를 보면 운반인이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보낸 편지를 도중에 읽고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내용을 떠벌리고 있다는 내용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편지의 내용이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임을 알 수 있다.

확인 문제 +

111쪽

1 딸기 2 ④ 3 ④

- 1 '촌장'은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땃말' 밑에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다며, 마을 사람들만 몰려오지 않는다면 함께 딸기를 따러가고 싶다고 파수꾼 '다'를 설득하고 있다. 이는 권력자가 민중을 회유하기 위해 내세우는 대가로,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곳에서 자라나는 특권과 부정한 실리를 상징한다.
- 2 '촌장'과 파수꾼 '다'는 '이리 떼'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파수꾼 '다'는 자신이 목격한 '흰 구름'이 아름답고 평화로웠다고 말하고 있으며, '촌장'은 그것이 드러나면 마을의 질서와 파수꾼의 희생이 헛된 일 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 3 '촌장'은 대가를 내세운 회유, 자기 행위의 합리화, 협박, 거짓의 유용성 강조 등의 말하기 방법을 통해 파수꾼 '다'를 설득하고 있다. 유사한 과거의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촌장'은 마을 사람들만 몰려오지 않는다면 함께 딸기를 따러가고 싶다고 하며 대가를 내세워 파수꾼 '다'를 회유하려 하고 있다.
- ②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며 상식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③ '촌장'은 구름만을 고집하면 파수꾼의 희생도 허사가 되고 마을의 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하며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과장하여 파수꾼 '다'를 협박하고 있다.
- ⑤ '촌장'은 파수꾼이 밧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두드린 것이 고귀한 희생이라고 하며 거짓이 유용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확인 문제 +

113쪽

1 ④ 2 ① 3 ③

- 1 절정 (마)~(바)에서 '촌장'은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불안감과 동정심 자극, 상대의 의도 확대 해석, 거짓 약속 등의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파수꾼 '다'는 이런 '촌장'의 회유와 설득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절정 (마)~(바)의 중심 내용은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촌장'의 노력이 가장 적절하다.
- 2 제시된 부분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를 촌장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유하고 있지만 가족을 내세워 설득하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촌장'은 내일이 되면 파수꾼 '다'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치겠다고 거짓 약속으로 조건을 제시하며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다.
- ③ '촌장'은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며 파수꾼 '다'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촌장'은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며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파수꾼 '다'의 불안감과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다.
- ⑤ '촌장'은 거짓 놀이에 익숙해진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거짓으로 시인하며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다.

- 3 '촌장'의 온화한 얼굴에서 허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가는 행동을 통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고 교활한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확인 문제 +

115쪽

1 ⑤ 2 ⑤ 3 파수꾼 '나'

- 1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라는 '촌장'의 대사에서 '병'은 파수꾼 '다'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뜻한다. '촌장'은 진실을 추구하는 파수꾼 '다'의 의지를 젊은 시절 한때의 혈기로 치부하고 있다.
- 2 '촌장'이 관객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은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관객이 극에 참여하게 하여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무대 위 등장인물의 수에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관객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 성찰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등장인물과 관객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파수꾼 '나'는 파수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끝까지 '촌장'의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를 통해 무지하고 어리석은 '권력의 하수인'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1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2 ⑤

1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가 존재한다고 믿어야 손쉽게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 때문에 '촌장'은 파수꾼 '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도록 망루에 영원히 고립시키려 하는 것이다.

2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결국 '촌장'의 핏에 넘어가고 만다.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떼다!"라고 하는 외침에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촌장'의 권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해 버린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어휘력 UP

126~127쪽

1 (1) ㉠ (2) ㉡ (3) ㉢

2 (1) 전제 (2) 단결하여 (3) 상기하게 (4) 횡설수설

3 (1) ㉠ (2) ㉢ (3) ㉡ (4) ㉣

4 ③

5 입을 막다

6 ①

1 (1) '유감스럽다'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는 듯하다.'는 의미이다.
(2) '헬썹하다'는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는 의미이다.
(3) '충직하다'는 '충성스럽고 정직하다.'는 의미이다.

2 (1) '전제'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이라는 뜻, '체제'는 '생기거나 이루어진 틀, 또는 그런 됃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는 '전제'가 적절하다.
(2) '단결하다'는 '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다.'라는 뜻, '연결하다'는 '사물과 사물을 서로 잇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는 '단결하다'가 적절하다.
(3) '상기하다'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내다.'라는 뜻, '야기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는 '상기하다'가 적절하다.
(4) '횡설수설하다'는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저러쿵 지껄이다.'라는 뜻, '유유자적하다'는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는 '횡설수설하다'가 적절하다.

3 (1) '불청객'은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이라는 뜻이다.
(2) '망루'는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지은 다락집.'이라는 뜻이다.
(3) '파수꾼'은 '1.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2. 어떤 일을 한눈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다.
(4) '일생'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이라는 뜻이다.

4 ③에는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라는 의미의 '허상(虛像)'이 어울린다.

5 '입을 막다.'는 '남이 하려는 말을 못 하게 하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혀를 찌르다.'는 '악하거나 허술한 곳을 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눈을 돌리다.'는 '관심을 돌리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기업인이 겉과 속이 달라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①에는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대기만성(大器晩成)'이 적절하다.

③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근묵자흑(近墨者黑)'이 적절하다.

④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반면교사(反面教師)'가 적절하다.

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128~131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① 05 마을의 질서(안전), 파수꾼 의(고귀한) 희생 06 ③ 07 ② 08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09 ⑤ 10 ③ 11 ③

01 이 글은 극 갈래이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재현함으로써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은 교술 갈래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극 갈래이다.

②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파수꾼 '나' 퇴장'에서 인물의 등장과 퇴장을 알려 주고 있다.

③ 이 글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이다.

⑤ 희곡은 서술자 없이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으로만 사건이 전개된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서사 갈래의 특징이다.

02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리 떼'가 온다는 거짓 소문을 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파수꾼 '나'는 '이리 떼'가 존재한다고 믿고 평생 망루를 지키며 살아왔다. 따라서 '이리 떼'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부정하는 파수꾼 '다'의 말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③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④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현실에서 느끼는 부조리함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마음의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지냈음을,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망루로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파수꾼 '다'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 한 것이다.

03 (다)에서 촌장은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방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촌장'은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 등 긍정적인 외양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를 통해 인물의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이 더 부각된다.
- ③ 해설자가 '촌장'이 되어 등장함으로써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고 연극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임을 강조하여 관객이 무대 위의 사건과 인물에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 ④ '촌장'은 검은 옷차림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촌장'은 파수꾼 '나'에게 자신이 '망루'에 찾아온 이유를 말할 때 파수꾼 '다'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또한 파수꾼 '나'를 따돌리고 파수꾼 '다'와 단둘이 대화를 하기 위해 뒷에 이리가 치어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 이는 모두 파수꾼 '나'를 기만하는 상황이므로 능청스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04 '딸기'는 권력자가 민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언급하는 희유책이자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곳에서 자라나는 특권과 부당한 대가를 의미한다. 오래 전 고귀하게 희생된 파수꾼들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양철 북'은 거짓을 의미하는 '이리 떼'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도구이므로, 거짓된 체제나 거짓 선전의 도구를 상징한다.
- ③ '흰 구름'은 '이리 떼'라고 착각했던 것의 실체이다. 따라서 거짓 공포인 '이리 떼'와 대비되는 진실, 평화, 자유를 상징한다.
- ④ '이리 떼'는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촌장이 만든 거짓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대상이다. 즉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든 공포 정치의 수단을 상징한다.
- ⑤ '팻말'은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한 곳에 세워져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팻말'은 '딸기'로 상징되는 실리를 독차지 하기 위해 내세운 거짓 명분임을 알 수 있다.

05 '촌장'은 진실을 알리려는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이리 떼'라는 거짓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리 떼'라는 공포의 대상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를 위해 파수꾼이 고귀한 희생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을 밝힘으로 인해 허사가 되어버린다고 '촌장'이 주장하는 두 가지는 '마을의 질서(안전)'와 '파수꾼의(고귀한) 희생'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촌장의 대사에서 찾아 두 가지를 모두 썼다.	☐
각각 2어절로 썼다.	☐

06 파수꾼 '나'는 '망루' 위에 있는 파수꾼 '가'가 '이리 떼'가 나타났다고 외치면 '망루' 아래에서 '양철 북'을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무대 밖인 '황야'③에 '이리 떼'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또 다른 무대 밖인 마을⑤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③은 '황야'이므로 무대 안이 아니라 무대 밖의 공간이다. 파수꾼들은 무대 안의 공간인 '망루'⑥에서 무대 밖에 있는 '황야'③에 '이리 떼'가 나타났는지를 살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이 장면에서 촌장은 무대 안인 '망루'⑥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⑤은 무대 밖에 속하는 공간이며, 촌장은 '황야'③와 '망루'⑥, 그리고 마을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
- ④ 파수꾼 '다'가 마을⑤ 사람들이 '황야'③와 '망루'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황야'③는 무대 밖의 공간이고, '망루'⑥는 무대 안의 공간이다.
- 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대상은 황야에 나타나는 '이리 떼'이다. 따라서 무대 밖에 있는 '황야'③에 대한 정보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맞지만, 무대 안인 '망루'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망루'⑥는 '황야'③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공간이다.

07 '흰 구름'의 존재를 믿는다면 오늘 진실을 말하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것이 파수꾼 '다'의 욕망을 자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진실을 믿지 못한다고 파수꾼 '다'를 몰아세워 파수꾼 '다'의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이다.

08 <보기>는 희곡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작품은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을 등장시킬 수 없는 극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드러난 부분을 이 글에서 찾으면 촌장이 관객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촌장이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찾아 썼다.	☐
지시문과 대사를 포함하여 썼다.	☐

09 '망루'는 '이리 떼'의 존재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 위한 곳으로 마을을 위해 존재하지만 마을과는 격리되어 있는 곳이다.

- 오답 풀이** ① 파수꾼들은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파수꾼들이 일하는 '망루'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망루'는 마을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곳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망루' 꼭대기에 있는 자는 '황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식과 정보는 '파수꾼'도 볼 수 있으므로 '촌장'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곳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망루'는 '이리 떼'를 경계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므로 '촌장'이 가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곳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보기>의 시는 권력자의 기만적인 통치와 이를 선동하는 세력, 그리고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대중의 모습을 우의적인 방식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이 글의 파수꾼 '다'와 <보기>의 '누군가'는 모두 비판 의식을 지니고 권력자의 통치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파수꾼 '다'가 지배층인 '촌장'의 회유와 설득에 굴복하는 반면, <보기>의 '누군가'는 군중을 선동하는 '사회자'와 우매한 군중에 의해 제재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과 <보기>는 모두 교활한 권력자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우매한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우의적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보기>의 '사회자'는 권력자를 옹호하고 미화하며 그 실체를 왜곡하여 '군중'을 선동하고 있다. 이 글의 파수꾼 '다' 역시 비판 의식 없이 권력에 순종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두 인물 모두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권력의 하수인을 상징한다.
- ④ <보기>의 '사내들'과 '여인들'은 선동하는 '사회자'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권력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이 글의 '마을 사람들' 역시 '촌장'에게 속은 채 '이리 떼'의 존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 ⑤ 이 글의 '촌장'은 '이리 떼'라는 거짓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 <보기>의 '그분'은 선동가인 '사회자'를 제지하는 방법으로 군중의 자발적인 복종을 교묘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참고 자료

기형도, 「홀린 사람」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풍자적, 현실 참여적, 극적
주제	지배층의 교활하고 기만적인 통치술과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
특징	• 우의적 기법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풍자함. • 화자가 관찰자적 태도로 시적 상황을 전달함. • 상징적 인물과 극적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11 ㉠에서 '촌장'이 은밀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흰 구름'이 내일 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다. 파수꾼 '다'를 굴복시키려는 교활한 계략이 내재된 것이지, 파수꾼 '다'의 연민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긍정적인 외양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통해 교활하고 위선적인 '촌장'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살인', '도끼' 등을 언급하며 난폭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파수꾼 '다'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 ④ '촌장'은 파수꾼 '다'의 의지를 꺾기 위해 진실을 믿지 못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파수꾼 '다'가 창백한 얼굴로 아니라고 외치는데, 이는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촌장이 생각하고 몰아가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란 것이다.
- ⑤ 파수꾼 '다'는 '촌장'의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낀 무력감과 좌절감 때문에 힘없이 웃으며 답하는 것이다.

04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소스로 계획하기

132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133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135쪽

1 ① 2 일종의 모험 3 ⑤

1 □과 같은 경험에서 사람들이 한의원의 선의를 믿지 않는 사실을 통해 작가는 누군가의 선의를 쉽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깨닫고 있다.

2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상대의 악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종의 모험'이라고 비유하였다. 이는 불신에 찬 사회에서 누군가를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3 작가는 선의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이면에 숨은 악의'가 있고, 그런 악의를 간파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그렇다면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도 없다고 한다.

오답 풀이 ① 선의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현실 판단의 기준은 음모론적 시각이 된다고 하였다.

- ② 불신하는 태도가 퍼진 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 흔해진 세상 때문이지, 암묵적으로 퍼진 것은 아니다.
- ③ 사람들의 불신이 만연한 것은 사람들의 악의를 간파하지 않으면 자신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선의를 믿어야 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 ④ 상대를 불신하는 행동이 손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선의를 믿음으로써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신이 만연한 것이다.

확인 문제 +

137쪽

1 ③ 2 ⑤ 3 (1) 지적 (2) 선의

1 ㄱ. 이 글은 작가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깨달음이나 삶의 통찰을 표현하는 수필이다. 이 글 역시 한의원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나 조카와의 대화 등 일상적인 경험에서 소재를 얻어 글을 썼다.

ㄴ. 수필에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작가가 얻은 깨달음이 드러난다. 이 글 역시 선의를 믿는 조카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작가가 얻은 깨달음을 드러냈다.

ㄷ. 수필에는 작가의 생각이 자유롭게 표현되면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 이 글 역시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에 관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진솔하고 자유롭게 표현했다.

오답 풀이 ㄹ. 수필은 형식의 제한이 없고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한다.

2 작가는 유치원 선생님의 지적과 당부 속에 담긴 선의를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조카의 모습을 보며,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이 사회 구성원을 좀 더 크고 단단하게 연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며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3 (1) 조카가 들려준 선생님과 나는 이야기는 점심시간에 누구랑 싸우지 말고, 수업 시간에는 서 있지 말며, 무슨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통학 버스를 기다릴 때는 장난치지 말라는 지적과 당부였다.

(2) 작가는 조카가 선생님에게 혼났음에도 환히 웃는 이유는 조카가 선생님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휘력 UP

145쪽

1 (1) ㉠ (2) ㉡

2 (1) 통용되는 (2) 간파하고

3 가물에 콩 나듯

4 ㉢

1 (1) '축나다'는 '몸이나 얼굴 따위에서 살이 빠지다.'는 의미이다.
(2) '퇴락하다'는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2 (1) '통용되다'는 '일반적으로 두루 쓰이다.'라는 뜻이며, '합용되다'는 '같이 쓰이거나 합하여져 쓰이다.'는 뜻으로 이 문장에는 '통용되다'가 적절하다.

(2) '간파하다'는 '속내를 꿰뚫어 알아차리다.'라는 뜻이며, '터득하다'는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다.'의 뜻으로 이 문장은 '간파하다'가 적절하다.

3 '가물에 콩 나듯'은 '어떤 일이나 물건이 어쩌다 하나씩 드문드문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귀 죽은 듯'은 '매우 조용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관용 표현, '불이 일 듯'은 '어떤 형세가 빠르고 성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4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므로 ㉢에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는 한자 성어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유유상종(類類相從)'이 적절하다.

②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이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적절하다.

④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적절하다.

⑤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이라는 뜻의 한자 성어인 '혈혈단신(孑孓單身)'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146~147쪽

01 ④ 02 ① 03 ⑤ 04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기 때문이다. 05 ④ 06 ⑤ 07 ⑤

01 이 글은 지인들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음을 알게 되고,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을 깨달았음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실제 생활에서 얻은 깨달음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회를 가정하고는 있지만, 이는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떠올린 예측이다. 이를 바탕으로 변화 가능성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지인들이나 조카와의 대화를 일화로 볼 수는 있지만, 인물의 성격을 평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③ 타인의 선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은 소개하지 않는다.

⑤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을 깨닫기는 하지만 이를 자신의 가치관과 절충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다.

02 [A]에서는 한의원에 다니며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타인의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된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B]에서는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조카에게는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이 있고, 그런 힘을 지닌 조카의 세상이 단단하다고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나'는 [B]에서 유치원에 다녀온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선의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③ [A]의 '사람들은' '나'가 다니는 한의원이 여간해서 약을 짓지 않는 곳이라는 말에 침이나 뜸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넘겨짚거나 무언가를 더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즉, 한의원의 선의를 선뜻 믿지 않는다. 이에 반해 [B]의 '조카'는 선생님이 지적과 당부의 말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말 대신에 선생님의 선의를 듣는다.

④ [A]에서 '나'는 자신이 다니는 한의원이 여간해서는 약을 짓지 않는 곳이라는 말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고 선의가 드문 일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⑤ [A]에서 '나'는 타인의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반해 [B]에서는 선생님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카'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잃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다.

03 작가는 조카와 대화를 나누면서,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듣는 조카의 순수한 마음과 이처럼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하는 힘이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작가는 조카의 순수한 마음과 선의를 듣고 신뢰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으며 조카가 쥐고 있는 세상이 자신의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는 조카의 태도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이를 지켜주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② 작가는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회는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음모론적 시각으로 현실을 판단하는 삶은 작가가 부정적으로 보는 삶이다.
- ③ 작가는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타인을 신뢰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 ④ 타인의 행동에서 악의와 선의를 구분하는 삶은 타인의 선의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태도이다.

04 작가는 조카가 선생님에게 혼났음에도 웃는 이유를 조카가 선생님의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바)의 첫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기 때문이다.'의 형식을 지닌 문장으로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보기>의 글은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의 일에 적용하여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글 또한 작가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선의를 믿지 않는 사회를 되돌아보고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삶의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글은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의 일에 적용하여 교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의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우의적 성격이나 교훈적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일상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교술 갈래에 속하는 글로, 경험에서 떠올린 생각이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압축적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은 서정 갈래에 속하는 글의 특징이다.
-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작가가 지은 허구적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06 언어 공동체의 특성은 어휘 표현, 주제나 내용을 다루는 방식, 내용을 조직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언어 공동체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언어 공동체의 개념과 특성

언어 공동체	• 공통의 언어를 쓰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집단을 일컫음. •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개인이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동시에 포함되기도 함.
--------	--



글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속한 지역, 세대, 성, 문화 등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남.

07 ㉔는 선생님이 실제로 조카에게 한 말을 의미한다. 진심이 전달 되도록 신뢰감을 담아 표현한 말이라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㉔는 필요 없는 사람에게 부러 한약을 쓰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한약을 지어 준다는 의미이다.
- ② ㉔는 작가가 생각하기에 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베푸는 선의를 의미한다. 즉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환자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다.
- ③ ㉔의 의미는 앞부분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들을 종합하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악의를 숨긴 채 접근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 ④ ㉔는 불신과 불의가 모든 행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상황으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윤리나 합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에게 숨은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대단원 평가 1

150~154쪽

- 01 ③ 02 ③ 03 ④ 04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05 ④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⑤ 11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 12 ④ 13 ④ 14 ④ 15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고, 권력에 저항하려는 사람을 상징한다. 16 ③ 17 ④

01 (나)는 작가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는 교술 갈래의 수필이다. 작품의 화자는 작가이므로, 작가를 대신한 화자를 내세워 작가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시인이 화자를 내세워 '거미'에 대한 연민과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한의원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에서 타인의 선의를 믿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서정 갈래의 글로, 서정 갈래는 주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와 운율로 표현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인이거나 작가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한다. (가)는 시어, 운율, 상상 등의 구성 요소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나)는 정해진 형식 없이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또는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02 <보기>는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며,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모습과 현실의 다양한 문제점 등을 담아 낸다고 하였다. (나)는 지인들과 대화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현재 현실의 모습을 보여 주고는 있지만,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려내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차디찬 밤'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서로를 찾고 있는 '거미들'이 처한 상황은 일제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우리 민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④ (나)의 작가는 자신이 다닌 한의원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을 통해 타인의 선의를 믿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불신과 불의로 가득 찬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가족들과 헤어져 서로를 찾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타인의 선의를 믿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03 [A]에서 화자는 새끼 거미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쏘아 버린다. 더구나 배경은 '차디찬 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A]의 상황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A]에서 화자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쏘아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거미' 가족이 헤어져 서로를 찾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B]와 [C]에서 지속되고 있으므로 [B]와 [C]에서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A], [B], [C]에서 '거미'를 문밖으로 쏘아버리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새끼 거미'를 무심하게 쏘아버리지만, [B]에서 '큰 거미'를 발견하고는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문밖으로 버리면서 서러워한다. [C]에서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면서 가슴이 메이는 듯한 슬픔을 느낀다. 이처럼 사상이 전개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점차 고조된다.
- ③ [A]에서 화자는 '새끼 거미'를 무심하게 문밖으로 쏘아버리지만, [B]와 [C]에서는 자신 때문에 흩어진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슬퍼하며 문밖으로 쏘아버린다.
- ⑤ [C]의 '무척 적은 새끼 거미'는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져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 못한'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A]의 '새끼 거미'와 [B]의 '큰 거미'에 비해 보다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04 <보기>는 1930년대에는 일제의 극심한 수탈 때문에 우리 민족의 가족 공동체가 흩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을 봤을 때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시인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족 공동체의 회복(다시 만남)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보기>에서 백석은 토속어와 평안도 방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언어들을 시에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백석은 토속적 정취를 드러내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삶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06 (나)의 작가는 누가 안부를 물으면 한의원에 다니고 있고 그 한의원은 여간해서는 약을 짓지 않은 곳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흥미로움을 느낀다. 그 이유는 그 말을 들은 상당수의 사람이 그 한의원을 침이나 뜸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넘겨짚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다양해서 놀란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찬 밖'은 춥고 위험하지만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축약적 심상으로 형상화하였다.
- ② '거미'를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여 의인화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의 손을 무서워하며 달아나는 '무척 적은 새끼 거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작가가 다니고 있는 한의원은 여간해서는 약을 지어 주지 않는 곳이라 처방을 원해서 온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한다.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환자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므로 작가는 이를 일종의 선의라고 생각한다.
- ⑤ 작가는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상대의 악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의를 믿는 일을 '일종의 모험'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07 (가)는 서사 갈래에 속하는 소설이다. 소설에서는 사건을 서술자가 서술한다. (나)는 희곡으로 사건을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 표현에 특별한 제약이 없지만, (나)는 제한된 무대 공간에서 상연하는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표현에 제약이 따른다.
- ② (가)는 서사 갈래에 속하는 소설이고, (나)는 극 갈래에 속하는 희곡이다. (가)와 (나) 모두 허구적으로 만들어 낸 사건을 담고 있다.
- ④ (가)는 서술자가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며, (나)는 무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전개된다.
- ⑤ (가)는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서술자인 '나'가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나)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의 전개 양상을 관객에게 직접 보여 준다.

08 <보기>는 작품이 '현재-과거-현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는 이 중 '과거'의 내용으로,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 사이에 배치하여 '옛박자 D'의 삶에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과거가 단순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09 (가)에서 '옛박자 D'는 합창에서 자신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며 개성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에서는 음과 박자가 서로 다른 음치들의 목소리를 믹싱하여 조화로운 노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옛박자 D'가 생각하는 합창은 서로 다른 개인의 개성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를 구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모두가 같은 소리로 같은 음을 내는 것은 '음악 선생'이 생각하는 합창으로 볼 수 없다.
- ② 한 사람의 지휘에 맞추어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은 '음악 선생'이 생각하는 합창으로 볼 수 없다.
- ③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고려하여 나의 소리를 맞추는 것은 나의 개성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각자의 개성을 살리되, 그것의 조화를 추구하는 '옛박자 D'의 생각으로 볼 수 없다.
- ⑤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쳐 가는 것은 나의 개성보다는 타인의 잣대에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성을 중시하는 '옛박자 D'의 생각으로 볼 수 없다.

10 '음악 선생'은 [A]에서 합창을 위해 '옛박자 D'에게 축제의 합창 공연에서 립싱크를 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획일적인 '합창'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려는 인물이다. 거짓을 지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인물은 (나)의 '촌장'이다.

11 '옛박자 D의 진면목'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제 때 부를 합창곡을 연습하던 첫날 '옛박자 D'가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임을 알게 된다.

평가 기준	확인 ☒
'옛박자 D'가 박치이자 음치라는 내용을 썼다.	☐
본문의 내용에서 찾아 완결된 문장으로 썼다.	☐

12 (나)는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을 밝히려 하는 파수꾼 '다'와 이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설득하는 '촌장'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즉, 파수꾼 '다'와 '촌장'은 '이리 떼'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입장이 달라 갈등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파수꾼 '다'는 '이리 떼'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 망루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다.
- ② '촌장'은 파수꾼 '다'가 '이리 떼'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는 태도에 불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까봐 불안해하는 것이다.
- ③ '촌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지 '이리 떼'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촌장'은 '이리 떼'의 유무를 확인하려 오는 마을 사람들을 표현하며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파수꾼 '다'가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회유책이지, 그러한 태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며 파수꾼 '다' 또한 이에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갈등의 개념과 기능

개념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또는 인물과 환경 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물 내부의 심리적 고민, 인물 간의 가치관 차이, 사회·제도·운명·자연과 인물 간의 대립으로 발생함.
기능	•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냄. •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킴. • 사건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 긴장감을 더해 줌. •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주제를 드러냄.

13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보인다. 쓸쓸한 망루에서 벗어나 마을로 돌아가려는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촌장'은 '운반인'이 사람들에게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고 떠벌린다고 말하고 있다.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은 진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운반인'을 '수다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이리가 무섭지 않냐는 파수꾼 '다'의 질문에 '촌장'은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냐고 대답한다. 이는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촌장 자신도 인정하는 것이다.
- ③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촌장'의 말에 파수꾼 '다'는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수꾼 '다'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⑤ '촌장'은 파수꾼들이 '뗏'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두들긴 것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4 (나)에서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는 것을 보았다. '촌장'은 이에 대해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 다.'라고 말하며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수꾼 '다'가 본 것이 확실한지 의심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촌장'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 기라도 따라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면 '딸기'와 같은 실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다.
- ② '촌장'은 도끼를 들고 망루를 부수러 오는 마을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상대방인 파수꾼 '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촌장'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고 질서를 만들었다며 자신이 만든 거짓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⑤ '촌장'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면 마을의 질서와 파수꾼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된다고 말하며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 있다.

15 <보기>는 작가가 1970년대의 사회적 현실을 「파수꾼」에서 '이리 떼'가 있다는 거짓 소문으로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촌장'의 모습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나)에서 파수꾼 '다'는 진실을 알고 있고, 이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비판적 지식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고 있는 지식인을 상징함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참고 자료

1970년대의 정치 상황

1970년대에는 국민들에게 민족 주체성 및 안보 교육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정치 권력자들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악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6 '흰 구름'은 파수꾼 '다'가 황야에 실제로는 '이리 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실제로, 운반인이 파수꾼 '다'의 편지를 읽고 진실을 알게 된 것이지 파수꾼 '다'에게 들리게 되어 진실이 폭로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편지'는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진실이다. 그리고 '촌장'은 파수꾼 '다'가 이러한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망루에 찾아온다.
- ② '이리 떼'는 '촌장'이 마을을 통제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 낸 공포 정치의 수단을 의미한다.
- ④ '망루'는 마을과 떨어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공간으로, '이리 떼'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하여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거짓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상징한다.
- ⑤ '떨기'는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땃말' 밑에 가득하다. 이는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 곳에서 자라는 것으로, 거짓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자 부당한 권력이 누리는 실리를 상징한다.

17 (나)의 마을의 질서는 '촌장'이 '이리 떼'라는 거짓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이다. 파수꾼 '다'가 말하는 '흰 구름'이 암시하는 것은 '진실'과 '평화'이다.

- 오답 풀이** ① '촌장'은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만든 마을의 질서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 ② 마을의 질서는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하여 만든 것이므로 마을 사람들의 단결을 의미한다.
- ③ 마을의 질서는 '촌장'의 '이리 떼'가 있다는 거짓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 ⑤ 마을의 질서는 '이리 떼'가 몰려온다는 헛된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대단원 평가 ②

155~159쪽

-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공포)의 대상이다. 06 ⑤ 07 ③ 08 ② 09 ④ 10 ④
11 ⑤ 12 ④ 13 ① 14 ④ 15 ④ 16 조카에게는 타인의 선의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01 (가)는 서정 갈래로 '거미', '문밖', '차가운 밤' 등의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나)~(라)는 극 갈래로 '이리 떼', '흰 구름', '망루', '양철 북' 등의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서정 갈래로, 동일한 시어 및 시구, '~다'와 같은 종결 표현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나)~(라)는 극 갈래로, 운율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 ③ (가)는 작가가 내세운 화자가 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갈등과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다. (나)~(라)는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사건을 대사와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라)는 극 갈래 중 희곡으로, 희곡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은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직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 ⑤ (나)~(라)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으로 인물들 사이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이에 비해 (가)는 작가가 내세운 화자가 개인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2 (라)는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촌장'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결국 굴복하고 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파수꾼 '다'와 '촌장'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화자는 처음에는 '새끼 거미'를 무심하게 문밖으로 쓸어버리지만, '큰 거미'와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발견하고는 자신 때문에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문밖으로 버린다. 이 과정에서 화자의 정서도 무심함에서 서러움, 슬픔으로 점차 심화된다.
- ② (가)의 화자는 거미 가족을 의인화하여 바라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에서 '촌장'은 자신이 도끼에 찍히는 모습을 말하며 파수꾼 '다'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회유하고 있다.
- ④ (다)에서 파수꾼 '다'는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이러한 모습에서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보기>에서 언어 공동체는 언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고 하였다. (가)는 '어니젠가', '가제' 등의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시에는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즉 평안도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평안도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토속적 느낌의 시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옛 선인들의 정서와 가치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③ (가)는 평안도 방언과 고유어를 사용하는 특징이 드러난다. 따라서 한자어를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한자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일제 강점기 시대의 세대가 공유하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 ④ (가)의 주제가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비극적 현실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지역을 초월한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 ⑤ (가)에서 감각적 시어를 사용하여 정서를 표현한 것은 맞지만, 이를 여성 공동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04 <보기>의 작자는 잘못을 알고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라)의 '촌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공포의 대상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보기>의 작자는 '촌장'에게 거짓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고 이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 말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작가는 백성에게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우유부단함이 나라의 정사를 망칠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라)의 '촌장'이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우유부단한 인물도 아니다.
- ② <보기>의 작가는 비가 새는 집을 바로 고쳐야 재물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잘못을 알고 이를 바로 고쳐야 하고, 나라의 정사도 백성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개혁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위태해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잘못을 알고 고치는 인재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한 (나)~(라)의 '촌장'이 지닌 문제는 인재 등용과 관련이 없다.

③ 다양성 존중은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또한 (나)~(라)의 '촌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 뿐,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⑤ 마을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기>의 작가가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나)~(라)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촌장' 자신이므로, '촌장'에게 할 말로는 부적절하다.

05 ㉠의 '이리 떼'는 '촌장'이 만든 거짓이고, 마을 사람들은 '촌장'이 만들어 낸 '이리 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리 떼'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공포)의 대상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두려움(공포)의 대상임을 썼다.	☐
'~의 대상'이라는 말을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썼다.	☐

06 <보기>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하는 모습과 화면 속의 새 떼들이 자유롭게 비상하는 장면,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다시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1980년대 암울한 현실과 이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가 소망하는 것은 화면 속의 자유로운 새 떼들처럼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보기>의 '우리'는 결국 각각 자기 자리에 앉고 마는데, 이는 억압적인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파수꾼 '다'가 거짓을 말하고 망루를 떠나지 못하는 것과 <보기>의 '우리'가 각각 자기 자리에 주저앉는 상황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애국가를 경청하는 것은 애국심을 강요받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진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보기>의 '우리'는 각각 자기 자리에 앉고 있는 모습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보기>의 '우리'는 새들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나)~(라)의 마을 사람들이 '촌장'의 통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 ④ (나)~(라)의 파수꾼 '다'가 '양철 북'을 두드리는 것은 권력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이다. <보기>의 '우리'가 애국가를 경청하는 것 또한 강압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요가 아닌 스스로 일제히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비판적, 풍자적
주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
특징	• 애국가의 시작과 끝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함. • 냉소적인 어조,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을 풍자함.

07 ㉠에서 '촌장'은 관객을 향하여 이야기를 함으로써 관객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하고 관객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성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오답 풀이** ① 관객을 극에 참여시켜 관객들의 반응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극의 결말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했을 뿐이지 관객의 의견을 극의 전개에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 ④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하여 극과의 관계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관객에게 마을 사람들이라는 역할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8 ㉠은 좁고 어둡지만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바라는 공간을 표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차디찬 밤'은 '차디찬'이라는 촉각적 심상과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홀독하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③ '엄마와 누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는 거미를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헤어져 서로 찾고 있는 '거미' 가족을 보며 화자가 느끼는 미안함과 슬픔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파수꾼 '다'가 거짓을 부르짖기 전, 느끼는 내적 갈등을 침묵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거칠게 들리는 '바람 소리'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과 파수꾼 '다'가 느끼는 좌절감 혹은 무력감을 음향 효과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09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려 하다가 촌장에게 회유를 당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에서 파수꾼 '다'의 행동이 피지배층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0 (가)~(나)는 '음치'이자 '박치'였던 '엇박자 D'를 주인공으로 하여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소설이다. 상징적이고 고백적인 성격이 드러날 뿐 풍자적 특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는 조카와 나눈 대화를 통해 선의를 신뢰하는 힘을 깨달았음을 자유롭게 표현한 수필로, 작가의 개성적 가치관과 문체가 드러난다.

11 (다)의 작가는 선생님에게 혼이 났지만 환하게 웃는 조카를 보며 타인의 선의를 신뢰하는 힘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 때문에 조카의 손은 조그맣고 연약했지만 그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은 단단하고 크게 느껴졌다고 했으므로, 조카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 주겠다는 다짐은 작가의 생각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음악 선생'이 '아이들' 앞을 걸으며 합창을 망치는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자신이 노래를 잘못 불렀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② (가)의 주인공인 '엇박자 D'는 입만 벋긋거리라는 '음악 선생'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리 내어 노래를 부른다. 이를 통해 합창에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주눅이 들지 않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③ (나)에서 '친구들'은 음치들의 합창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조화로움을 만든 '엇박자 D'에게 이해와 공감을 느끼며 립싱크를 하고 있다.
- ④ (다)의 '조카'는 실제로는 선생님에게 지적과 당부의 말을 들었지만, 선생님이 겉으로 한 말보다 그 속에 담긴 선의를 들었기 때문에 환한 표정으로 즐거워한 것이다.

12 (가)의 '음악 선생'은 모두가 똑같은 박자와 음을 맞추는 것이 아름다운 합창이며, 개개인의 개성은 전체를 위해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음치이자 박치인 '엇박자 D'에게 축제의 합창에서 립싱크를 하라고 억압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다)의 '선생님'은 지적과 당부의 말을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표현했고, 이 때문에 조카가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선생님의 선의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13 (가)~(나)에서 과거에는 '음악 선생'이 '엇박자 D'에게 립싱크를 강요했지만, 현재는 '나'와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립싱크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엇박자 D'의 립싱크는 '엇박자 D'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음악 선생'의 억압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공연에서 '나'와 친구들의 립싱크는 음치들의 합창을 방해하지 않고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립싱크'라는 동일한 행동이 갖는 상반된 의미를 통해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공간을 세밀하게 묘사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 부분도 없다.
- ③ '엇박자 D'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를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인물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 ④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만 이에 따라 갈등 유형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의 갈등은 '엇박자 D'와 다름과 차이를 억압하는 현실 사이의 갈등으로 일관되게 드러난다.
- ⑤ 사건이 갖는 의미를 상징적인 배경으로 묘사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14 <보기>는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효용성에 초점을 두어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는 작가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조카와 대화하며 타인의 선의를 믿는 태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선의를 믿는 힘이 세상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기>의 관점에 의하면, 독자가 얻은 감동이나 교훈을 중심으로 감상해야 한다. (다)의 작가가 얻은 깨달음을 통해 독자는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이 세상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중심으로 (다)를 감상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가)~(나)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이야기이므로, 조화와 화합을 위한 희생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내용은 (가)~(나)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감상이다.
- ② (가)~(나)의 주인공인 '엇박자 D'는 음치들의 공연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변하지 않는 음악과 우정의 아름다움은 (가)~(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⑤ (다)의 작가는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조카에게는 타인의 선의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때문에 조카의 세상이 자신의 세상보다 더 크고 단단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지켜줄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는 감상 내용은 (다)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참고 자료

맥락에 따른 문학 감상

소통으로서의 문학은 일상적인 언어 활동과 달리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다층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작가 맥락	작가의 창작 동기나 심리 상태, 생애, 경험이나 가치관 등
독자 맥락	작품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상황 등
사회·문화적 맥락	창작 당시의 사회적 가치나 제도, 역사적 사건이나 문화적 배경 등
문학사적 맥락	창작 당시의 문학적 경향이나 다른 작품과의 관계 등

15 (가)~(나)의 서술자인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에서 일어난 사건을 현재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엇박자 D'가 '음악 선생'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② '나'는 주인공인 '엇박자 D'와 고등학교 시절 친구로,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 '엇박자 D'에 대해 보고 들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인 '나'는 '엇박자 D'와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에서 있었던 사건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 '나'는 주인공인 '엇박자 D'를 옆에서 관찰하며 독자가 '엇박자 D'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16 (다)의 작가는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 조카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타인의 선의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카가 타인이 한 말 속에 담긴 선의를 들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조카와 현대의 우리들의 다른 점을 포함하여 썼다.	☐
'~때문이다.' 형식의 완결된 문장으로 썼다.	☐

3 일상을 보는 예리한 눈

01 투표를 안 해도 될까

스스로 계획하기

164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165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167쪽

1 ④ 2 민주주의

1 글의 제목에 투표에 대한 불신을 지니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투표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제목에 대한 답은 본문에서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① 서론에서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어 독자들에게 문제 제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②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브라질 시민들의 주장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있다.
 ⑤ 브라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2 필자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고 있다.

확인 문제 +

169쪽

1 동의, 다수, 역설적 2 ① 3 ⑤

1 필자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측의 반론을 예상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예상 반론에 대해서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2 필자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탈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투표율과 정부의 사회 개입 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필자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들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

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결과가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필자는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인 문제 +

171쪽

1 ⑤ 2 ② 3 귀납

1 필자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워 사회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 오답 풀이 ①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되어 유권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②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며 유권자가 늘어나자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③ 청소년을 위한 공약으로 '진로 탐색 기간 운영', 학교에 '공기 청정기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④ 각 정당에서는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인 청소년 계층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2 결론에서 필자는 이제까지 주장한 내용을 정리·요약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이므로 가치와 의미가 있고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므로 꼭 투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3 이 글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투표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개별적인 사실에서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이 사용되었다.

어휘력 UP

180~181쪽

- 1 (1) ㉠ (2) ㉡ (3) ㉢
 2 (1) 훼손 (2) 명시 (3) 부응 (4) 관점
 3 (1) ㉡ (2) ㉢ (3) ㉠ (4) ㉣
 4 ㉤
 5 귀를 기울이다
 6 ㉤

1 (1) '석연하다'는 주로 '않다'와 호응하여 쓰이며, '의혹이나 꺼림칙한 마음이 없이 환하다.'라는 뜻이다.
 (2) '입증하다'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라는 뜻이다.
 (3) '정당하다'는 '이치에 맞아 옳바르고 마땅하다.'라는 뜻이다.

2 (1) '훼손'은 '체면이나 명예를 손상함.', '분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림.'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훼손'이 적절하다.
 (2) '암시'는 '넌지시 알림. 또는 그 내용.', '명시'는 '분명하게 드러내보임.'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명시'가 적절하다.

- (3) '부응'은 '어떤 요구나 기대 따위에 좇아서 응함.', '반응'은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또는 그 현상.'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부응'이 적절하다.
- (4) '독점'은 '혼자서 모두 차지함.',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관점'이 적절하다.
- 3 (1) '납용'은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2) '대변'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3) '기권'은 '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4) '반박'은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따위에 반대하여 말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⑤에는 '현실에 실제로 있음. 또는 그런 대상.'이라는 뜻을 지닌 '존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귀를 기울이다'는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걸음마를 떼다'는 '어떤 일이나 사업을 처음 시작함.'이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눈을 붙이다'는 '잠을 자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우공이산(愚公移山)'은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이므로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는 상황에 쓰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뜻하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어울린다.
- ②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을 뜻하는 '개과천선(改過遷善)'이 어울린다.
- ③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뜻하는 '구사일생(九死一生)'이 어울린다.
- ④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군계일학(群鷄一鶴)'이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182~185쪽

01 ② 02 ③ 03 ② 04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05 ⑤ 06 ⑤ 07 ④ 08 ③ 09 ④ 10 ④ 11 ②

12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러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01 이 글은 자신의 주장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쓴 논설문이다. 필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논증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는 필자의 주장, 이유, 근거가 타당한지, 일관성이 있는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02 (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는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인용한 자료로 이 설문은 의무 투표제를 폐지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② (다)에 따르면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④ (다)에 따르면 튀니지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그로 인해 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⑤ (나)에 따르면 프랑스의 기권당은 선거 행위에 관심은 있지만 후보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권 표로 드러내고자 한다.

03 (다)에 따르면 '기권을 인정하는 것'과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기권을 하는 것을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 발언으로,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04 (다)에서 필자는 투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문제를 언급하며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튀니지의 상황을 근거로 들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는 필자의 주장을 글에서 찾아 썼다.	☐
4어절로 썼다.	☐

05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측의 반론을 예상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은 필자가 제시한 반대 측의 반론이고 필자는 기권을 암묵적 동의로 보고 있다. 필자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하는 행동의 의미와 그로 인한 파장을 제시하여 논증을 강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이다.

②, ③ 필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꼭 있어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 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입장은 드러내지 않는다.

④ 기권을 하는 것은 후보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이며, 그들 역시 적합한 후보자를 통해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삶을 개선하고 싶지 않다고 반박하기는 어렵다.

06 <보기>는 프랑스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 벌어진 문제 상황을 보여 주는 사례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적절한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브라질은 이미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며, 필자는 '의무 투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 ② <보기>에서는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가 이미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보기>를 통해 프랑스 시민들의 투표율이 낮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와 관련하여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느냐'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 ④ (다)의 튀니지와 <보기>의 프랑스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뽑기 어려웠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이는 민주주의의 체제가 위태로워진 공통적 사례로 볼 수 있다.

07 ㉔는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의 주장을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사회 현상의 원인을 밝힌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화제는 '투표'로 이와 관련된 브라질의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브라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여 투표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 주어 문제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만약~ 폐지된다면'과 같이 상황을 가정하여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음을 드러내어 문제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질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문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며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8 이 글은 독자들에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브라질의 상황으로 글을 시작하여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투표의 가치와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이유와 근거로 일관되게 뒷받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으로 용어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다)에 우리나라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제시되었지만 다른 나라의 투표 실태와 비교 분석하는 목적으로 쓰인 내용이 아니다.
- ④ 이 글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으로 투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문과는 다르다.
- ⑤ 필자가 다른 나라의 투표 제도를 체험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09 (다)에 따르면 18세 시민에게 투표권이 생기면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투표의 영향력을 제시하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투표의 가치를 알고 이를 행사한다면 유권자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될 것임은 추론할 수 있지만 그러므로 ㉔의 유권자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은 추론하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② (가)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③ (다)에서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청소년 맞춤형 공약들이 다양하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마)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며 투표권을 행사하자고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10 이 글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인 귀납을 사용하였다. ㉔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방법인 연역을 사용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이순신 장군, 세종 대왕이 죽었다는 특정한 사례들에서 공통된 특성(사람)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인 '사람은 모두 죽는다'를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이다.
- ② 농부들은 모내기를 할 때, 김을 맬 때, 추수할 때, 술을 때, 기별 때 노래를 한다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우리 민족은 노래와 함께 살아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이다.
- ③ 사자, 토끼, 원숭이가 새끼를 낳는다는 특정한 사례들에서 공통된 특성(포유류)을 바탕으로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이다.
- ⑤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사회성을 기르고, 범죄 예방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이다.

11 <보기>는 이 글을 읽고 자신의 관점으로 논증을 재구성한 것이다. 논증을 재구성할 때는 글의 논증 요소와 논증 방법이 타당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을 따른다. (가)의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경우, 설문 조사의 구체적인 수치, 조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보기>에서 이를 반영하여 설문 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선거 연령을 낮추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기>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투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만 제시되었다는 평가는 적절하나 <보기>에 투표율을 높이는 법이 추가되지는 않았다.
- ④ 이 글에는 투표율이 높은 외국의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말리 교수'의 연구 결과는 투표율과 정부의 개입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것으로 투표율이 높은 사례로 볼 수 없다.
- ⑤ (가)에서 필자는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내포된 의미를 밝혀 투표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일관된 주장에 밀거름으로 삼고 있다. 또, <보기>에 그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12 (나)에 드러난 필자의 주장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된다.'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말리 교수'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말리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필자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말리 교수의 연구 내용인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내용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2 매체가 비추는 세계

스스로 계획하기

186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187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197쪽

1 ② 2 ② 3 ① 4 ④

1 사회적 의제가 담긴 매체 자료를 읽을 때에는 자료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과 제작자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때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각 매체 자료에 담긴 사회적 의제를 자신의 관점으로 분석해 보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신의 관심사와 사회적 의제가 일치하는지 살피는 것은 비판적 수용 방법이 아니다.

2 사회적 의제는 해당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영화 「모던 타임즈」가 20세기 들어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된 미국 공장을 배경으로 하였다고 했고, 노동자의 인간적인 측면이 무시당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에는 '인간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3 (가)는 '이에스지(ESG) 경영'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과 '이에스지(ESG) 경영'이 마케팅 수단이라는 부정적 관점을 모두 제공하여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플라스틱 다화용 컵 사용'에 대해 (가)에서는 다화용 컵 사용 정책이 친환경적이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긍정적 관점을 제시한 반면, (나)에서는 다화용 컵 사용의 친환경성이 과장되어 있으며 기업의 다화용 컵 사용 정책은 그린 워싱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확인 문제 +

204쪽

1 ① 2 ⑤ 3 ④ 4 ⑤

1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사회 곳곳에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대신할 새로운 공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 배경 주민들이 가진 언어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교류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이 자신의 언어 문화를 버리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나)의 사례를 보면 북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남한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하여 돌려서 표현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사례는 검은색, 흰색과 같이 남북한 모두 의미가 동일한 어휘를 블랙, 화이트처럼 외국어로 표현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②, ③ (가)의 사례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비해 외래어 혹은 외국어를 많이 쓰고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이다. 체제와 관련 있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⑤ (나)의 사례에서 '출연자 1'이 "북한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거든요."라고 하였으므로 북한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고, 반면 남한 사람들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화법을 쓴다고 할 수 있다. 즉, 화법의 차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4 남북한의 언어는 서로 뿌리가 같지만 분단 지속으로 인한 언어 이질화가 발생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 의사소통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언어 차이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언어, 문화 교류를 증대하고,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같이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휘력 UP

206~207쪽

1 (1) ㉠ (2) ㉡ (3) ㉢

2 (1) 수용 (2) 인식 (3) 재질 (4) 의구심

3 (1) ㉠ (2) ㉡ (3) ㉢ (4) ㉣

4 ④

5 도마 위에 오르다

6 ④

1 (1) '조이다'는 '느슨하거나 헐거운 것을 단단하거나 팽팽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2) '거스르다'는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흐름과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라는 뜻이다.

(3) '불과하다'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뜻이다.

2 (1) '수고'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씀. 또는 그런 어려움.', '수용'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수용'이 적절하다.

(2)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인증'은 '인용하여 증거로 삼음. 또는 그 증거.'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인식'이 적절하다.

(3) '자질'은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 또는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재질'은 '재료가 가지는 성질.'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재질'이 적절하다.

(4) '의구심'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자부심'은 '자기 자신 또는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의구심'이 적절하다.

- 3 (1) '동참'은 '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가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2) '보급'은 '널리 퍼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미치게 하여 누리게 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3) '편향'은 '한쪽으로 치우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대세'는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결정적인 형세.'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④에는 '남이 알아차리기 전에 갑자기 행하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 '기습적(奇襲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도마 위에 오르다'는 '어떤 사물이 비판의 대상이 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떡 주무르듯 하다'는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루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바가지를 차다'는 '거지가 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주객전도(主客顛倒)'는 사물의 경중·선후·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뀜을 이르는 말이므로 ④와 같이 사은품을 받기 위해 커피 여러 잔을 사게 되는, 사물의 경중이 뒤바뀐 상황에 쓰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뜻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어울린다.
 ②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을 뜻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어울린다.
 ③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어울린다.
 ⑤ '열 손가락을 꼼짝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십지부동(十指不動)'이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208~211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가)는 플라스틱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한 반면, (나)는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06 ② 07 ⑤ 08 ⑤ 09 ④ 10 ④ 11 ⑤

01 20세기 들어 공장에서 작업 공정을 나누어 분업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하지만 그 결과 노동자들은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측면은 무시되었다. (다)는 기계 속도에 맞추려다 '찰리'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면서 인간을 기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의도이며, 기계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잠시의 휴식조차 엄격하게 통제되는 모습을 통해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동자의 인간적 측면을 무시당하는 상황을 비판하고자 했다.
 ②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 속도를 올리고 노동자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고용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하고자 했다.

- ④ 기계의 일부가 되어 나사 돌리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는 찰리의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찰리'의 모습을 그려 내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

02 시간당 생산량을 기록하여 업무 속도를 높이도록 압박하는 상황은 인간을 기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며, 노동자의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교육을 받는 상황으로 반목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 또는 노동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②, ③ 노동자의 기본권이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회사의 복지 방침으로 볼 수 있다.
 ④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므로 노동자의 인간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03 이예스지 경영을 소개하기에 앞서 진행자는 오늘이 환경의 날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예스지 경영의 필요성은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이를 자막으로도 처리하고 있지 않다.
 ② 의류 업체의 옷 수선 서비스, 라벨 없는 생수병 등 이예스지 경영의 실천 사례를 얘기하고 있지만 목표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이예스지 성과 지표가 생기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이예스지 성과 지표로 기업을 감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예스지 경영이 과거 윤리 경영과 별 차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예스지 경영에 대한 의구심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다.

04 기사 (나)는 '플라스틱 다회용 컵'의 친환경성이 과장되어 있으며, 기업의 다회용 컵 사용 정책은 그린 워싱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되, <조건>에 맞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을 갖추어 표제와 부제를 작성해야 한다. ⑤는 플라스틱 다회용 컵이 정말 친환경적인지 의구심을 드러내며 결국 일회용 컵과 다를 바 없음을 드러내어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자문자답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친환경 해법을 알아보는 것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
 ② 플라스틱 다회용 컵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냈지만, 종이 재질 이 더 친환경적이라는 내용은 없으며 자문자답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
 ③ 플라스틱 다회용 컵에 대한 (나)의 관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④ 기사에서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독자에게 환경을 보호하도록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다.

05 (가)는 플라스틱 다회용 컵 사용 정책이 친환경적이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플라스틱 다회용 컵의 친환경성이 과장되어 있으며, 기업의 이런 정책은 그린 워싱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가)는 '긍정적인 관점', (나)는 '부정적인 관점'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6 (가)에서는 '이○○ ○○대 경영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삽입하여 해당 방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기후 변화 행동 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이○○ 기후 변화 행동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임을 보여 주어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제작자가 직접 실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나)에서도 전문 기관에서 실험한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③ (가), (나) 모두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가), (나) 모두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대상의 개념의 의미를 재설정하고 있지 않다.

07 개인 방송의 제목과 섬네일, 영상, 영상 설명란의 특징을 알고, 이에 주목하여 개인 방송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목은 영상을 누르기 전에 볼 수 있으므로 개인 방송의 첫인상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목을 보고 개인 방송이 어떤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는지, 해당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다.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영상 설명란이다.

- 오답 풀이** ① 영상 촬영 시 연속 촬영으로 찍은 장면, 촬영할 때 대상을 찍는 카메라의 각도, 높이에도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② 섬네일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개인 방송의 첫인상을 책임진다. 섬네일의 이미지와 자막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작자의 의도를 분석해야 한다.
 ③ 영상은 이미지, 소리, 자막, 배경 음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이 된다.
 ④ 영상 설명란에는 제작자가 입력한 영상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08 (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언어 공동체 변화 양상을 추측할 수 있다. 이주 배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해진 언어 공동체를 이룰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다문화 사회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인지는 자료만으로 추측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이주 배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주변에서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②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그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③ 우리 사회가 다문화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언어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용 언어의 양상이 다양해질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④ 총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의 비율은 6.4퍼센트인 반면, 총인구 유소년 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 구성비는 9.3퍼센트에 이르게 되어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학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질 것을 추측할 수 있다.

09 (나)의 <사례 1>은 북한 사람들에 비해, 남한 사람들은 외래어 혹은 외국어를 많이 쓰고 있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이다. 북한 언어는 순우리말로 된 어휘를 남한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2>는 북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남한 사람들은 상대를 배려하여 돌려서 표현하는 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이다.

10 기사 (가)는 다문화 형태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개인 방송 (나)는 북한과 남한의 언어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즉, (가)와 (나)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주 배경 주민과 북한 주민이 언어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을 담고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언어적 어려움을 이해하자는 입장으로 (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 언어 차이가 지속된다면 심리적인 거리감이 심화될 수 있지만 이를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그들의 언어에 맞춰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오답 풀이** ① 이주 배경 주민, 북한 주민과 문화 교류 기회를 가지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자는 입장에서 가능한 해석이다.
 ② 그들이 가지는 언어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③ 서로의 언어를 알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⑤ 그들이 가지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언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11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첫째, 남북의 말이 다를 경우에 그 다름을 분명히 밝혔다. 둘째, 남과 북이 함께 쓰는 말이라 하더라도 뜻과 쓰임에서 차이가 나는 말을 골라 올림말로 수록했다. 따라서 '나비'는 북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지 않고 쓴다고 하였으므로 남과 북이 함께 쓰는 말로 표기하되, 남북의 쓰임이 다름을 밝혀야 한다.

참고 자료

고유어, 외국어,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우리말 중에서 순우리말만을 이르는 말 예) 가랑비, 셋별 등
외국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로, 우리말처럼 쓰이지 않으며 우리말로 바꾸어 쓸 어휘가 있는 말 예) 밀크 등
외래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 예) 버스, 커피 등
한자어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 예) 학교, 가족 등

01 ① 02 ④ 03 ② 04 ② 05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06 ③ 07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했다. 08 ① 09 ④ 10 ⑤ 11 ① 12 ② 13 북한 사람들에 비해, 남한 사람들은 외래어 혹은 외국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01 필자는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투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투표로 인한 사회의 긍정적 변화, 투표의 영향력을 근거로 들어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로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투표를 했을 때의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으며, 투표를 하지 않아 민주주의가 위태로웠던 튀니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풀이 **ㄷ.** 글 속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도 다루고 있지만 필자는 일관되게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ㄹ. 필자의 경험을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튀니지의 사례와 미국 '말러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투표 참여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02 이 글에 쓰인 논증 방식은 귀납이다. 귀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 글의 필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와 투표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연역에 대한 설명이다.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제시된 일반적인 사실이 참이면 결론도 언제나 참이며,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다.

② 유추에 대한 설명이다. 개별적인 사실에서 결론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귀납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글은 두 대상 간 유사점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지 않다.

03 이 글에 따르면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은 글의 내용에서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필자는 튀니지의 낮은 투표율로 인해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다고 하고 있다.

③ (나)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투표에서 기권하는 사람이 많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④ (나)에서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에 따르면 출마한 후보들이 대표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⑤ (다)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이며,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어 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고 하였다.

04 <보기>는 1920년대 이전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으며, 투표권을 얻게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리를 확장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투표권이 가진 가치와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해야 한다. ②의 경우 <보기>에서 투표권을 힘들게 얻어냈음을 밝히고는 있지만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꼭 투쟁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기권을 한다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여성들은 투표를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기회, 직업을 선택할 기회 등을 얻게 되었다.

④, 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장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낼 수 있다.

05 논증을 할 때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함으로써 자신의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필자는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하는 행동의 의미와 그로 인한 파장을 제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반박을 보며 예상 반론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을 경우에도 투표를 해야 하는 내용을 썼다.	☐
주술 호응이 맞는 완결된 문장으로 썼다.	☐

06 (가)는 공익 광고로,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는 영화로, 인간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는 논설문으로,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가)에는 목줄 풀린 반려견에게 물린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이라는 통계 자료를 들어 개물림 사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다)는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이 66.5퍼센트였다는 통계 자료를 들어 투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제작자가 자신의 의도를 영상, 음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반면 (가)는 문구를 통해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② (가)는 주장하는 바를 이유와 근거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므로 (나)와 비교해 감성적이라 말할 수 없다. (나)는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가)에 비해 더 논리적이라 말할 수 없다.

④ (나)와 (다) 모두 제작자나 필자의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⑤ (가)~(다) 모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가)와 (다)는 독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이 강하며, (나)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제작자의 의도를 다양한 연출을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 07 제작자는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누군가에게 맹수가 될 수 있음을 이유로 들어 반려견은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근거로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게 물린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개에게 물린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이라는 내용을 찾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 08 이 영화는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작업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된 당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이 영화가 제작될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생산량 증가를 위해 노동자의 업무를 규격화하고 통제하였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모습은 영화에서 기계의 속도를 올리자 기계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찰리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장면, 나사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드 조이려 하는 장면 등으로 묘사되었다. 제작자는 '찰리'의 이런 행동을 통해 당시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제작자는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측면이 무시되는 상황을 자본주의의 병폐로 보았다.

- ③ 자본주의의 병폐를 보여 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 무엇이드 조이려 하는 모습은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장면 연출이다.
 ④ 인간을 기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생산의 중심이 사람에서 기계로 옮겨간 모습을 풍자하려는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제작자는 이 영화를 통해 인간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만 보는 비인간화 현상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 09 (다)는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투표는 유권자가 지닌 강력한 권리 행사 수단이며, 유권자가 선거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투표가 지닌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역량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보기>도 투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다)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② (다)와 <보기>는 모두 투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③, ⑤ (다)에서는 청소년이 유권자가 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생긴 것을 바탕으로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투표권을 행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10 개인 방송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려면 제목과 섬네일, 영상 설명란, 영상에 주목해야 한다. 그중 영상 설명란은 제작자가 영상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내용이다. 영상 설명란의 정보를 살펴보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데, 제작 협찬 등 외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보 생산자, 전달자의 목적 파악을 위한 자기 질문

- 누가 이 정보의 생산자 혹은 전달자인가?
- 생산자 혹은 전달자의 배경은 어떠한가?
- 이 정보로 인해 누가 어떠한 이익을 볼 수 있는가?
- 생산자 혹은 전달자는 어떠한 돈 혹은 문체를 사용하는가?
- 생산자와 전달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혹은 무엇을 공유하는가?
- 생산자 혹은 전달자는 어떠한 목적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는가?

- 11 (나) 개인 방송은 (가) 뉴스 같은 대중 매체에 비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제에 대해 편향된 관점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혐오, 폭력성, 선정성, 거짓 정보 등 자극적인 내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골라 들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다) 신문 기사는 인쇄 매체이므로 (가) 텔레비전 뉴스가 시각적,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 ③ (나) 개인 방송은 (가) 뉴스보다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유행어 또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말 등 대중들이 현재 사용하는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④ 뉴스, 개인 방송, 신문 기사는 모두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편집된 것이다.
 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은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따져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 12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출연하여 남한에 와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개인 방송이고, (다)는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태도를 다룬 신문 기사이다. (나)는 출연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재미있게 표현하였지만 이를 통해 남한의 언어생활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분단의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남북한 언어가 달라져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이주 배경 주민과 조화롭게 사는 모습을 비빔밥과 썰러드에 비유하여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전달하고 있다.
 ④ 이주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태도를 제시한 것에는 우리 사회에 이주 배경 주민이 많다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우리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언어 실천 양상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국어생활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제를 파악해 볼 수 있다.

- 13 북한이탈주민 출연자는 남한에서 블랙, 화이트 등의 외래어 혹은 외국어로 색깔을 표현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가 기준	확인 ☒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 외래어 혹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④ 06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07 ② 08 ③ 09 ⑤ 10 ③ 11 이예스지 경영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12 ④ 13 ③

01 이 글은 논설문으로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본론에서는 구체적 주장과 이유, 근거를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에 대한 요약 및 정리를 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브라질의 현재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투표에 대한 독자의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② (나)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통념의 오류를 밝히고 있지 않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는 소제목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문제 상황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할 수 있음을 '말려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장하고 있다.
- ④ (라)에서는 투표의 가치를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투표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18세 시민에게 투표권이 생기자 정당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음을 근거로 들어 투표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02 이 글은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핵심 주장 아래 (나)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투표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음을 밝힌다. (라)와 (마)에서는 투표의 가치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를 행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자'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필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③ 필자는 (나)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다)에 따르면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를 통해 정부의 개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다.
- ⑤ 필자는 민주주의의 존속을 해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하였지만 이를 위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03 필자는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이를 잘 드러내는 내용으로 강연의 제목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닌 투표권의 가치를 함께 확인하자는 내용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후보를 찾는 법에 대한 글이 아니다.
- ② 필자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하였으므로 기권을 가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④ 투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맞는데 설명이나 투표의 역사를 밝히는 목적으로 쓰인 글은 아니다.
- ⑤ 브라질의 사례는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이를 통해 투표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오늘날 투표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알아보고 있지 않다.

04 이 글은 논설문으로, 논설문은 필자가 제시하는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글이므로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논증이 드러난 글을 읽을 때는 주장과 근거가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지와 같은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 글이나 자료에 쓰인 논증 요소와 논증 방법을 파악하고, 필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반론에 대한 반박 등 논증 요소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05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음.'이라는 뜻으로 브라질이 투표율이 하락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의무 투표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적소성대(積小成大)'는 '작거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게 되거나 많아짐'을 뜻하는 말로 필자가 (다)에서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고 언급한 점으로 보아 적절한 표현이다.
- ② '어불성설(語不成說)'은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음'을 뜻하는 말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투표임을 감안하면 투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길 바라는 상황에 쓰기 적절한 표현이다.
- ③ '안하무인(眼下無人)'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라)에 따르면 우리가 투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적절한 표현이다.
- ⑤ '감언이설(甘言利說)'은 '남의 비위에 맞게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이다. (라)에서 투표의 가치를 깨닫고 행사해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말을 경청한다고 하였고 정당이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어도 이 공약들이 달콤한 거짓말인지 아닌지 가려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적절한 표현이다.

06 (다)에서 필자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투표를 통해서 사회가 변하고, 자신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그러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투표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글에서 찾아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7 (나)에 따르면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과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다르다.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를 법이나 제도로 명시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④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하여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 ③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 ⑤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 모두 태어날 때부터 갖춘 권리는 아니다.

08 (가)와 (나)는 모두 '플라스틱 다화용 컵 사용'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가)는 이 정책이 친환경적이며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긍정적 관점을 취하고 있고, (나)는 이 정책의 친환경성이 과장되어 있으며 그린 워싱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보이는 자료가 있음을 고려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09 'ESG 대체될까'라는 말은 이에스지 경영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판단은 유보하고 있어, 대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작자는 이에스지 경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드러내어 화제를 제시하고, 이에스지 경영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지속가능'이라는 단어와 이에스지 경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대립적으로 제시하여 두 관점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에스지 경영을 둘러싸고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음을 'vs'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이에스지 경영과 관련한 부정적인 측면 중에서도 그린 워싱, 위장 환경주의 등 다양한 용어들이 많지만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제작자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③ 제작자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모두 나타내어 중립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
- ④ 'vs'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지속가능'이라는 관점과 '마케팅'이라는 관점이 상반되는 관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0 (다)는 영화 「모던 타임즈」로 20세기 도입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어 인간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노동자의 인간적인 측면이 무시되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라)는 공익 광고로 목줄이 풀린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많음을 근거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다)는 노동자에게 높은 노동 강도와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비인간화를 야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 ④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이유로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
- ⑤ 두 사람의 상반된 일기를 좌우로 배치한 표현 방법을 통해 본인에게는 친근한 반려견이 다른 이에게 맹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11 <보기>는 친환경성이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과장되어 있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그린 워싱의 사례로 ○○의 플라스틱병을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입장에서 (가) 뉴스를 본 수용자에게 이에스지 경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소비자의 '감시'가 필요함을 당부할 수 있으며, '견제', '주의', '관심'과 같은 단어도 비슷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으나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감시'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
이에스지 경영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감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소비자'를 포함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12 (가)는 남북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보여 주는 상황으로 핸드폰은 '손전화'로, 도시락은 '곽밥'으로 같은 뜻이지만 표현이 달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나)는 남북한이 함께 만드는 사전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여 주어 어떤 방법을 통해 사전을 만드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③의 경우 (나)에 따르면 북에서는 '세탁기', '텔레비존' 등의 가전제품도 '가구'라고 하며, 「조선말대사전」(2017)에는 '가전'이나 '가전제품'이 실려 있지 않다고 했다. 즉, 가전은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가구'라는 말은 남북 모두 사용하지만 북에서는 가전제품도 가구라고 보고 있으므로 그 의미는 다르다.
- ② 「조선말대사전」(2017)에는 '가전'이나 '가전제품'이 실려 있지 않으므로 남한에서만 쓰이는 말로 볼 수 있다.
- ③ '핸드폰'은 '휴대 전화'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문화어로는 '손전화'라고 하므로 같은 뜻의 다른 어휘로 실릴 수 있다.
- ⑤ (나)에서 남녘 말 '나방'을 따로 올림말로 수록한 뒤 "북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나비'라고 하여 '나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밝혀 놓았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나)와 <보기>에서 사전을 만드는 일은 모두 우리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남한의 고유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하는 목적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말과 글에는 우리말이 담겨 있으며, 우리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겨레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일은 민족어 동질성 회복과 언어 통일 준비라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일은 민족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임을 밝히고 있다.
- ② (가)의 상황에서는 같은 뜻을 지니지만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 <보기>에 따르면 분단의 역사가 우리말을 많이 훼손시키고 이질화시켰기 때문이다.
- ④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만드는 작업도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밑거름으로 우리 말과 겨레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 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민족 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일임을 밝히고 있다.

01 음운의 변동

스스로 계획하기

228쪽

1 ○ 2 ○ 3 ○

마리 알고 가기

229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242~243쪽

1 ④ 2 ⑤ 3 ③ 4 ④ 5 ⑤ 6 ⑤ 7 ③ 8 ⑤
9 ③ 10 ③ 11 ② 12 ① 13 ③ 14 ④

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다.

오답 풀이 ① '거센소리'의 개념이다.

② '형태소'의 개념이다.

③ '어간'의 개념이다.

⑤ '비음'의 개념이다.

2 음절 끝에 오는 'ㅍ'은 [ㅂ]으로 발음되므로 앞은 [입]으로 발음된다. 반면 옷[을], 낫[넛], 발[반], 꽃[꼇]처럼 음절 끝에 오는 'ㅅ', 'ㅆ', 'ㅈ', 'ㅊ', 'ㅎ'은 모두 받침이 [ㄷ]으로 발음된다.

3 (가)는 비음화, (나)는 유음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밥물[바뉘]', '훈련[훈:런]'은 각각 비음화, 유음화가 일어난 현상이다.

오답 풀이 ① 신라[실라]: 유음화, 독립[동립]: 비음화

② 국물[궁물]: 비음화, 생산량[생산량]: 비음화

④ 논리[놀리]: 유음화, 낫물[넛:물]: 비음화

⑤ 칼날[칼랄]: 유음화, 난로[날:로]: 유음화

4 '설날[설:랄]'은 뒤에 오는 'ㄴ'이 앞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한라산[할:라산]', '설날[설:랄]'은 모두 'ㄴ'이 유음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중 한라산[할:라산]의 경우 앞에 오는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③ 대관령[대:괵령], 실내화[실래화]는 모두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5 '조금'은 발음할 때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로 [조금]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학교[학교]: 음절 끝에 오는 'ㄱ' 뒤에 예사소리 'ㄱ'이 'ㄲ'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② 급식[급쌈]: 음절 끝에 오는 'ㅂ' 뒤에 예사소리 'ㅅ'이 'ㅆ'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③ 국수[국쑤]: 음절 끝에 오는 'ㄱ' 뒤에 예사소리 'ㅅ'이 'ㅆ'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④ 숙제[숙제]: 음절 끝에 오는 'ㄱ' 뒤에 예사소리 'ㅅ'이 'ㅆ'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6 '붙이다[부치다]'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와 만나 'ㅌ'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쌀지[싸치]: 'ㅎ'이 예사소리 'ㅌ'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② 축하[추카]: 예사소리 'ㄱ'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③ 잡히다[자피다]: 예사소리 'ㅂ'이 'ㅎ'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④ 파랑다[파:라타]: 'ㅎ'이 예사소리 'ㄷ'과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7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꽃이[꼬치]'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연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구개음화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④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는 발음할 때 'ㄷ'이 모음 'ㅣ'를 만나 'ㅌ'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②, ⑤ 같이[가치], 술이[소치]는 발음할 때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ㅌ'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8 '끝인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이 'ㄷ'으로 바뀐 후 연음되어 [끄딘사]로 발음된다. 반면 만이[마지], 붙이다[부치다], 이같이[이가치], 해돋이[해도지]는 모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9 '바빠서'는 '바쁘다'의 어간 '바쁘-'와 어미 '-아서'가 결합되어 어간 끝의 모음 'ㅡ'가 탈락한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10 식용유[시공뉴]는 ㄴ이 덧붙어 [시공뉴]로 발음된다(ㄱ). '깻입[깻닙]'은 ㄴ이 덧붙어 [깻닙]으로 발음된다(ㄷ).

11 ㉠은 음운의 변동 현상 중 교체 현상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밥상[바쌈]'은 음절 끝에 오는 'ㅂ'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 'ㅆ'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교체 현상을 말하고, '맨입[맨닙]'은 첨가 현상인 'ㄴ' 첨가가 일어났다.

③ ㉡은 축약 현상을 말하고, '부엌[부억]'은 교체 현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났다.

④ ㉢은 탈락 현상을 말하고, '문밖[문백]'은 교체 현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났다.

⑤ ㉣은 첨가 현상을 말하고, '만형[마형]'은 축약 현상인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났다.

12 '잡는다[잠는다]', '만머느리[만머느리]'에서는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ㄴ, ㅁ,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다.

13 '날말[난:말]'은 <보기>의 '꽃말[꼇말]'과 같은 음운 변동을 거쳐 발음된다. 먼저 음절 끝의 'ㅌ' 받침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바뀌어 [난말]이 된다. 그 후 비음화로 인해 'ㄷ'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난:말]로 발음된다.

14 '광한루[광:할루]'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에서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어휘력 UP

248~249쪽

1 (1) ㉠ (2) ㉡ (3) ㉢

2 (1) 적용 (2) 정확 (3) 전달 (4) 습관

3 (1) ㉠ (2) ㉡ (3) ㉢ (4) ㉣

4 ㉤

5 머리를 굴리다

6 ㉤

1 (1) '굴이'는 '고집을 부려 구태어.'라는 뜻이다.

(2) '곁'은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라는 뜻이다.

(3) '잠기다'는 '어떤 한 가지 일이나 생각에 열중함.'이라는 뜻이다.

2 (1) '적용'은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이라는 뜻으로 규정을 새롭게 시행하려는 상황에 어울린다. '적발'은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냄.'이라는 의미이다.

(2) '정확하다'는 '바르고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제때에 맞추려는 상황에 어울린다. '정밀하다'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하다.'라는 의미이다.

(3) '전달'은 '지시, 명령,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여 이르게 함.'을 뜻하므로 회의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 적절하다. '도달'은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이라는 의미이다.

(4)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는 뜻으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 상황에 어울리며, '관습'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이라는 의미이다.

3 (1) ㉠ '논리'는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의미한다.

(2) ㉡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3) ㉢ '표준'은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의미한다.

(4) ㉣ '환경'은 '생물에게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의미한다.

4 ㉤에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이라는 의미를 지닌 '경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머리를 굴리다'는 '머리를 써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발을 끊다'는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손을 맞잡다'는 '서로 뜻을 같이 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6 '촌철살인(寸鐵殺人)'은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짧고 간결한 발표지만 핵심을 말하는 상황에 쓰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뜻하는 '감언이설(甘言利說)'이 어울린다.

② '작거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게 되거나 많아짐.'을 뜻하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 어울린다.

③ '마음이 넓고 쾌활하여 아무 거리낌이 없는 인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광풍제월(光風霽月)'이 어울린다.

④ '어떤 동기가 있어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짐.'을 뜻하는 '심기일전(心機一轉)'이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250~253쪽

01 ㉠ 02 ㉣ 03 단어를 보다 쉽게 발음하고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거센소리되기, ㉣ 모음 탈락, ㉣ 줄어든다

01 ㉠은 음운에 대한 설명, ㉡은 자음에 대한 설명, ㉢은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02 '산란[산:란]'은 앞에 오는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첨가가 아닌 교체 현상이다.

03 음운 변동은 표기된 단어를 보다 쉽게 발음하거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어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발음과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장난의 발음은 [장난]이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머지 네 개의 단어는 모두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흙'의 발음은 [흙]이다.

② '많'의 발음은 [마:]이다.

③ '국물'의 발음은 [궁물]이다.

⑤ '떡'의 발음은 [떡]이다.

05 '손발[손발]'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므로 음절의 끝 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인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절의 끝 소리 규칙에 의해 나머지 네 단어는 각각 바깥[바깥], 민낯[민낯], 빗금[빗금], 낫잡[낫잡]으로 발음된다.

06 '국물[궁물]', '만며느리[만며느리]', '잡는다[잠는다]'는 모두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비음화가 일어날 때에는 원래 자음에서 조음 방법만 바뀌고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하나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②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일어나는 현상은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이다.
 ③ 단란하다[달란하다]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⑤ 비음화 현상과 맞지 않는 설명이다.

07 '협력[협녁]'은 '협'의 받침 'ㅂ' 뒤에서 '력'의 'ㄹ'이 [ㄴ]이 되어 [협녁]이 되고, 비음인 [ㄴ]으로 인해 'ㅂ'이 [ㅃ]으로 바뀌어 [협녁]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발[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음절 끝의 'ㅌ'이 'ㄷ'으로 발음된다.
 ② 밥물[밤물]: 앞에 오는 'ㅂ'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ㅃ'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③ 칼날[칼랄]: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뒤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④ 향로[향:노]: 앞에 오는 'ㅇ'의 영향을 받아 뒤에 오는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08 '안고[안:꼬]', '껴안다[껴안파]', '터듬지[터듬찌]'는 모두 용언 어간의 끝소리 'ㄴ, ㅁ'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올 때 된소리로 발음된 것에 해당한다.

09 '신고'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이라는 의미의 명사이며 [신고]로 발음되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불을 꼭 덮고[덥꼬] 자렘.
 ② 내일 꼭 만날 사람[만날싸:람]이 있어.
 ③ 친구 간의 갈등[갈똥]이 일어났다.
 ④ 그녀는 아침으로 국밥[국뽕]을 먹었다.

10 <보기>의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구개음화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으로, 두 음운의 조음 위치를 비슷하게 만들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음운 변동 결과 'ㄷ, ㅌ'이 'ㅈ, ㅊ'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② '디디다'는 [디디다]로 발음되어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③ 받침 'ㄷ, ㅌ' 뒤에 오는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④ 두 단어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11 미닫이[미:다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단어이다.

- 오답 풀이** ①. ③ 꽃이[꼬치], 깨끗이[깨꼬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는 연음만 일어난다.
 ② 티끌[티끌]: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발이랑[반니랑]: [반이랑-반니랑-반니랑]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다.

12 '갑자기[갑짜기]', '덮개[덥깨]'는 모두 음절 끝에 오는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갈증[갈짙]'은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국밥[국뽕]'은 음절 끝에 오는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예에 해당한다.
 ② '갈등[갈똥]'은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갈 곳[갈꼴]'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예에 해당한다.
 ④ '입술[입술]'은 음절 끝에 오는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먹을 것[머글것]'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예에 해당한다.
 ⑤ '물상식[물쌍식]'은 한자어의 'ㄹ' 받침 뒤에 'ㄷ, ㅅ, ㅈ'이 올 때, '밥상[밥쌍]'은 음절 끝에 오는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예에 해당한다.

13 '굽히고[구피고]'는 예사소리 'ㅂ'과 'ㅎ'이 만나 두 음운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담가도[담가도]'는 '담그다'의 어간 '담그-'와 어미 '-아'가 결합되어 어간 끝의 모음 'ㅡ'가 탈락한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② '닫고[닫꼬]'는 'ㄷ'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 'ㄱ'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③ '서서[서서]'는 '서다'의 어간 '서-'와 어미 '-어서'가 결합되어 어간 끝의 모음 'ㅣ'가 탈락한 모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⑤ '신래[실래]'는 뒤의 'ㄹ'의 영향으로 앞의 'ㄴ'이 'ㄹ'로 바뀐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14 '커서'는 '크다'의 어간 '크-'에 어미 '-어서'가 결합되어 'ㄷ' 모음이 탈락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서라: '서-' + '-어라' → 어간 모음 'ㅣ' 탈락
 ② 타라: '타-' + '-아라' → 어간 모음 'ㅣ' 탈락
 ④ 차서: '차-' + '-아서' → 어간 모음 'ㅣ' 탈락
 ⑤ 건너서: '건너-' + '-어서' → 어간 모음 'ㅣ' 탈락

15 붙이다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와 만나 구개음인 'ㅊ'으로 바뀌어 [부치다]와 같이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줄고[조:코]: ㅎ + ㄱ → ㅋ
 ② 망형[마형]: ㄷ + ㅎ → ㅌ
 ③ 파랗다[파:라타]: ㅎ + ㄷ → ㅌ
 ⑤ 잡히다[자피다]: ㅂ + ㅎ → ㅍ

16 '집념'은 [집념]으로 발음되며,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맨 + 입 → 맨입[맨닙]

③ 식용 + -유 → 식용유[시공유]

④ 한 + 여름 → 한여름[한녀름]

⑤ 눈 + 요기 → 눈요기[눈뇨기]

17 '따듯하다[따드타다]'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받침 'ㅅ'이 'ㄷ'으로 바뀌고, 'ㄷ'과 뒤에 오는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된 것이다. 따라서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축약이 모두 일어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된소리되기는 교체 현상이 맞지만, ㉢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이다.

② ㉠은 음절 끝에서 일곱 개 자음만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와 관련된 예이다.

④ ㉠과 ㉡와 달리 ㉢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다.

⑤ 모음 탈락에 대한 설명으로 축약 현상인 거센소리되기와 맞지 않다.

18 '숨이불[숨:니불]'은 'ㄴ' 첨가'로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국물[궁물]: 비음화로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② 달나라[달라라]: 유음화로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③ 해돋이[해도지]: 구개음화로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④ 뽀대다[뽀때다]: 된소리되기로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19 '홀이불'은 '홀-'과 '이불'이 더해진 파생어로 뒷말 모음 'ㅣ'로 인해 ㄴ 첨가가 일어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해 받침이 'ㄷ'으로 바뀐다. 또한 받침 'ㄷ'이 뒷말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되어 [흔니불]로 발음된다.

20 ㄴ. '꽃말[꼇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꼇말]이 되고, 그 후 비음화로 인해 [꼇말]로 발음되어 음운 교체 현상이 두 번 일어난다.

ㄷ. '건너서[건:너서]'에서는 'ㄴ'이 탈락하는 탈락 현상이, '막일[망닐]'에서는 'ㄴ'이 첨가되는 첨가 현상이 일어나므로 음운 개수에 변화가 생긴다.

오답 풀이 ㄱ. '굽히다[구피다]'에서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므로 축약에 해당한다.

ㄷ. '민낫[민닙]'과 '쉴[숨]'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므로 교체에 해당한다.

21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술하다'의 음절 끝에 오는 'ㅈ'이 'ㄷ'으로 바뀌어 [순하다]가 된 것이다. ㉡은 거센소리되기로, [순하다]의 받침 'ㄷ'이 'ㅎ'과 만나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수타다]와 같이 발음한다.

22 제시된 온라인 대화에서 학생이 쓴 '똔는지'는 올바른 표기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나머지 네 단어는 표기가 잘못된 단어로 올바르게 고쳐 써야 한다.

23 '말합니다[말:합니다]'는 앞에 오는 'ㅂ'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낱고[나: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같이[가치]: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③ 산란기[살:란기]: 유음화가 일어난다.

④ 흡수[흡쑤]: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4 '있습니다[읷씀니다]'에는 음절의 끝에 오는 'ㅅ'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앞에 오는 'ㄷ'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ㅅ'이 된소리 'ㅆ'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 앞에 오는 'ㅂ'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25 '법학[버팍]'은 거센소리되기, '따라'에는 모음 탈락이 일어났다. 이 두 현상은 음운이 변동이 일어난 후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두 단어의 음운 변동 현상을 알맞게 썼다.	☐
두 단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의 공통점을 서술하였다.	☐

02 문법 요소와 어휘의 활용

스스로 계획하기

254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255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266~267쪽

1 ② 2 ③ 3 ④ 4 ③ 5 ④ 6 ⑤ 7 ④ 8 ⑤ 9 ①
10 ② 11 ② 12 ②

1 ②는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의 신체 부분인 '손'을 높여 간접적으로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반면 ①, ③, ④, ⑤는 높임의 대상인 부모님, 선생님,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다.

2 '진지', '잡수시다'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부사격 조사 '께',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② '만나다'의 높임말인 '뵈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④ '데리다'의 높임말인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⑤ '물어보다'의 높임말인 '여쭙어보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사장님을 높이고 있다.

3 '주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②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 문장의 객체가 아닌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으며 높임의 의미가 있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객체 높임을 표현하는 특수한 어휘(모시다, 드리다 등)를 사용하지 않았다.

4 ③은 부사어 '지금'과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냈으며,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ㄴ 것'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냈으며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미래 시제 문장이다.

② 부사어 '어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냈으며,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문장이다.

④ 관형사형 어미 '-(은)ㄴ'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냈으며,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문장이다.

⑤ 부사어 '지난해'와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냈으며,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문장이다.

5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여 시제를 표현한다.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 표현하는 시제는 현재 시제이다.

6 <보기>의 문장에는 과거 시제, 완료상이 쓰였다. ⑤는 '어제, 선어말 어미 '-었-'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냈고, '서 있었다.'는 과거에서 있었다는 의미로 완료상이다.

7 <보기>에서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 '-겠-'을 설명하였으며, ④의 '-겠-'도 도착하는 시간을 추측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면 ②, ③, ⑤의 '-겠-'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8 ⑤는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어 적절하지 않으며, '유적이 새롭게 발견됐다.'와 같이 바꾸어 써야 한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쓸 때에는 피동 접미사나 '-되다', '-아/-어지다'를 사용할 수 있다.

9 <보기>의 밑줄 친 진행자의 말에는 피동 표현인 '요구되다'를 사용하여 이안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정보를 시청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10 '모기가 형을 물었다.'는 능동 표현으로 이를 피동 표현으로 사용하려면 문장의 주어인 '모기'를 목적어로, '형'을 주어로 바꾸고 '물다'에 피동 접미사 '-리-'를 붙여 '형이 모기에 물렸다.'와 같이 써야 한다.

11 직접 인용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하여 표시하고 큰따옴표 뒤에 조사 '라고'를 쓴다. 간접 인용은 따옴표를 쓰지 않으며 해당 인용절 뒤에 조사 '고'를 쓴다. 간접 인용을 사용할 때는 인용절의 시간 표현, 높임 표현, 지시어 등을 문장에 맞도록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12 영서가 자신을 표현한 어휘인 '자기'를 영서가 발화한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나'로 고치고,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확인 문제 +

274쪽

1 ④ 2 ③ 3 ⑤ 4 ② 5 ②

1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은 외래어이다.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모두 고유어로 바꾸어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이나 맥락,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2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필자의 부정적인 입장이 드러나는 어휘로는 '무리한, 낭비 논란, 지적, 막대한 비용, 부담'이 있다.

3 특정 전문 분야에서 쓰이며 전문적인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휘는 전문어이다.

4 <보기>에 나타난 '울음 현상', '표면 박락', '크랙' 등의 용어는 미술 및 보존 과학 분야의 전문어로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5 ㉠의 '다르다'를 ㉡의 '구별하다'라는 한자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세부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어휘력 UP

276~277쪽

1 (1) ㉠ (2) ㉡ (3) ㉢

2 (1) 조성 (2) 입장 (3) 저조 (4) 방안

3 (1) ㉠ (2) ㉢ (3) ㉡ (4) ㉣

4 ⑤

5 마른침을 삼키다

6 ④

1 (1) '내포하다'는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다.'라는 뜻이다.

(2) '성립하다'는 '일이나 관계 따위가 제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다.

(3) '작용하다'는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다.

2 (1) '조성'은 '무엇을 만들어서 이룸.'이라는 뜻으로 새롭게 유원지를 만들려는 상황에 어울린다. '각성'은 '깨어 정신을 차림.'이라는 의미이다.

(2) '입장'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입성'은 '상당한 노력 끝에 선망하던 세계나 방면으로 진출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 '저조'는 '능률이나 성적이 낮음.'을 뜻하므로 경기에서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 적절한 반면, '강조'는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함.'을 뜻한다.

(4) '방안'은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방문'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봄.'을 뜻한다.

- 3 (1) ㉠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을 의미한다.
 (2) ㉡ '진행'은 '일 따위를 처리하여 나감.'을 의미한다.
 (3) ㉢ '발전'은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4) ㉣ '발생'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4 ⑤에는 '가려서 따로 나눔.'이라는 의미를 지닌 '선별'이 적절하다.

5 '마른침을 삼키다'는 '몹시 긴장하거나 초초해하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바가지'를 굽다'는 '불평과 잔소리를 심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자리가 잡히다'는 '서로 힘을 합쳐 돕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심기일전(心機一轉)'은 '어떤 동기가 있어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짐.'을 이르는 말이므로 새학기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려는 상황에 쓰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재능(才能)'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낭중지추(囊中之錐)'가 어울린다.
 ②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이 어울린다.
 ③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함'을 뜻하는 '유야무야(有耶無耶)'가 어울린다.
 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고진감래(苦盡甘來)'가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278~281쪽

01 ③ 02 ③ 03 • 고친 표현: 진호야,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 • 고친 이유: 현재 '형준'의 말에서는 '진호'를 높이고 있다. 높여야 하는 대상은 선생님이다. 04 ⑤ 05 ④ 06 ④
 07 ② 08 ① 09 • 시제: 현재 시제 / • 동작상: 진행상
 10 ⑤ 11 ⑤ 12 ⑤ 13 ④ 14 ⑤ 15 한자어를 사용함으로써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16 ③ 17 ① 18 ③ 19 예 공공시설 운영과 유지에 드는 과도한 비용이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세금을 낭비하는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합니다.

01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

02 ③은 객체인 '할아버지'를 특수 어휘인 '모시다'를 통해 높이고 있으므로 높임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사-' 또는 '잡수다'를 사용하여 '아버지께서는 식구들과 저녁을 드셨다(잡수셨다.)'와 같이 써야 한다.
 ② 간접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의 다리'를 높여 '할머니께서는 아직 다리가 아프시다.'와 같이 써야 한다.
 ④ 문장의 객체인 '담당 선생님'은 높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조사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여 '신청서는 담당 선생님께 드리면 돼.'와 같이 써야 한다.
 ⑤ 높여야 하는 대상은 어머니인데 청자인 동생을 높이고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수업이 끝나면 전화하라고 하셔.'와 같이 써야 한다.

03 '오시래'는 '오시라고 해'가 줄어든 말이다. '오시다'는 '오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붙은 말이다. 이럴 경우 '오다'의 주체인 '진호'를 높이는 것이므로, 높여야 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여 '오라고 하셔'로 고쳐 표현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아 올바르게 고쳤다.	☐
문장을 고친 이유를 올바르게 서술하였다.	☐

04 'ㄷ'은 화자인 자신을 낮추는 어휘인 '제'와 종결 어미 '해요체'를 통해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문장으로, 이를 통해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 이 문장에서는 특수 어휘인 '모시다'를 통해 서술의 객체인 '할아버지'에 대한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ㄱ: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사-'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② ㄴ: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문장의 부사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③ ㄴ: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④ ㄷ: 상대 높임 표현 중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다.

05 (가)와 (나)는 말을 하는 상황 맥락이 달라서 높임 표현을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청자의 상하 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사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체인 '해체'를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근감을 표시했다.
 ③ (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격식체인 '하십시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가)와 (나)의 높임 표현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짐작할 수 있다.

06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완결되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은 동작상이다.

07 '슬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아/-어 있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⑤ '-어 버리다'를 사용하여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다.

08 ㉠은 부사어인 '지금'과 선어말어미 '-니-'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은 부사어인 '어제', 관형사형 어미 '-(으)니', 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은 부사어인 '내일'과 관형사형 어미 '-(으)리'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관형사형 어미 '-니'를 사용하였다는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제시된 문장에는 부사어 '지금'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문장에 사용된 시제를 올바르게 썼다.	☐
문장에 사용된 동작상을 올바르게 썼다.	☐

10 ⑤는 능동문을 사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사동문으로 바꾼 것이다.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꾼 것은 '책이 학생들에게 읽혔다.'와 같다.

오답 풀이 ① '-어지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들었다.

② 피동 접미사 '-리-'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들었다.

③ '-되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들었다.

④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들었다.

11 <보기>에서는 이중 피동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에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되다'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결합된 '파손되어진'이라는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은 '이미 파손된 제품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동사 '찢다'에 '-어지다'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② 동사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③ '-되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표현하였다.

④ 동사 '바꾸다'에 피동 접미사 '-아-'가 사용된 피동 표현이다.

12 <보기 2>의 기자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인 '이안류'보다 사고를 당한 대상인 어린이 다섯 명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13 ④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서 영서가 자신을 지칭하는 '나'를 '자기'로 바꾸고 종결 표현인 '싶어.'를 '싶다'로, 인용격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① 철수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했다.

② 승아는 자기가 먼저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③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가자고 말씀하셨다.

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14 <보기>의 강연자는 권위자의 말을 전달함으로써 강연을 듣는 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용 표현을 사용하였다.

15 <보기 1>에서는 '다릅니다'라는 고유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보기 2>에서는 '구별됩니다'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보기 2>와 같이 한자어를 사용하면 고유어에 비해 세부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고유어와 비교하여 한자어의 효과를 정확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6 제시된 글은 미술과 보존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사용되었다. 전문적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일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할 때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쉬운 어휘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전문어에는 고유어보다 외래어, 외국어, 한자어가 주로 사용된다.

② 미술과 보존 과학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어인 울음 현상, 표면 박락 등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④ 전문적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백과사전을 이용하여 뜻을 찾아 보는 것이 좋다.

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어를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17 이 글에 쓰인 어휘는 미술과 보존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어로 울음 현상은 '반반하지 못하고 우글쭇글쭇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18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가)는 세금 낭비 논란을 다루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의 긍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드러내는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가)와 (나)는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② (가)와 (나)는 같은 화제에 대해 필자의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④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는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9 (가)는 공공시설 설치를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가)에서 사용된 어휘를 활용하여 서술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가)의 필자와 같은 부정적 관점으로 썼다.	☐
(가)의 어휘를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었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3 마음을 잇는 대화

스스로 계획하기

282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283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289쪽

1 ④ 2 ⑤ 3 ④ 4 ④ 5 ⑤

- 1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여 대화해야 한다.
- 2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지호'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므로 먼저 "괜찮아."라는 말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이어 "오랜만에 바깥 구경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라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한 ⑤가 가장 적절하다.
- 3 대화 참여자는 협력의 원리에 따라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며 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4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해야 한다. '지연'이 학교 축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했으므로 '준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 나가야 한다.
- 5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민호'는 '경수'에게 직접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경수'는 '민호'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였다. '민호'나 '경수'처럼 예의를 갖추는 표현 없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게 된다.

확인 문제 +

296쪽

1 ⑤ 2 ⑤ 3 ① 4 ④ 5 ④

- 1 공동체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성찰하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소통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세계화 시대가 되더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담화 관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②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며,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담화 관습은 오랫동안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④ 담화 관습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르는 질서나 관습을 의미한다.

- 2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은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뜻이다. 이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배려하며 말해야 나 또한 배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이며, '혜진'은 '지수'와 '수진'이 서로 배려하며 말하며 앞으로는 싸우지 않길 바라고 있다.

3 <보기>의 대화에서는 '꾸안꾸', '최애색' 같은 줄임말이나 '아이템', '레이어드', '캐주얼'과 같은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줄임말이나 외국어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 우리말의 규범이 파괴되거나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대화가 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4 (나)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과거의 담화 관습이 나타나 있다. 겸손한 태도로 말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5 '아들'의 말을 통해 현재의 담화 관습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완곡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어휘력 UP

298~299쪽

1 (1) ㉠ (2) ㉡ (3) ㉢

2 (1) 의사 (2) 명확하게 (3) 우회적 (4) 직접적

3 (1) ㉠ (2) ㉡ (3) ㉡ (4) ㉢

4 ③

5 귀가 얇다

6 ④

- 1 (1) '무릇'은 '대체로 해야 할 생각하건대.'라는 뜻이다.
(2) '부담'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짐.'이라는 뜻이다.
(3) '협력'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라는 뜻이다.
- 2 (1) '의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의식'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라는 뜻이다.
(2) '명확하다'는 '명백하고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명민하다'는 '충명하고 민첩하다.'라는 뜻이다.
(3) '우회적'은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우호적'은 '개인끼리나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좋은 것.'이라는 뜻이다.
(4) '직접적'은 '중간에 제삼자나 매개물이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뜻으로, 제시된 문장에 어울린다. '간접적'은 '중간에 매개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 3 (1) ㉠ ‘유지’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을 의미한다.
 (2) ㉡ ‘명시’는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을 의미한다.
 (3) ㉢ ‘요구’는 ‘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함. 또는 그 청.’을 의미한다.
 (4) ㉣ ‘모호하다’는 ‘말이나 태도가 흐릿분하여 분명하지 않다.’를 의미한다.

4 ㉢에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는 의미를 지닌 ‘습관’이 적절하다.

5 ‘귀가 얇다’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낮이 두껍다’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눈코 뜰 사이 없다’는 ‘정신 못 차리게 몹시 바쁘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설왕설래(說往說來)’는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또는 말이 오고 감.’을 이르는 말이므로 회의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논의하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한 마디 말과 반 구절이라는 뜻으로, 아주 짧은 말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일언반구(一言半句)’가 어울린다.
 ②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를 뜻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어울린다.
 ③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어울린다.
 ⑤ ‘남의 하찮은 말이나 행동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 어울린다.

소단원 평가

300~303쪽

- 01 ① 02 ‘지영’은 무엇을 먹는지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에 “글썸, 아무거나.”라고 말하며 정보를 담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였다. 이는 협력의 원리를 어긴 대화이다. 03 ① 04 ⑤
 05 ① 06 ③ 07 ① 08 ⑤ 09 ⑤ 10 ④ 11 ③
 12 ③ 13 줄임말이나 외국어를 자주 사용한다. 14 ⑤ 15 ③

01 (가)에서 ‘수연’은 약속 시간에 늦은 ‘우진’을 비난하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했다. 이는 공손성의 원리를 어긴 것으로, 공손성의 원리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오답 풀이** ② (가)에 대화가 끊겨 침묵으로 일관하는 내용은 없다.
 ③ ‘우진’의 사과와 ‘수연’의 대답은 같은 주제의 대화이다.
 ④ ‘우진’의 사과와 ‘수연’의 대답 모두 듣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도 아니고, 불필요하게 많지도 않다.
 ⑤ (가)에서 의사를 물어보고, 대답하는 내용은 없다.

02 (나)의 ‘지영’은 무엇을 먹는지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에 “글썸, 아무거나.”라고 말하며 정보를 담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지영’이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력의 원리에 어긋난 대화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의 대화에서 대화의 원리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썼다.	☐
(나)의 대화에서 대화 참가자가 어기고 있는 대화의 원리를 알맞게 썼다.	☐

03 (다)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긴 대화로,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

04 <상황 1>에서는 할아버지가 옆집 청년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시끄러운 음악을 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이고 무례하게 전달하였다. <상황 2>에서는 할아버지가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청년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청년의 체면을 고려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이를 들은 청년 또한 할아버지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상황 1>에서는 할아버지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만 <상황 2>에서는 할아버지가 우회적으로 요구를 드러내고 있다.
 ②, ③, ④ <상황 1>과 <상황 2>의 차이는 ‘체면 유지의 원리’를 활용하여 대화를 했는가이다. 의견 사이에 차이점을 줄여 표현하는 것,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을 늘리는 것, 상대방의 이익을 늘려 표현하는 것 모두 ‘공손성의 원리’를 고려한 것이다.

05 협력의 원리에 따르면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채은’은 ‘세영’의 말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말하여 협력의 원리를 어겼다.

06 ‘준서’는 ‘지연’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 대화를 할 때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이 대화는 축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자는 제안을 하는 상황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것과 상관없다.
 ②, ④, ⑤ ‘협력의 원리’ 중,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거나, 대화 참여자가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하거나,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과는 상관없다.

07 과거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8 아버지의 물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담화 습관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완곡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나)에 나타난 과거의 담화 관습은 겸양과 겸손의 태도로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과거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떠벌리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말을 삼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②, ③ 현재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장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④ 과거의 담화 관습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재에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본다.

10 <보기>는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담화 관습의 긍정적인 부분과 현재의 담화 관습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계승하는 내용이 담긴 ④가 가장 적절하다.

11 (가)에는 우리 조상들이 공유한 과거의 담화 관습이 나타나 있다. 과거에는 낮은 소리로 신중하게 말하며 허튼소리를 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잘 표현하는 속담은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이다. 이 속담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이것저것 많이 늘어놓으면 그만큼 쓸 말은 적어진다는 의미로, 말을 삼가라는 뜻을 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말이 씨가 된다: 늘 말하던 것이나, 무심코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
 ② 말 속에 뜻이 있고 뼈가 있다: 예사로운 말 같으나 그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다.
 ④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
 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자기에게도 좋은 반응이 돌아온다.

12 (나)에 나타난 과거의 담화 관습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태도이다.

13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담화 관습은 줄임말이나 외국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꾸안꾸', '최애'는 줄임말이고, '아이템(item)', '레이어드(layered)', '캐주얼(casual)'은 외국어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줄임말이나 외국어의 사용이 많다고 하였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4 외국어로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길게 설명해야 하는 말을 줄임말로 짧게 표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15 지나친 외국어 사용은 우리말의 규범이 파괴될 수 있고, 줄임말을 과하게 사용하면 대화하는 상대방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점원'과 '손님'은 이미 서로를 높이며 말하고 있다.

- ② '점원'과 '손님'은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점원'과 '손님'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아니다.
 ⑤ '점원'과 '손님'이 사용하는 외국어와 줄임말은 전문어가 아니다.

대단원 평가 1

306~310쪽

01 ④ 02 ② 03 [한녀름], 앞말 자음 'ㄴ'이 뒷말 반모음 'ㅇ'와 만나 'ㄴ'이 첨가되는 ㄴ 첨가가 일어났다. 04 ③ 05 ③
 06 ⑤ 07 ③ 08 ④ 09 ② 10 ③ 11 ⑤ 12 ①
 13 ④ 14 ⑤ 15 ② 16 ④ 17 ④ 18 ③ 19 전문어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20 ③ 21 ⑤ 22 ⑤
 23 ① 24 ① 25 ④

01 음운 변동 현상은 표기된 단어를 보다 쉽게 발음하거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모음 탈락은 음운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다.
 ② 음운 변동으로 인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③ 음운 변동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⑤ 음운의 변동은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02 '같이[가치]'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ㄷ'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교체에 해당한다. '만형[마형]'에는 'ㄷ'이 'ㅎ'과 만나 'ㅌ'으로 줄어드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난다. '커서'는 어간 '크-'와 어미 '-어서'가 결합하여 모음 'ㅡ'가 탈락하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줄고[조코]: 거센소리되기(축약), 갈등[갈등]: 된소리되기(교체), 건너- + -어서 → 건너서: 모음 탈락(탈락)
 ③ 굽히다[구피다]: 거센소리되기(축약), 밥상[밥쌍]: 된소리되기(교체), 쓰- + -어서 → 써서: 모음 탈락(탈락)
 ④ 식용유[시공뉴]: ㄴ 첨가(첨가), 축하[추카]: 거센소리되기(축약), 가- + -아서 → 가서: 모음 탈락(탈락)
 ⑤ 걷기[겉:끼]: 된소리되기(교체), 굳이[구지]: 구개음화(교체), 두통 + 약 → 두통약[두통낙]: ㄴ 첨가(첨가)

참고 자료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형태소 중에서도 문법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이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가 있다. '조사, 어미, 접사'가 형식 형태소에 속한다는 걸 알아두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구별하기가 더 쉽다.

- 03 '한여름'은 [한녀름]으로 발음되며 접두사 '한-'의 자음 'ㄴ'이 뒷말 어근 '여름'의 반모음 'ㅣ'와 만나 'ㄴㅣ' 첨가되는 ㄴ 첨가가 일어났다.

평가 기준	확인 ✓
'한여름'의 알맞은 발음을 썼다.	☐
'한여름'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으로 ㄴ 첨가를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4 '흙수'는 음절의 끝에 오는 'ㄱ, ㄷ, ㅂ'의 뒤에 예사소리가 올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흙쑤]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① '뱃[박]'은 음절의 끝에 오는 'ㅍ'이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② '국물[궁물]'은 'ㄱ'이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해돋이[해도지]'는 앞말의 끝소리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한라산[할:라산]'은 비음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 05 '색연필[생년필]'은 ㄴ 첨가가 일어나 [색년필]이 된 후,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비음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 오답 풀이** ① '꽃다발[꼇따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꼇따발]이 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꼇따발]로 발음된다.
 ② '꽃향기[꼬향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꼇향기]가 되고,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꼬향기]로 발음된다.
 ④ '앞날[압날]'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압날]이 되고, 비음화가 일어나 [압날]로 발음된다.
 ⑤ '겉모양[건모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건모양]이 되고, 비음화가 일어나 [건모양]으로 발음된다.

- 06 <보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겉모양[건모양]'은 받침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바뀌고, 'ㄷ'이 비음 'ㅁ'을 만나 'ㄴ'으로 발음되어 비음화된다.

- 오답 풀이** ① '국민[궁민]'은 받침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으로 비음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만 일어난다.
 ② '숲속[숭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ㅍ'이 'ㅂ'으로 바뀌고, 'ㅂ' 받침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ㅌ'이 'ㅍ'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말이[마지]'는 받침 'ㄷ'이 앞말의 끝소리에 오고, 뒤에 형식 형태소 '-이'의 첫소리 모음 'ㅣ'가 오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④ '두통약[두통낙]'은 받침 'ㅇ'이 뒤에 오는 반모음 'ㅣ'의 영향으로 그 사이에 'ㄴ'이 덧붙여 'ㄴ' 첨가가 일어난 것이다.

- 07 '안방[안뻥]'은 고유어 '안-'과 한자어 '방(房)'의 합성 명사로, 합성 명사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사잇소리 현상에 해당한다.

- 08 '살살이[산싸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ㅌ'이 'ㄷ'으로 발음되고, 'ㄷ'의 영향으로 뒤의 'ㅌ'이 'ㅍ'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또한, 음절 말에 오는 'ㅌ'이 'ㅣ'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 오답 풀이** ① '갈 곳이야[갈꼬시아]'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이 된소리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몹시[몹씨]'에는 음절 끝에 오는 'ㅂ' 뒤에 'ㅌ'이 'ㅍ'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뒀는지[된는지]'에는 음절 끝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뀌고,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ㄷ'이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어떻게[어떡케]'에는 'ㅎ'이 'ㄱ'을 만나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09 '아프시다'의 '-시-'는 높여야 하는 대상인 할머니의 신체 부분인 '다리'를 높여 주체인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읽은'의 '-은'은 과거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③ '잡혔다'의 '-하-'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접미사이다.
 ④ '모시고'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이다.
 ⑤ '라고'는 다른 데서 들은 말을 문장에 넣어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조사이다.

- 10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 오답 풀이** ① 청자인 '선생님'을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②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④ '나는 선생님께 모르는 부분을 여쭙어보았다.'는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 나타난 문장으로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
 ⑤ '해요체'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 11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진호야,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부사어 '어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그 일을 어제 혼자 했어.'로 고친다.
 ② '열려지지'는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와 '-어지다'가 함께 쓰여 이중 피동 표현이 되었으므로 '열려지지'로 고친다.
 ③ '음료'는 사물이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나오셨습니다'를 '나왔습니다'로 고친다.
 ④ 간접 인용 표현이므로 조사 '라고'를 '고'로 고친다.

- 12 현재 시제를 나타낸 문장으로 '읽는'에 나타난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작에 쓰이는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이다.

- 오답 풀이** ②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③ '지난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④ 선어말 어미 '-았-'과 관형사형 어미 '-던'을 사용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⑤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13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선어말 어미 ‘-았-/었-’, ‘-다’를 쓴다.
 ②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을,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던’을 쓴다.
 ③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관형사형 어미를 동사에는 ‘-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으)ㄴ’으로 쓴다.
 ⑤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는 선어말 어미 ‘-겠-’이나 ‘-(으)ㄹ’, ‘-(으)ㄴ’을 쓴다.

14 문장의 주어인 ‘엄마’가 동호에게 책을 읽도록 시키는 표현으로 ‘읽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사동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① ‘-어지다’를 사용하여 주어인 ‘꽃병’이 여러 조각나게 되었음을 표현한 피동 표현이다.
 ② 주어인 ‘동생’이 ‘누나’의 품안에 있게 되다는 뜻을 가진 피동 표현으로 피동 접미사 ‘-가-’를 사용하였다.
 ③ 주어인 ‘아이’가 ‘엄마’의 등에 매달려 있게 된 것을 표현한 피동 표현으로 피동 접미사 ‘-하-’를 사용하였다.
 ④ ‘-되다’를 사용하여 주어인 ‘새로운 유물’이 다른 주체에 의해 발굴을 당함을 표현한 피동 표현이다.

15 ‘바뀌어졌다’는 ‘바꾸다’에 피동 접미사 ‘-이-’와 ‘-어지다’가 동시에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으로 과도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바뀌었다’ 또는 ‘바꾸어졌다’로 고쳐 써야 한다.

16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인용절 뒤에 조사 ‘고’를 붙여 사용하여 종결 표현을 문장에 맞도록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지율이에게 수영이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다.’로 수정한다.

17 ㉠은 능동 표현, ㉡은 피동 표현 문장이다. ㉠은 행위의 주체가 자 문장의 주어인 ‘나’의 행위에 초점을, ㉡은 행위의 대상인 ‘붕어빵’에 초점을 두어 표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뀐다.
 ② ㉠은 행위의 주체이자 주어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한 능동문이다.
 ③ ㉡은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한 피동문이다.
 ⑤ ㉢은 동사 ‘팔다’에 피동 접미사 ‘-라-’를 붙여 만든 피동문이다.

18 이 글에는 주로 미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울음 현상’, ‘표면 박락’, ‘크랙’ 등의 전문어가 사용되었다. 전문어는 특정한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이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19 ‘울음 현상’, ‘표면 박락’, ‘크랙’ 등의 어휘들은 미술 작품의 보존을 위한 보존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어로, 같은 분야에 종사하거나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전문어의 사용 효과로 같은 분야나 해당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고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20 (나)에서 ‘지영’은 무엇을 먹는지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에 정보를 담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지영’이 협력의 원리를 지키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 ‘수연’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하는 ‘우진’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하여 ‘우진’을 당황하게 하였다. ‘수연’이 공손성의 원리를 지키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은 줄이고 자신에게 부담되는 표현을 늘려서 사용해야 한다.
 ④ (나)의 ‘민주’는 ‘지영’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지영’에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⑤ 상대방이 말하는 화제와 연관된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21 ‘지영’은 무엇을 먹는지 물어보는 ‘민주’의 말에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짧고 불명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22 대화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 주며 말하기 위해서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보기〉에서 ‘선배’는 동아리 방 청소를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요구를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후배’는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협력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③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먼저 배려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다.
 ④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보기〉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23 ‘예원’은 ‘준호’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해야 한다.

24 (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의 대화 관습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를 통해서도 줄임말이나 외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대화 관습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말로 대체하기 힘든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말의 규범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25 ‘세 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들으랬다’는 남이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와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말을 삼가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01 ⑤ 02 ④ 03 ② 04 ㉠: [이러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 [일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05 ⑤ 06 ② 07 ④ 08 ③ 09 ② 10 ①
11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신다. 12 ③
13 ⑤ 14 ③ 15 ① 16 ⑤ 17 ① 18 ② 19 ①
20 ⑤ 21 ⑤ 22 ① 23 ③ 24 말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01 ‘대관령’이 [대:팔령]으로 발음될 때는 ‘ㄹ’의 앞에 높인 ‘ㄴ’의 유음화가 일어난다. 유음화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 오답 풀이** ① ‘말형’이 [마형]으로 발음될 때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② ‘해돋이’가 [해도지]로 발음될 때 구개음화(교체)가 일어난다.
③ ‘갑자기’가 [갑짜기]로 발음될 때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다.
④ ‘숨이불’이 [숨:니불]로 발음될 때 ㄴ 첨가(첨가)가 일어난다.

02 ‘포도’의 발음은 [포도]이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나머지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예로 ‘학교[학교]’, ‘많은[마:는]’, ‘말이[마지]’, ‘축하[추카]’로 발음된다.

03 ‘잇하다’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이치다]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① ‘굳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ㄷ’이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ㅌ’으로 바뀌어 [구지]로 발음된다.
③ ‘신라’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ㄴ’로 바뀌어 [실라]로 발음된다.
④ ‘국물’은 비음화가 일어난다. ‘ㄱ’이 뒤에 오는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된다.
⑤ ‘잡는다’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어 [잠는다]로 발음된다.

04 ㉠ ‘이렇게’의 발음은 [이러케]로 ‘ㄹ’의 끝소리 ‘ㅎ’과 뒷말의 첫소리 ‘ㄱ’이 만나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 ‘있다’의 발음은 [일따]로, ‘잇’의 끝소리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발음되고, ‘ㄷ’ 뒤에 뒷말 ‘다’의 첫소리 ‘ㄷ’이 연결되어 ‘ㄸ’으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올바른 발음과,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났음을 썼다.	☐
㉡의 올바른 발음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및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음을 썼다.	☐

05 ‘곶날[곤날]’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곶날]로 바뀌었다가 ‘곶’은 ‘날’의 첫소리인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를 거쳐 [곤날]로 발음된다.

- 오답 풀이** ① 한여름[한녀름]: ‘한+여름’으로 앞말이 자음 ‘ㄴ’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여 그 사이에 ‘ㄴ’이 덧붙여 발음된다.
② 두통약[두통낙]: ‘두통+약’으로 앞말이 자음 ‘ㅇ’으로 끝나고 뒷말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여 그 사이에 ‘ㄴ’이 덧붙여 발음된다.

- ③ 맨입[맨닙]: ‘맨+입’으로 앞말이 자음 ‘ㄴ’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하여 그 사이에 ‘ㄴ’이 덧붙여 발음된다.
④ 숨이불[숨:니불]: ‘숨+이불’로 앞말이 자음 ‘ㄹ’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하여 그 사이에 ‘ㄴ’이 덧붙여 발음된다.

06 ‘꽃향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ㅌ’이 ‘ㄷ’으로 바뀌어 [꼇향기]로 발음된다. 이어 [꼇향기]에서 받침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꼬탕기]로 발음된다.

07 ㉠의 ‘잠가’는 어간 ‘잠그-’에 어미 ‘-아’가 연결되어 어간의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씨’: ‘쓰-ㅍ-어’에서 어간의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② ‘건너서’: ‘건너-ㅍ-어’에서 한쪽의 모음 ‘ㅣ’가 탈락하였다.
③ ‘커서’: ‘크-ㅍ-어’에서 어간의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⑤ ‘고파’: ‘고프-ㅍ-아’에서 어간의 모음 ‘ㅏ’가 탈락하였다.

08 ‘발이’는 앞말의 끝소리 ‘ㅌ’과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 [바치]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단어 발음 환경	발은 발으면 안 돼.	발이 정말 넓군요.
‘ㄷ, ㅌ’이 앞말의 끝소리에 온다.	(㉠: ○)	(㉡: ○)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와 만난다.	×	(㉢: ○)

↓

‘발이’는 음운 변동 현상 중에서 (㉢: 구개음화)가 일어나(㉢: [바치])로 발음된다.

09 ‘광한루[광:할루]’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10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주체 높임법을 고려해 ‘있니’를 ‘계시니’로 고친다.

- 오답 풀이** ② 문장의 객체인 아버지를 높여야 하므로 ‘쥬’를 ‘드려’로 고친다.
③ 주체인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이다. 할머니의 신체 부위인 ‘다리’를 높이는 표현인 ‘아프시다’로 고친다.
④ 문장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여야 하므로 ‘만나러’를 ‘뵈러’로 고친다.
⑤ 문장의 주어인 ‘행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청자를 높여야 하므로 상대 높임법을 고려하여 ‘마감되었어요’로 고친다.

11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만들다’에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여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신다.’로 고쳐 써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주체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여 문장을 고쳐 썼다.	☐

12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인 보조 동사 ‘있다’를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부사어 ‘지금’을 사용하여 현재 시제를 드러내고 있다. 문장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④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미래 시제이다.

13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뒤에 오는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⑤는 부사어 ‘내일’과 ‘-(으)ㄴ’을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부사어 ‘지금’이 쓰인 현재 시제이다.
- ② 부사어 ‘지난주’와 선어말 어미 ‘-었-’이 쓰인 과거 시제이다.
- ③ 선어말 어미 ‘-ㄴ-’이 쓰인 현재 시제이다.
- ④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선어말 어미 ‘-았-’이 쓰인 과거 시제이다.

14 <보기>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현재 시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행상이 나타난다. 진행상은 보조 용언 ‘-고 있다’, ‘-아/-어 가다’ 등을 이용하여 실현되며, ③ 역시 현재 시제와 진행상이 나타난 문장이다.

15 ‘먹다’에 사동 접미사 ‘-이-’를 붙여서 주체인 ‘엄마’가 대상인 ‘아이’에게 밥을 ‘먹는 동작’을 하도록 시켰다는 뜻이다.

- 오답 풀이** ② ‘풀다’에 피동 접미사 ‘-어지다’가 사용되었다.
- ③ 행위의 대상이 파도에 영향을 받은 것을 나타내는 피동문으로 ‘휩쓸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사용되었다.
- ④ 행위의 대상인 ‘학교’가 주어인 피동문으로 ‘뒤집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사용되었다.
- ⑤ ‘읽다’에 피동 접미사 ‘-히-’와 ‘-어지다’를 중복 사용하여 이중 피동 표현이 되었다.

16 인용질의 ‘나’를 ‘자기’로 바꾸고, ‘싫어’의 종결 표현을 ‘싫다’로 바꾸어 ‘영수가 경훈이에게 자기도 이번 여름에 바닷가로 놀러가고 싶다고 말했다.’로 고칠 수 있다.

17 전문어는 정밀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여 전문적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8 <보기>는 의료인의 직업 특성을 반영한 ‘충수염’, ‘내원’, ‘CT 스캔’ 등의 전문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논리 및 사고 전개 과정을 전달하는 어휘는 사고 도구어에 해당한다.

19 (가)는 ‘다릅니다’라는 고유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나)는 ‘구별됩니다’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단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가 많아 세부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로 많이 쓰인다.

오답 풀이 ②, ⑤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다.

③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단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④ 미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한자어 외에도 다양한 어휘로 표현된다.

20 ‘지연’이 축구 경기를 보러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준서’는 대화의 주제에 관련되지 않은 야구 경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

21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게 된다.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표현할 때 예의를 갖추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22 <보기>에 나타난 오늘날의 담화 관습은 자신의 장점을 표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발표를 잘하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시하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신입 사원의 모습을 적절한 예로 볼 수 있다.

23 ‘수연’과 ‘수혁’은 ‘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담화 관습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현재의 담화 관습에서 줄임말이나 외국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보기 2>의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② 현재의 담화 관습에서 자신의 장점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만 <보기 2>의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보기 2>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표현의 문제일 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보기 2>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24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말은 비록 말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두 속담 모두 말을 삼가고 조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말을 조심하거나 삼가야 한다고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5 생각의 힘을 키우는 설득

01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스스로 계획하기

320쪽

1 ○ 2 ○ 3 ○ 4 ×

미리 알고 가기

321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325쪽

1 ③ 2 ③

- 1 사회자는 토론 중에 앞선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자가 앞선 발언자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 2 '찬성 1'은 설문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아닌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확인 문제 +

327쪽

1 ② 2 ① 3 육식

- 1 토론의 절차 중 '반대 신문' 단계에서는 입론이 끝난 뒤 입론에 담긴 상대방의 논증의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내어 질문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논제 제시'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③ '입론'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④, ⑤ '반론'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2 '반대 1'은 입론에서 '축산업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지만 그 발생 수치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은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와 같이 말하며 축산업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되며, 축산업이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①과 같은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 필수 쟁점은 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하는 쟁점으로,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 내용으로 보아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쟁점과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인 문제 +

329쪽

1 채식의 날 2 ②

1 입론 내용으로 보아 양측은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쟁점을 두고 토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반대 2'는 입론에서 '채식의 날' 도입의 대안으로 학교 급식 식단에서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찬성 2'는 반대 신문에서 이에 대해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의 수가 매우 적음을 지적하였다. '반대 2'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농가의 수가 적다는 찬성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처음부터 급식에 필요한 육류 모두를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재료로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하고 있다.

확인 문제 +

331쪽

1 ③ 2 반대 1, 찬성 2

- 1 '반대 1'은 반론에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대 측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채식 급식 도입 대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선택하여 먹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반대 1'이 '채식의 날' 도입이 환경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반대 신문식 토론은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진행된다. 이 글에서는 반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론은 '반대 1 - 찬성 1 - 반대 2 - 찬성 2'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휘력 UP

340~341쪽

1 (1) ㉠ (2) ㉡ (3) ㉢

2 (1) 인증 (2) 감당 (3) 충족 (4) 대응

3 (1) ㉠ (2) ㉢ (3) ㉡ (4) ㉣

4 ⑤

5 평 대신 닭

6 ④

- 1 (1) '제조'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들.'이라는 의미이다.
(2) '제공'은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이라는 의미이다.
(3) '제정'은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이라는 의미이다.
- 2 (1)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 '인증'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함.'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인증'이 적절하다.
(2) '감당'은 '일 따위를 맡아서 능히 해냄.', '감수'는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임.'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는 '감당'이 적절하다.

- (3) '흡족'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며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음.', '충족'은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는 '충족'이 적절하다.
- (4) '대응'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 '대항'은 '굴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서 버티거나 항거함.'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는 '대응'이 적절하다.

- 3 (1) '소모'는 '써서 없앴.'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2) '불과'는 '그 수량에 지나지 아니한 상태임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3) '숙의'는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4) '비인도적'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4 '기여'의 뜻을 생각할 때, ①~④의 문장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만 ⑤에는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쌔다.'라는 의미의 '기민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5 '꽤 대신 닭'은 '꼭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속담으로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두 가지의 재화.'를 의미하는 '대체재'와 뜻이 통한다. '꽤 먹고 알 먹는다'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놓기'는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의 속담이다.

- 6 ④는 사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둘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인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함.'이라는 의미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③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쩌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이르는 말.'인 '절체절명(絕體絕命)'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봄.'이라는 의미의 '역지사지(易地思之)'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342~345쪽

- 01 ① 02 ⑤ 03 ② 04 ⑤ 05 ③ 06 ⑤ 07 1.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 육식을 줄려는 노력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08 ① 09 ③ 10 ④ 11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12 ④ 13 ③ 14 ⑤

- 01 이 글은 토론이다. 토론은 정해진 논제를 중심으로 논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분명하게 나누어 정해진 규칙을 지키며 진행해야 한다.

- 02 토론의 명제는 하나의 명제를 담고 있어서 토론의 초점이 하나로 분명해야 한다.

- 03 이 글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② 역시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③ 사실 논제의 예에 해당한다.

④, ⑤ 가치 논제의 예에 해당한다.

- 04 '반대 1'은 농업의 환경 파괴 사례를 들며 먹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며 육식을 줄여도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채식의 날'은 생선과 육류를 포함하지 않은 급식이 제공되는 날이라고 말하며 '채식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고 용어를 정의하였다.

② '찬성 1'은 미국, 프랑스 등의 '채식의 날' 시행 사례를 들었으며, '이들은 왜 '채식의 날'을 시행할까요?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는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관련된 축산업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와 같이 발언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③ '찬성 1'은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동차 16억 2,200만 대가 내뿜는 온실가스 양과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④ '반대 1'은 '환경 오염은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와 같이 발언하며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 축산업만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 05 사회자는 이 글에서 토론의 순서와 참여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토론의 순서를 안내하며 토론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② '오늘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라고 하며 토론의 논제와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④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토론자 및 토론 단계를 안내하고 있다.

⑤ '우리 반 학생들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와 같이 토론자가 우리 반 학생임을 알리고, 의문형 문장으로 듣는 이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06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먹거리 생산 방식이 문제라는 상대 답변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의 날'을 시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② '찬성 1'은 '반대 2'의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했다.

③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상대방이 고기를 살에 견주어 주장한 것에 대해 질문하며 타당성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④ '반대 1'은 '찬성 1'의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먹거리 생산 방식이 문제이며 먹거리 자체는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07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을 통해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필수 쟁점과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필수 쟁점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쟁점을 썼다.	☐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쟁점을 썼다.	☐

08 토론은 절차가 정해진 말하기이다. 이 글에는 토론의 절차 중 입론과 반대 신문, 반론이 드러나 있다. 입론에서는 양측이 논제와 관련된 주장을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밝혀야 하며 입론이 끝나면 각 측이 상대측 논증의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 질문하는 반대 신문이 이루어진다. 반론에서는 입론과 반대 신문을 통해 드러난 상대측 주장의 오류에 대해 반박하며 자신의 강점과 상대의 약점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비하며 최후 진술을 해야 한다. 반대 신문 단계에서 상대측의 주장 중 받아들일 부분을 찾아 정리할 필요는 없다.

09 토론은 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양측이 하는 말하기로, 상대측의 주장을 들 때는 논리적 오류나 허점이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장과 유사한지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0 입론을 할 때는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이유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반대 2'는 입론에서 학교에서도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급식에 활용하자고 하였으나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활용하는 전국 학교의 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육류 소비와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② 축산업의 폐해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라고 하였다.

③ '채식의 날' 도입보다 어떻게 기른 것을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였다.

⑤ 동물 복지 인증 축산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 표시를 하고 사육 과정을 관리하는 등의 사례를 들고 있다.

11 '찬성 2'와 '반대 2'의 입론을 통해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필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필수 쟁점을 적절하게 썼다.	☐
평서형 문장으로 썼다.	☐

12 '반대 2'는 반론에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길러진 육류를 선택하여 먹는 방법이 동물 복지 문제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측은 '채식의 날'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을 밝히고는 있으나 '채식의 날'을 시행했을 때의 부작용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② 반대 측은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육류를 선택하여 먹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는 있으나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 환경 문제와 전혀 관련 없음을 강조하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③ 반대 측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할 뿐,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과 이를 줄였을 때의 효과는 제시하지 않았다.

⑤ 반대 측은 소고기의 사육 환경이나 기술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며 '어떻게 길러진' 육류를 소비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보다 탄소 배출량이 환경 문제의 척도를 알려 주는 데에 더 효과적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참고 자료

일반적인 반론의 구조

- 상대측 의견 요약: 반론의 대상이 되는 상대측의 의견을 먼저 제시함.
-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론: 상대방 의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반박함.
- 자기편 주장 강화: 자기편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타당성을 높임.

13 찬성 측은 '채식의 날' 도입은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식의 날'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축산업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② '찬성 2'는 '채식의 날' 도입으로 육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④ '찬성 1'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육식 위주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⑤ '찬성 2'는 '채식의 날' 도입을 주장하며, 이것이 올바른 가치 교육 및 실천과 관련됨을 말하고 있다.

14 토론을 들으며 상대측의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해야 한다. 이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여야 하며, 꼭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자료로 근거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반대 신문식 토론의 토론 평가 기준

입론	쟁점별로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가?
	타당한 이유와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였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믿을 만한가?
반대 신문	상대측 주장의 허점이나 오류를 논리적으로 지적하였는가?
반론	상대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태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준수하였는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하였는가?

02 공동체를 위한 글 쓰기

소스로 계획하기

346쪽

1 × 2 ○ 3 ○

미리 알고 가기

347쪽

1 ○ 2 ○ 3 × 4 × 5 ○

확인 문제 +

353쪽

1 ③ 2 ② 3 ②

- 1 '지수'는 공원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원 소음 문제 발생 시 방음 시설 마련 등의 방법을 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오답 풀이 ① 밤에만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자는 것은 '지수'의 의견이다.
 ② 공원의 운동 시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수'의 견해이다.
 ④, ⑤ 공원 근처 주민들이 야간의 실외 체육 시설 이용으로 인한 소음 공해와 빛 공해에 시달리며 휴식에 방해를 받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호'의 견해이다.

- 2 '은호'는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야간 발생 사고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야간 관리 인원을 늘릴 수도 없어 녹색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공원 근처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인 (나)를 통해 공원의 체육 시설을 야간에 운영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이다.
 ⑤ 실외 체육 시설의 이용 시간을 제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비해 실외 체육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체육 시설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이다.

- 3 주민들의 인터뷰는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야간에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 '처음'이 아니라 '중간-1'에서 활용되었다.

확인 문제 +

360쪽

1 ③ 2 ④ 3 ③ 4 ⑤ 5 ④ 6 ⑤

- 1 견해를 드러내기 적합한 내용 전개 원리와 전략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쟁점을 드러내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글을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며, 자료를 축소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논리적 오류가 포함된 자료 역시 오류를 수정한다고 해도 근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 사회적 쟁점을 드러내는 글 쓰기 과정 중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수집하고, 적절성을 판단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적절성에 대한 판단 없이 수집한 자료를 모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4 글을 표현하고 고쳐 쓸 때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설정한 예상 독자의 수준과 입장을 고려하여 예상 독자의 특성에 맞게 글을 써야 하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5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고쳐 쓸 때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드러내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쟁점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담아서 안 된다.

- 6 사회적 쟁점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여러 사람의 견해나 관점을 확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어휘력 UP

362~363쪽

- 1 (1) ㉠ (2) ㉡ (3) ㉢
 2 (1) 확충 (2) 충돌 (3) 급증 (4) 거주
 3 (1) ㉡ (2) ㉠ (3) ㉢ (4) ㉣
 4 ㉡
 5 손을 놓다
 6 ㉣

- 1 (1) '반박'은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따위에 반대하여 말함.'이라는 의미이다.
 (2) '호소'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이라는 의미이다.
 (3)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이다.

- 2 (1) '확충'은 '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확산'은 '흩어져 널리 퍼짐.'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확충'이 적절하다.
 (2) '충동'은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 '충돌'은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섬.'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는 '충돌'이 적절하다.
 (3) '급등'은 '물가나 시세 따위가 갑자기 오름.', '급증'은 '갑작스럽게 늘어남.'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는 '급증'이 적절하다.
 (4) '이주'는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 '거주'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 또는 그런 집.'이라는 뜻이므로 이 문장에는 '거주'가 적절하다.

- 3 (1) '대체'는 '다른 것으로 대신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2) '쟁점'은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3)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견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라는 의미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공론화'의 뜻을 생각할 때, ①, ③, ④, ⑤의 문장에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만 ②에는 '굳고 단단하게 함.'이라는 의미의 '공고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5 '손을 놓다'는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라는 의미의 관용구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뜻이 통한다. '손에 익다'는 '일에 손에 익숙해지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 '손을 내밀다'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도움, 간섭 따위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게 하다.', '친하려고 나서다.'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6 ④는 중요한 과제와 약속 중 어떤 것을 택하지 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으로 '진퇴양난'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을 이르는 말'인 '일사천리(一瀉千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의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이라는 의미의 '일거양득(一舉兩得)'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인 '고진감래(苦盡甘來)'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소단원 평가

364~365쪽

01 ⑤ 02 ③ 03 의견을 공론화하여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04 ③ 05 ②

01 실외 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조명 등으로 인해 실외 체육 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체육 시설을 늘려 달라는 민원도 제기되었다.

02 학생이 수집한 자료 중 ㉠은 푸름 공원 근처 주민들의 인터뷰이다. 이 인터뷰에서는 야간 체육 시설 이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만 제시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신문 기사는 신뢰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자료이다.
 ② '녹색구'가 늦은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기 어렵고 야간 관리 인원 확충도 어렵다고 말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실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보여 주며 문제의 심각성과 견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적합하다.
 ⑤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의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03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견해를 담은 글을 주민 모임 누리집에 올려 의견을 공론화하여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공론화 혹은 사회 문제 참여에 대해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04 (가)의 '중간 3'에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과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글에서도 야간에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는 예상 반론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반론으로 녹색구에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실내 체육 시설이 여러 개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나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항목화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② (가)와 (나)에는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실외 체육 시설 근처 거주민들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인용하였을 뿐,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지는 않았다.
 ⑤ 녹색구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지자체의 해결 방안은 소개하지 않았다.

05 이 글에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리하여 표기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글의 제목인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에서 자신의 견해를 직관적으로 드러내었다.
 ③ (나)에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공원 근처 거주민들은 운동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응원 소리, 밝은 조명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녹색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④ 이 글은 필자의 견해를 드러내는 글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우는 등 논리적 순서와 같은 내용 전개 원리를 사용하였다.
 ⑤ 이 글의 필자는 사회적 쟁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예상 독자로 설정하고 문제 상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로, 일정한 논리적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고 작용이다. 논리적 사고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개념과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타당한 논거를 발견한 후 그 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이나 주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 01 ① 02 ③ 03 ④ 04 ② 05 ④ 06 ④ 07 푸름 공
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08 ①
09 ④ 10 ⑤ 11 (다양한 매체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12 ⑤ 13 ② 14 ③
15 '중간 3'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는데 활용한다.

01 (가)는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
자는 해결책을, (나)는 공원 야간 실외 체육 시설 이용으로 근처
거주민이 불편을 겪는 문제에 대해 이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해
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와 (나) 모두 핵심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나)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의 수치를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공원 근처 거주민의 피해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신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의견을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⑤ (가)에는 '이들은 왜 '채식의 날'을 시행할까요?', (나)에는 '야간에 운
동하시는 분은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하면 어떨까요?'와 같은 의문
형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 혹은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표현이 나
타난다.

02 (가)는 '찬성 1'의 입론, '반대 2'의 반대 신문, 반대 신문에 대한
'찬성 1'의 답변이 나타난 부분이다. (가)는 2명 대 2명으로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는 상황으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고려
할 때 (가) 이후에는 '반대 1'의 입론, '찬성 1'의 반대 신문이 이어
질 것이다.

03 '찬성 1'의 입론에서 미국 뉴욕의 모든 공립 학교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의 모든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고 하였다. 미국
과 프랑스는 채식 급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일주일에
하루, 프랑스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육식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
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자고 하였다.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자료를 인용하여 축산업
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였다.

③ '찬성 1'은 입론 마지막 부분에서 '채식의 날' 도입은 육식이 불러온
환경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⑤ '찬성 1'은 입론에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자료를 인용하여 축산업
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였다.

04 '반대 2'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식의 날' 도입을 하는 것이 환
경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상대 주장
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반대 신문을 하
고 있다.

05 사회적 쟁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하며 공동체에서 사
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을 의미한다. '친구 모임에서 식사 메
뉴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는 사적 집단의 개인 간의 문제
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아니다.

06 <보기>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
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사회 문제 해결의 참여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댓글을 쓴 '더불어 함께'는 필자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
기에 지지나 공감대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

② 댓글이 글의 뒷부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며 서사의 흐름과도 관련
이 없다.

③ 댓글은 글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며,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려
는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

⑤ '더불어 함께'는 필자와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기에 비슷한 의견을
지닌 사람끼리만 모였다고 볼 수 없다.

07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글의 주제는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
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해야 한 다는 내용에 대해 썼다.	☐
평서형의 한 문장으로 썼다.	☐

08 이 글에 나타난 '반대 1'과 '찬성 1'은 둘 다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답 풀이 ② '반대 2'는 육류 소비와 동물 복지는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반대 1'은 '자전거 이용'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으
며,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④ '찬성 1'은 '채식 급식'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소극
적 대응책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⑤ '반대 2'는 '채식의 날' 도입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가치 실현에 대해
는 말하지 않았다.

09 이 토론에서 양측 모두 '채식의 날' 운영의 효과가 부족하여 이를
철폐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발언하지 않았다.

10 반론은 입론과 반대 신문을 통해 드러난 양측 논쟁의 강점과 약
점을 자신의 입장에서 재정비하여 최후 진술하는 말하기이다.

11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쓰는 과정 중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는 다양한 매체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자료를 수집한다는 내용에 대해 썼다.	☐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는 내용에 대해 썼다.	☐

12 이 글은 자신의 견해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⑤와 같은 내용은 문학 작품에서 중요시된다고 볼 수 있다.

13 이 글은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견해를 나타내는 글로, 독자를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나의 핵심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끝'에 실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공원 실외 체육 시설 야간 이용의 관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인 녹색구와 관련한 자료가 '중간 2'에 나타나 있다.
 ④ '중간 3'에서 예상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이 나타나 있다.
 ⑤ 야간에 공원 실외 체육 시설을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 '중간 1'에 근처 거주민의 인터뷰가 나타나 있다.

14 '야간에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실린 신문 기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2'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④ 자료의 내용이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⑤ 논제에서 벗어난 근거 자료이다.

15 이 개요의 '중간-3'에서 야간에도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 제시된다. 해당 부분에서 제시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중간-3'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썼다.	☐
예상 반론을 반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대단원 평가 ②

372~375쪽

- 01 ⑤ 02 ③ 03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04 ② 05 ③ 06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07 ④ 08 ④
 09 ③ 10 ③ 11 ④

01 (가)의 토론, (나)의 <기사>를 본 학생들의 대화 모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펼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는 공장식 축산이 아닌 '채식의 날' 도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
 ② (나)에는 삶의 질 향상 방안이 아닌 공원의 야간 체육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
 ③ (가)와 (나) 모두 정책 실행에 따른 불이익이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실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의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는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루는 정책 논제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④ 사실 논제에 해당한다.
 ②, ⑤ 가치 논제에 해당한다.

03 '찬성 2'와 '반대 2'의 입론을 통해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 윤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쟁점에 관해 토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동물 복지,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필수 쟁점을 썼다.	☐
평서문 형태의 문장으로 썼다.	☐

04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장이 타당함을 밝히는 것은 입론에서 해야 할 내용으로 '찬성 2'가 입론 전에 한 생각으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반대 신문에 대한 내용이다.
 ③ 입론에 대한 내용이나, '반대 2'의 입론과는 관련이 없다.
 ④, ⑤ 반론에 대한 내용이다.

05 '은호'는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주변 주민들이 방해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권리를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은호'와 '지수'는 모두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의 저조한 이용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② '은호'는 공원 실외 체육 시설의 빛 때문에 근처 주민들이 야간에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④ '지수'는 밤에만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용 시간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했을 뿐, 운동 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⑤ 실외 체육 시설의 사적 소유권은 '은호'와 '지수'가 다루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 아니다.

06 두 사람이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 제한에 대한 문제를 두고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공원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 제한 문제에 대해 썼다.	☐

07 주민 인터뷰는 현장감을 높여 주고, 사실성, 신뢰성을 높여 주는 효과는 있지만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원 야간 실외 체육 시설 이용으로 인한 공원 인근 거주민의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다.
 ② 신문 기사는 견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신문 기사는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⑤ 실내 체육 시설의 운영 시간을 자료로 들어 늦게까지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론에 반박할 수 있다.

08 푸름 공원 농구장에서 촬영한 농구 자세와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 영상은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이용 문제라는 사회적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이다.

- 오답 풀이** ① 녹색구 복합 문화 센터의 야간 실내 운동 취재 영상을 통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반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푸름 공원 관리 요원의 야간 체육 시설 관리 어려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원 야간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야간에 공원 체육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를 보도한 뉴스 영상을 통해 공원 야간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푸름 공원 근처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원 실외 체육 시설의 야간 소음 공해의 피해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공원 야간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09 학생이 쓴 글인 (나)의 제목은 '푸름 공원의 실외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해 주세요.'로 학생의 주장과 일치한다.

10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예상 독자의 태도를 추측하여 전략을 정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고쳐쓰기'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②, ⑤ '내용 조직하기'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④ '표현하기'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11 (나)를 통해 필자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 문제는 헬멧 착용 의무화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이용자가 헬멧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헬멧이 제공되더라도 위생 및 분실 문제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④와 같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한 사고 발생의 신문 기사 보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의 높은 위험성을 부각하였다.
 ② '개인형 이동 장치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사진을 통해 무분별하게 세워진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규제 문제'라는 사회적 쟁점에 대해 규제를 찬성하는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해당 문제에 대해 희망시 주민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며 공론화를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학기 중간고사

378~383쪽

- 01** ④ **02** ③ **03** '바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를 형상화한 것이다. **04** ① **05** ⑤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③를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1** ④ **12** ⑤ **13** ④ **14**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진실을 알고 있는 파수꾼 '다'를 격리시켜 진실을 폭로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15** ⑤ **16** ⑤ **17** ③

01 (나)에서 화자가 거미들을 보며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작가가 거미들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흩어져야 했던 1930년대 우리 민족의 현실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화자는 거미들과 우리 민족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창작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작가 맥락을 고려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시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작가 맥락을 고려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작가의 다른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작가 맥락을 고려한 감상에 해당한다.
 ⑤ (나)에서 민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창작 당시의 민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연결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감상에 해당한다.

02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이는 일생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대상의 일생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즉, '일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만남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일뿐 시간의 흐름을 점층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오기 때문이다.'와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주제를 담담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자연물인 '바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삶의 태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⑤ 타인과의 만남을 타인을 정성껏 맞아 후하게 대접하는 '환대'로 표현하며 타인과 만나는 바람직한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03 사람이 온다는 건 마음이 오는 것이며, '바람'은 그 마음을 더듬어 본다.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위로하며 헤아리는 행위이다.

평가 기준	확인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 격려(그 외 '환대'와 맥락이 유사한 단어)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거미'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함으로써 가족 공동체가 흠어지는 상황의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자연에 대한 경외감은 (나)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③ 시적 화자는 '나'로 표면에 드러난다.
 ④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닌, 화자의 경험을 토대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삽화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지도 않다.
 ⑤ '차디찬 밤이다'에서 촉각적 이미지와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이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혹독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문환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5 거미 새끼를 처음 발견했을 때 화자인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쏘아 버린다. 즉 ㉠은 화자의 의도가 없이 무심하게 이루어진 행동이다. 이후 새끼 거미가 쏘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온 것을 보고 화자는 거미 가족들이 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큰 거미를 쏘아 버리며 새끼에게 가라고 슬퍼한다. 즉 ㉡은 화자가 거미 가족이 재회를 하길 바라는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06 글 전체에서 방향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 10대는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10대는 자신을 빠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이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네 단계 중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단번에 답하기 힘든 이유로, 이 질문에 답하려면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나'에 대해 잘 아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단계 중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단번에 답하기 힘든 것이다.
 ② (가)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서 자신의 방향을 찾는 두 번째 단계로 경험을 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다)에서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아는 것이라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07 ㉠ (가)에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 바늘이 꺾이며 좌우로 흔들리는 것에 해당하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해 '이런저런 경험을 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모색'은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가)에서 나침반의 바늘이 멈춘 후에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에 해당하는 네 번째 단계는 두려움은 있지만, 자신의 방향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확신'은 두려움과 자신의 방향에 대한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가)에서 방향하지 않는다면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방향은 자신의 방향을 찾는 길에 오르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가)에서 세 번째 단계는 '내 길을 찾긴 찾았는데, 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빠진 상태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매체 자료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계획한 목적과 주제에 적합한 관점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관점의 자료를 모두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9 립싱크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그것이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지 그들이 '엇박자 D'에게 억압을 당하는 입장이 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음악 선생'은 '엇박자 D'에게 합창단에서 사퇴하지 않는 조건으로 립싱크를 하라고 하는데, 이는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엇박자 D'를 인정하지 못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엇박자 D'가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미식한 노래를 공연에 올린 것은 그가 획일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③ '엇박자 D'가 공연에 음치들의 노래를 포함한 것은 음치들의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⑤ 관객들이 음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은 '엇박자 D'가 공연을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개성의 존중'이라는 의도가 관객에게 잘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 고등학교 시절 '엇박자 D'에게 강요된 립싱크는 '음악 선생'의 억압적인 지시에 의해 합창을 망치지 않기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친구들이 하는 립싱크는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엇박자 D'에 대한 예의와 맥락이 유사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
이유를 (라)에서 찾아 썼다.	☐
'③을 ~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의 형식으로 썼다.	☐

11 서술자가 '음치들'의 노래가 음도, 박자도 맞지 않음에도 아름답게 들리며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어둠 속'이어서가 아니라 차이와 다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둠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서 그 이유를 찾은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계속 불러' 보라는 음악 선생의 말은 '불길한 기운'의 원인인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불길한 기운'의 주인공을 찾으려는 '음악 선생'의 위압적인 모습에 아이들이 겁을 먹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엇박자 D'의 목소리만 들리면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 합창이 엉망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⑤ '음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웃지 않고, 따라 부르기까지 하는 모습을 통해 20년 전 합창을 함께 하지 않은 관객들도 노래에 감동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희곡 갈래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전제로 창작되기 때문에 다른 갈래에 비해서 시간, 공간적 제약이 크다.

- 오답 풀이**
- ① 희곡 갈래는 무대에서 극을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쓰인 글이다.
 - ② 희곡에서는 극적 대립과 갈등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파수꾼 '다'와 '촌장'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희곡은 무대에서 상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여 준다.
 - ④ 희곡은 소설과는 달리 별도의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고,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13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촌장의 말은 파수꾼 '다'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해 한 말일 뿐,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당시 권력을 쥔 사람 중에서도 진실을 밝히려 했던 이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작품에서 '촌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이리 떼'는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에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정치적 상황을 악용했던 것들이 실재하지 않는 '이리 떼'처럼 허황된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결국 '이리 떼'가 온다고 소리치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파수꾼 '다'에게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하는 '촌장'의 모습은, 처음부터 시민들을 속이고 통제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지배 계층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사람들이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했다는 '촌장'의 말은 1970년대에 정치적 상황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지배 계층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촌장의 권력은 무너질 수 있고,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서도 마을 사람들이 '이리 떼'가 계속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촌장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파수꾼 '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도록 영원히 고립시키려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파수꾼 '다'가 진실을 폭로할 가능성을 차단한다'와 같은 맥락이 유사한 설명을 포함하여 썼다.	☐
'촌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과 유사한 설명을 포함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5 '촌장'은 '이리 떼'가 올 것이라는 말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며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촌장' 자신이 아닌 파수꾼들의 일을 고귀한 희생이라고 미화함으로써 파수꾼 '다'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진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촌장'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며 파수꾼 '다'가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려 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촌장'이 파수꾼 '다'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그의 폭로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④ 시간을 뒤로 미루면 내일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촌장' 자신이 '이리 떼'가 아닌 '흰 구름'이라 외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16 이 글의 갈래는 수필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지만, 작가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한의원에 대한 지인들과의 대화, 조카와의 대화라는 작가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이 글은 한의원에 대한 지인들과의 대화, 조카와의 대화라는 작가의 체험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다.
 - ③ 이 글은 한의원에 대한 지인들과의 대화, 조카와의 대화라는 경험에서 얻은 타인의 선의에 대한 신뢰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글이다.
 - ④ 이 글은 한의원에 대한 지인들과의 대화, 조카와의 대화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며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17 작가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선의를 믿는 일이 일종의 모험이라며, 불신과 불의를 행동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탓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작가는 조카에게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 조카가 선생님께 지적과 당부를 들었지만 그 말이 선의를 바탕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 ② 작가는 여간해서는 약을 지어 주지 않는 한의원의 방침이 환자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주는 일종의 선의라고 생각했다.
 - ④ 작가는 불필요한 약을 지어 주지 않은 한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주변 사람들이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냐며 넘겨짚으며 선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에 선의가 드문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 ⑤ 작가는 선생님에게 지적과 당부를 듣고도 즐거워하는 조카의 모습을 보며 조카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 01 ③ 02 ④ 03 투표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권을 한다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04 <보기 2>에서는 근로자를 기계처럼 생각하고, 근로자를 통제하여 근로자의 인간적 측면을 무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 05 ③ 06 ③ 07 ③ 08 ④ 09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은 구개음화, ㉢은 비음화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10 ⑤
- 11 ⑤ 12 ⑤ 13 협력의 원리 14 ⑤ 15 ③ 16 ③
- 17 ⑤ 18 ⑤ 19 ③ 20 토론의 절차에 따라 참가자들이 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21 ④
- 22 ④

01 (다)에서 기권을 하지 않는다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기권을 통해 누구도 지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권을 투표 제도 내에서 하나의 의사 표현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과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나)에서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④ (라)에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투표권이 생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에서 브라질 시민들은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며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은 투표를 통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투표 제도의 효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02 (다)에서는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며 주장과 관련한 예상되는 반론을 제기하고,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면 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반박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기권과 관련한 학자들의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기권이 아닌 새로운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③ 기권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고 있지 않다.
- ⑤ 기권과 관련한 기본 입장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나타나 있지 않다.

03 ㉠은 필자가 예상한 반론이다. 반론에 대한 답변으로 필자는 그럼에도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으며,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라고 답변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형식의 문장으로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4 <보기 1>에서는 20세기 들어 등장한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되며 제품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생산의 중심이 사람에서 기계로 옮겨갔고, 근로자들도 한 가지 일만 계속 반복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 2>를 봤을 때, 근로자들은 기계처럼 한 가지 일만 반복하게 됐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근로자를 기계처럼 보며 인간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근로자를 통제하여 근로자의 인간적 측면을 무시하는 문제 또는 그와 맥락이 유사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5 (나)에서는 '샐러드 그릇'이라 일컬어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섞이는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 배경 인구의 문화를 우리의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비범법처럼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총 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는 내국인 귀화자, 내국인 이민자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에서 이주 배경 인구의 비율은 2020년 4.2%에서 2040년 6.4%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에서 총인구 생산 연령 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의 비율은 4.7%에서 8.6%로 3.9%p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 배경 인구가 같은 기간 2.2%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이다.

06 이주 배경 인구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형태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이 늘고 이에 따라 언어 공동체의 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학생 10명 중 1명은 외국 국적이나 배경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② 이주 배경 인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이 사회 전반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④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갈등과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 ⑤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배경 청소년이 늘어나면 이들을 위한 교육과 학업 보충의 필요성 역시 늘어날 수 있다.

07 '굳이[구지]'는 구개음화, '학교[학교]'는 된소리되기, '종로[종노]'는 비음화, '축하[추카]'는 거센소리되기, '붙이다[부치다]'는 구개음화, '만리포[말리포]'는 유음화, '백마강[뱅마강]'은 비음화가 각각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둘다 비음화가 일어난 '종로[종노]'와 '백마강[뱅마강]'이다.

- 08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난다.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비음화가 한 번 일어난다.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구개음화가 한 번,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난다. ㉠과 ㉡은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나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ㄱ’이 앞 글자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교체된 ‘ㄷ’의 영향을 받아 ‘ㄷ’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② ㉡에서는 ‘ㄴ’이 ‘ㄹ’을 만나 ‘ㄹ’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③ ㉢에서는 두 번째 글자에 있는 ‘ㄷ’이 ‘ㄹ’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ㄹ’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⑤ ㉠~㉢은 모두 공통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이 일어난다.

- 09 ‘날날이’는 ㉠의 음운 변동을 통해 [난나티]가 되므로, ㉠에서는 ‘날’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 ㉡의 음운 변동을 통해 [난나티]가 [난나치]가 되므로 ㉡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의 음운 변동을 통해 [난나치]가 [난나치]가 되므로 ㉢에서는 ‘날’의 받침 ‘ㄷ’이 이어지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평가 기준	확인 ☒
㉠에서 앞의 ‘날’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썼다.	☐
㉡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을 썼다.	☐
㉢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을 썼다.	☐
‘㉠은~, ㉡은~, ㉢은 ~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의 형식으로 썼다.	☐

- 10 선생님에게 ‘회장’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어가 ‘회장’인 ‘가져오시라고’는 ‘가져오라고’로 고쳐 써야 하지만, 주어가 ‘선생님’인 ‘하셨어’는 올바른 표현이므로 고쳐 쓰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귀’는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이므로 간접 높임을 해야 한다.
 ② ‘나오다’의 주어는 ‘음료’로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나오셨습니다’를 ‘나왔습니다’로 고쳐 주체 높임은 하지 않고, 상대 높임으로 청자인 손님만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
 ③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부사격 조사를 ‘에게’ 대신 ‘께’를 써서 높여야 한다.
 ④ ‘가다’의 주체인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써서 ‘가신’으로 높여야 한다.

- 11 ‘벌어질’은 관형사형 어미 ‘-르’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 즉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어제’는 ‘오늘의 바로 하루 전에’라는 뜻의 부사어로 과거를 이룰 바탕으로 과거 시제임을 알 수 있다.
 ② ‘하고 있다’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고 있다’를 통해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외에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문장에서는 언니의 도착이 조금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④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외에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문장에서는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12 ⑤에서는 ‘발’이 다른 주체인 ‘옆 사람’에게 ‘밟히는’ 동작을 당하였으며,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주어가 제힘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능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④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고 있으므로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 13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맞게 서로 협력하여 대화해야 한다는 대화의 원리는 ‘협력의 원리’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협력의 원리임을 썼다.	☐

- 14 현재의 담화 관습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과거의 말하기 관습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여지가 적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드러내면서도 과거의 담화 관습을 수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과, 상대방을 높여 말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말하기 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현재의 관점에 따라 이 둘 중에서 맞는 방식을 선택해 활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별로 차린 것이 없습니다.’나 ‘능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을 낮추어 말하는 표현이다. 과거에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미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② 현재의 담화 관습에서 과거와 달리 ‘정성껏 차렸다’,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겠다’ 등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러한 태도를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선호하는 것이다.
 ③ 현재의 담화 관습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표현이 직설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과거에 비해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현재의 담화 관습은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과거의 담화 관습과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 15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조사 ‘라고’를 쓰는 반면, 간접 인용은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 ‘고’를 쓴다. 큰따옴표를 사용한 ㄴ만 직접 인용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간접 인용문이다.

16 (다)에서 실내 체육 시설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내 체육 시설별 이용 가능 시간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야간 관리 인원 확충이 어렵다는 녹색구의 사례를 다른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② (다)에서 야간에만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는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실내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④ (라)에서 실외 체육 시설 이용 시간 제한을 통해 근처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나)에서 야간 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다는 주민의 반응을 넣음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17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쓰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문제 의식을 환기할 수 있다는 것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8 사회적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를 표현하는 글을 쓸 때는 먼저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예상 독자에는 견해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해당 쟁점에 관심이 있는 대중 등이 있으므로 예상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견해를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내용 전개 원리와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 고쳐 쓰기 단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잘 적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글을 쓸 때는 쓰기 윤리를 잘 지켜 상대방을 존중하며 글을 작성해야 한다.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참고 자료

쓰기 윤리

'개인적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다. '사회적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활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19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하는 것은 토론 참여자가 아닌 청중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이다.

참고 자료

토론을 참관하는 청중으로서의 태도

- 객관적인 입장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발언 듣기.
- 논거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평가하기.
- 주장의 일관성, 토론 규칙의 준수 여부를 살펴 토론자 평가하기.

20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의 절차에 따라 토론자를 지목하고 토론 참여자들이 순서에 따라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토론 참여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	☐
'~하고 있다.' 형식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21 '반대 1'은 현대 농업이 친환경적이지 않음을 강조하지만, 이는 채식의 날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농업이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농업으로 인한 먹거리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축산업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뉴욕과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하며 채식 급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②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14.5퍼센트, 2,200만대의 자동차 등 구체적 수치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③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의 문제를,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자료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유엔 식량 농업 기구 자료에 따르면 축산업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7퍼센트 정도로, 나머지는 사료 제조, 가축 수송 등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대 1'은 육식을 줄여도 환경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2 [A]에서 '반대 2'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대안의 빈도에 대해 언급하며, 그 정도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냐며 대안의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료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② 논증의 구조적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으며, 대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측 주장의 진위 여부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⑤ 상대측이 예측한 대안의 효과나, 상반되는 사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